

# ㉠ 노갈만족 예산여행

┌ 이병헌 著



글·사진 이병헌

---

《문예사조》시 부문 신인상

《문학 21》소설 부문 신인상

네이버 블로그 '자연 여행 그리고 삶' 운영

여행 안내서 『5천만이 검색한 가족 여행기』

시집 『새 섬 속으로』

예산문인협회 회장 역임

◎  
노갈만족  
◎리산여행

이병헌 著

Tourist Map of Yesan-gun  
 예산군 관광안내지도



예산군

- 10 예산군 관공서 (Yesan-gun Gwan-gong-so)
- 11 예산군 문화체육관광센터 (Yesan-gun Munhwa-sul-gwan-gwan-seon-teo)
- 12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Yesan-gun Nong-yeop-gi-sul-seon-teo)
- 13 예산군 노인복지센터 (Yesan-gun Nonin-bok-ji-seon-teo)
- 14 예산군 장애인복지센터 (Yesan-gun Jaeng-in-bok-ji-seon-teo)
- 15 예산군 청소년문화센터 (Yesan-gun Jeung-shon-mun-hwa-seon-teo)

- 16 예산군 도서관 (Yesan-gun Do-sa-gwan)
- 17 예산군 박물관 (Yesan-gun Bo-guk-gwan)
- 18 예산군 미술관 (Yesan-gun Mi-l-gwan)
- 19 예산군 체육관 (Yesan-gun Sul-gwan)
- 20 예산군 공연장 (Yesan-gun Gon-yeon-jang)
- 21 예산군 체육센터 (Yesan-gun Sul-gwan-seon-teo)



(지도 : 예산군청 제공)

**Legend**

국도	지방도	하천	우천
고속도로	국립공원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생태원
역	마을	농촌진흥청	농업박물관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생태원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생태원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생태원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생태원

응봉 대흥 광시 3

1. 1997. 12. 29. 제정 (예산군청) 2. 2011. 12. 29. 제정 (예산군청) 3. 2011. 12. 29. 제정 (예산군청)

발간사

## 전통이 살아 있는 아름다운 예산

예산문화원에서는 매년 지역의 향토사를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 지역민들의 생활사등을 발굴, 보존, 계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서적으로 편찬하여 각급 도서관과 관내 기관 단체들에 배포하여 학생이나 전국의 지역학 연구 교재로 활용되어 1100년 예산의 역사와 문화가 이어져 나가기 위한 소중한 자료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오감만족 예산여행』 역시 지역 향토사 발굴을 위한 「지방문화원 활성화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 기획되었고 현재 예산군 오가면의 임성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이병헌 선생님과 사전 교감을 통해 예산의 대표 경관이 8경에서 10경으로 확대 추진되는 시기에 맞추어 10경뿐만 아니라 지명탄생 1100주년의 역사와 문화에 걸맞는 소개 책자를 발간하는 데 동참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평소 예산문화원에 향토서적 발간에 소중한 사진 등을 협조하고 계신 이병헌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원활하게 진행되어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병헌 선생님의 서문에서 보듯이 예산의 숨겨진 얼굴들이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어 증보 발행되어 알려질

수 있도록 예산문화원도 함께 노력할 것이며, 좋은 글과 멋진 사진으로 예산 알리미로서 첩병의 역할을 기꺼이 맡아 주신 이병현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취지에 적극 동참하시어 소중한 향토자료를 역사에 남기도록 도움을 주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과 황선봉 예산군수님 그리고 예산군의 회를 대표하여 권국상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예산군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감만족 예산여행』을 통해 1100년이라는 세월을 입은 예산의 모습이 더욱 소중하게 마음에 담아 지기를 앙망합니다.

2017년 12월  
예산문화원장  
공학박사 김시운

서문

## 참 좋은 여행지 예산

예산은 어느 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사계절 여행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동차로 이동을 하여도 전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4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도 어렵지 않게 예산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는 수덕사나 예당호 등 예산 10경을 비롯하여 10경에는 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슬로시티 대흥이나 고건축박물관 등 돌아볼 곳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팔미의 음식이 있고 사과나 쪽파 등 특산물이 있으며, 근처 가까운 산에서 등산을 한 후 덕산온천에서의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문화원에서 펴내는 예산 여행 안내책자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잘 알려진 여행지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여행지 그리고 최근에야 만나게 되는 여행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여행지를 떠올릴 때마다 께 나가면서 여행 안내책을 준비하였습니다. 몇 번씩 가서 사진을 찍고 주민들에게 알아보기도 하면서 가장 생생한 정보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 군지나 홈페이지, 예산군에서 발행한 문화재 관련 안내 책자 등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예산을 여행하는 분이나 예산에 살고 있는 군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앞으로 예당호 출렁다리 등 새롭게 태어나는 곳도 많이 있으니 기회가 되면 증보판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김시운 문화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예산군청의 문화관광과장님과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신익선 시인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이 병 현

발간사 전통이 살아 있는 아름다운 예산..... 4  
 서 문 참 좋은 여행지 예산..... 6

〈오감만족 예산여행〉

일정별 따라가기..... 14  
 주제별 여행하기..... 16  
 체험하며 즐기기..... 18  
 참여하고 느껴보기..... 24  
 예산8味 식도락 여행..... 28

〈구석구석 돌아보기〉

예산 여행의 감초 서북부 지역..... 34

01 덕산면 ..... 38

〈수덕사 지구〉

수덕사 선미술관...39 수덕여관...40 수덕사...42

덕송산 오르는 길...44 한국고건축박물관...46

〈덕산온천 지구〉

덕산 메타세콰이어길...50 윤봉길 의사 생가와 기념관...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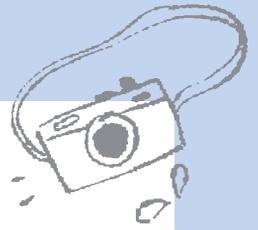
충의사...53 보부상 유물관...54 덕산 광덕사...56

덕산향교...57

〈가야산 지구〉

헌종대왕 태실...59 옥병계와 옥계저수지...60 남연군 묘...61

상가리 미륵불...63 보덕사...64



<b>02 봉산면</b> .....	66
화전리 석조사면불상...67	효교리 매항비...69
정대영 가옥...70	이의배 신도비...71
<b>03 고덕면</b> .....	72
한내장...73	석곡리 석탑과 미륵불...75
정동호 가옥...76	구만포구 기념공원...78
아그로랜드 태신목장...79	
<b>예산의 사과 향기 중부 지역</b> .....	80
<b>04 삽교읍</b> .....	84
수암산과 예산삽교 석조보살입상...85	예산 법륜사...89
목은 이색 영당...90	삽교공원...92
삽교평야...93	
<b>05 오가면</b> .....	94
오가 삼학사 기념비...95	오가 역탑리 백로 서식지...96
전통예산웅기...97	사과과수원...99
<b>06 신암면</b> .....	100
추사고택...101	추사기념관...104
추사와 증조부·고조부의 묘...105	화순옹주...홍문 106
백송공원과 백송...107	화암사와 암각문...108
자암 김구 신도비와 묘...110	여사울 성지와 이준창 생가터...111

예당호를 품은 남부 지역..... 114

07 응봉면..... 118

- 예당호...119 예당호 조각공원...123
- 예당호 국민여가 캠핑장...124 예당국민관광지...125

08 대흥면..... 126

- 슬로시티 대흥...128 의좋은 형제 공원과 대흥장...131
- 대흥동헌과 의좋은 형제비...132 대흥향교와 은행나무...135
- 망태할아버지 석상...136 이한직 가옥...137
- 상중리 느티나무...138 예당호 중앙생태공원...139
- 우리물고기 생태체험관...140 느린교부랑길... 141
- 임존성과 봉수산...144 봉수산 자연휴양림...146
- 봉수산 수목원...147 예산 송림사와 송림사 부도...148
- 박기성 가옥...149

09 광시면..... 150

- 대려사...151 최익현 선생 묘와 재실...153 광시 한우 테마공원...154
- 한국문인인장박물관...155 황새공원...156 쌍지암...158
- 김한중 의사 생가와 기념관...160

예산문화의 중심 남동부 지역..... 162

10 예산읍..... 166

- 향천사...167 탈해사...170 예산향교... 172 예산산성...173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174 일연각과 묘...174
- 외곽도로의 벚꽃...176 예산성당...176 예산 호서은행...178
- 예산 평화의 소녀상...178 예산장...179
- 백중원국밥거리와 예산시네마...180

11 대솔면.....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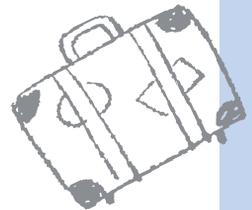
- 분례숲길...183 한국토종씨앗박물관...184
- 이남규 고택과 기념관...186 예산 상항리 석불...188
- 이광임 고택...189 강민첨 장군 묘...190 이산해 묘...191

12 신양면..... 192

- 조익의 묘와 도산서원...193 일산이수정...194
- 한국서예비림박물관...196

■ 부록

1. 예산읍면사무소 주소...200
2. 관광안내 전화번호...201
3. 예산군 등산 및 트레킹코스...202



# 오감만족 예산여행

충청남도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예산군은 동쪽으로는 공주시가, 서쪽으로는 서산시, 남쪽으로는 홍성군과 청양군이 북쪽은 당진시, 아산시와 접하고 있다. 예산군의 인구는 8만여 명이고 면적은 542.29km<sup>2</sup>이다. 예산군은 2개 읍과 10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은 관광자원도 풍부하여 예산8경으로 수덕사, 가야산, 충의사, 추사고택, 예당호, 임존성, 예산사과, 삽교평야 등이 예당여행의 중심지였는데 2017년 황새공원과 덕산온천을 추가하여 예산10경이 되었다.

예산은 먹거리 또한 풍부해서 예산8미로 불리는 전통 한우갈비, 예당 붕어찜, 수덕사 산채정식, 삽다리 곱창구이, 민물어죽, 장터국밥, 예산국수, 광시 소고기구이를 비롯하여 많은 먹거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덕숭산이나 가야산 등 등산을 할 만한 산도 많이 있고 등산이나 여행을 한 후에 덕산온천을 찾아 피로를 풀 수 있는 힐링의 일번지가 되고 있다.

예산은 예전에는 지나가는 관광지였지만 지금은 숙박을 하면서 돌아보는 여행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은 황새공원, 예산저수지와 중앙생태공원, 수목원 등이 어우러져 생태여행지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임존성과 예산산성 등 역사문화유적지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수덕사와 향천사, 보덕사 등의 사찰기행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예산의 명소이다. 예산은 수덕사 대웅전이 국보 49호로 지정되어 있고 예산삽교석보살입상 등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도 많이 있으며, 용궁리 백송이 천연기념물로 정해져 있는 등 문화재가 많이 있어 문화

재 기행 또한 인기가 있다.

예산을 제대로 돌아보려면 2박 3일은 걸리지만 보통 1박 2일의 여행으로도 예산여행을 할 수가 있다. 예산여행은 생태여행이나 산사 기행 등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여행을 하거나 지역중심의 여행으로 한 지역을 훑어보는 여행을 할 수도 있다. 여행을 하는 목적 중 한 가지가 지역의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니 여행지에서 예산의 향토음식인 봉어찜이나 어죽 등을 먹어봐야 한다.

예산여행은 사계절 중 어느 때에 와도 좋은데, 계절별로 돌아보기에 좋은 계절여행 또한 여행의 묘미가 될 수 있다. 어느 곳을 여행하든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미리 여행 책자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아보고 여행을 하는 것이 여행의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다.

예산에는 예당호출렁다리와 수변걷기길, 보부상촌 조성, 국립치유의 숲 등이 건설 중에 있으니 예산의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되니 미래의 예산관광도 밝다고 할 수 있다.



## 일정별 따라가기

사실 예산여행을 하루에 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여행의 엑기스를 중심으로 여행할 수 있는데 덕산 지역과 신암의 추사고택 그리고 대흥과 광시를 돌아보면서 수덕사 앞 식당에서 산채정식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예당호 근처에서 어죽이나 민물매운탕 혹은 붕어찜으로 저녁식사를 한 후에 출발지도 돌아보면 된다. 물론 식사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코스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바뀌서 갈 수도 있다.

1박2일 코스는 주어진 곳을 여행하면서 역사와 힐링 그리고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산의 문화를 좀 더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곳 역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해서 여행을 할 수 있다.

2박3일 코스는 좀 더 예산과 친해지고 예산의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그리고 예산의 역사를 골고루 돌아볼 수 있는 코스로 선정하였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도 코스에 넣어서 예산을 돌아보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3박 4일이나 그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먼 단위로 주어진 여행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예산군민들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사는 예산군을 돌아보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하면 좋겠다. 다른 지역 여행은 많이 하면서 정작 예산 여행을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재와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예산여행 당일 코스

예산수덕사.C - 총의사 - 고건축박물관 - 수덕사 - 점심(수덕사산채정식) - 추사고택일원 -  
예당호 - 황새공원 - 저녁식사(민물매운탕 혹은 붕어찜) - 예산수덕사 I.C

## 예산여행 1박 2일 코스

### 1. 첫째 날

예산수덕사.C - 추사고택 일원 - 총의사와 도중도 - 점심(수덕사 산채정식) - 수덕사 - 고건  
축박물관 - 예산화전리 사면석불 - 예산삼교석조보살입상 - 온천욕 - 저녁식사 - 메타세콰이  
어길 산책 - 숙박(덕산온천)

### 2. 둘째 날

덕산 - 향천사 - 이남규 고택 - 일산이수정 - 예당호 - 점심식사(메기찜 혹은 민물매운탕) -  
황새공원 - 임존성 - 대흥슬로시티 - 저녁식사(광시 소고기구이) - 예산수덕사 I.C

## 예산여행 2박 3일 코스

### 1. 첫째 날

예산수덕사 .I.C - 아크로랜드 태신목장 - 점심(수덕사산채정식) - 수덕사 - 고건축박물관 -  
총의사와 도중도 - 추사고택일원 - 온천욕 - 저녁식사(보리밥 혹은 밴댕이찌개) - 메타세콰이  
어길 산책 - 숙소

### 2. 둘째 날

아침식사(해장국) - 예산화전리 사면석불 - 예산삼교석조보살입상 - 남연군묘 - 보덕사 - 향  
천사 - 점심식사(한정식 혹은 한우갈비) - 이남규 고택 - 일산이수정 - 예당호 - 일몰감상(황  
금나무) - 저녁식사(민물매운탕 혹은 붕어찜) - 숙소(봉수산휴양림 혹은 주변 펜션)

### 3. 셋째 날

예당호 일출 - 아침식사(부근 국밥집) - 봉수산수목원 - 황새공원 - 임존성 - 점심식사(광시  
쇠고기) - 대흥슬로시티 - 예산수덕사 .I.C

## 주제별 여행하기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 지역을 여행할 때는 그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역사적·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여행을 하면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예산’ 하면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생태여행인데 예산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서 깊은 수덕사를 중심으로 한 산사기행도 추천할 만하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수덕사 대웅전을 중심으로 예산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재기행도 추천할 만한 코스이다. 예산에는 고택이 많이 있고, 고건축박물관이 있어서 고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좋은 여행지이다. 그리고 윤봉길 등 예산이 낳은 위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은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

## 1. 생태 여행

예산수덕사.C - 황새공원 - 봉수산수목원 - 중앙생태공원  
- 예당호 - 오가백로서식지(봄, 여름) - 예산수덕사.C



## 2. 예산 산사 기행

수덕사 - 보덕사 - 법륜사 - 탈해사 - 향천사 - 대련사 -  
쌍지암



## 3. 예산문화재 기행

수덕사 - 예산삼교석조보살입상 - 예산화천리사면석불 -  
김정희생가(백송)



## 4. 고건축 기행

예산수덕사.C - 고건축박물관 - 수덕여관 - 정동호 가옥  
- 김정희 고택 - 이한직 가옥 - 이남규 고택 - 이광임 고택



## 6. 예산 6현의 발자취 따라서

윤봉길(충의사) - 김정희(추사고택) - 신현상(일연각) - 최  
익현(묘와 재실) - 김한중(생가와 기념관) - 이남규(고택과  
기념관)

## 체험하며 즐기기

체험을 통해서 예산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은 여행의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해 준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에는 예당호의 초록빛 세상과 낚시, 가을에는 과수원에서 사과 따기와 사과 잼 등 관련 제품 만들어 보기, 여름에는 우리 지역의 걷기 길을 걸으면서 느껴보기 그리고 겨울에는 예당호 낚시 여행과 가야산 설경 등반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슴속 깊이 담아낼 수 있다.

예산에는 사과과수원이 많으니 사과 따기 체험과 사과잼, 사과쿠키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고 전통예산옹기에서 생활옹기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슬로시티 대흥에서는 슬로시티만의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궁중음식 체험, 표고버섯 채취, 전원체험 등 색다른 체험여행이 풍부하여 하루 소풍처로도 손색이 없다.

### 1. 전통예산옹기

황충길 명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박물관에서 옹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옹기의 우수성을 배우고 생활 옹기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옹기를 만들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통옹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한다.

전화 : 041- 332-9888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촌중앙길 106

홈페이지 : <http://www.yesanonggi.co.kr/>



### 2. 슬로시티 대흥체험

아름다운 마을 대흥 슬로시티에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데 흙물감 만들기과 그리기, 미니북 만들기, 슬로시티 대흥 마을 탐사, 숲 체험, 놀이로 만나는 대흥 역사, 자신이 직접 준비해서 먹는 자연밥상 체험 등을 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두 번째 토요일에는 대흥장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슬로시티 교촌한옥(041-335-0163)에서 숙박도 가능하고 귀농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슬로시티의 의미와 중요성을 배우면서 자연 속에서의 느낌의 미학을 새기는 기회가 된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중리길 49

전화 : 041-331-3727

홈페이지 : 041-331-3727



### 3. 알토란 사과체험마을

알토란 사과체험 마을에서는 사과 따기뿐만 아니라 사과 모양 칠보공예(목걸이, 휴대폰걸이), 사과나무 가지 공작 만들기, 사과 떡 만들기, 사과잼 만들기 등 사과와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응봉면 운곡길 81

전화 : 010-5118-7200

홈페이지 : <http://altoran.go2vil.org>





#### 4. 이람농장

이곳은 교육농장으로 사과와 한살이와 식물의 성장 알아 보기, 사과와 다른 여러 과일나무 비교하고 관찰하기, 사과와 배 등을 수확하기, 사과잼, 사과고추장, 사과쿠키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는데 중학교 자유학기를 맞아 많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오기면 신장원평길 46-13

전화 : 041-331-1837, 010-4488-1837

홈페이지 : <http://www.ijoaapple.com>

#### 5. 사과와인 체험장(은성농장)

이곳은 일 년 내내 많은 관광객이 체험관광을 오고 있는데 사과 따기, 사과 와인 만들기, 사과잼·사과파이 만들기, 잣풀 체험, 사과와인 시음 및 바비큐 동물농장, 사과 밭 캠핑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와인 만들기 및 시음회 체험도 있고 와인 병에 담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몽로 107-25

전화 : 337-9585

홈페이지 : <http://winefestival.co.kr>

#### 6. 전통음식 체험장

이곳에서는 우리 예산의 특색 음식인 퓨전 사과떡 파이 만들기를 비롯해서 떡메 치고 인절미 만들기, 전통 한과 만들기 등을 통해서 우리 음식의 중요성과 맛을 느낄 수 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삼교읍 수춘학재길 140

전화 : 010-4471-2527

## 7. 예산 삼베길쌈 마을

삼베길쌈, 전통음식, 농사 등 전통과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데 김한중 의사의 생가와 기념관이 있는 마을로 연계 체험이 가능하다.

주소 : 충남 예산군 광시면 장신신흥길 283-1

전화 : 위원장 정경순 (010-7119-1522)

## 8. 움틀꿈틀 교육농장

버섯의 한살이 교육을 통해서 버섯에 대해서 알게 되고, 농장 안의 버섯을 식물도감에서 찾아 본다. 동충하초와 곤충체험을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아동 요리체험을 통해 음악, 미술, 과학, 수학 등 융합학습을 하여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306-14

전화 : 최영상(010-9852-4842), 남미숙(010-9657-2100)

## 9. 꽃피는 갈막이 마을 체험

펜션에서 숙박이 가능하다. 농사체험과 주변 개울에서 물고기 잡기, 여름에는 붕송아물들이기, 겨울에는 썰매타기 등을 통해서 농촌체험을 하고 추억을 만들면서 농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116

전화 : 김영관 (041-333-5560)





## 10. 해비치 농장

천연염색 체험을 통해서 천연염색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 전통 차 체험을 통해서 우리 차의 맛을 느끼고 이화주 체험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사랑을 배우게 된다. 민박이 가능하고 블루베리따기 등 각종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이다.

주소 : 충남 예산군 신양면 죽천리 319

전화 : 041-333-9103



## 11. 가야수랏간

우리의 궁중음식인 규아상이나 궁중떡볶이, 구기자, 약선 김치 등 체험을 통해서 궁중음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표고버섯을 수확하면서 표고버섯 한살이에 대해 배우고 직접 종균접종도 한다. 주변의 야생화나 나무에 대해서도 배우는 등 자연친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루실길20

전화 : 유근영 (041-337-3790, 010-8789-3799)



## 12. 아크로랜드 태신목장

아크로랜드 태신목장은 대자연속의 목장에서 뛰노는 소나 양의 모습을 만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이 된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목장체험(소 젓 짜기, 건초 주기, 송아지 우유 먹이기)이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자유학기 중학생들을 위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치즈 만들기 등의 체험이 있다. 입장권을 구입하면 트렉터를 타고 농장 한 바퀴 도는 것은 기본으로 포함된다.



덤으로 작은 동물원에서 동물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승마체험도 있는데 즐거운 시간이 예약된다.

10시부터 문을 열고 동절기는 5시까지 하절기는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10,000원(만19세 이상), 소인 7,000원(36개월~만19세 미만)인데 트랙터 열차타기가 포함된 요금이다.

주소 : 예산군 고덕면 상동2길 236

전화 : 041-356-3154

홈페이지 : <http://www.agroland.co.kr/>

### 13. OK목장 승마체험

OK목장은 예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말과 사람이 어우러지면서 교감하고 승마도 할 수 있다. 자유학기를 맞아 학생 승마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체험도 가능하다.

주소 : 충남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산 69-23

전화 : 041-333-3967



#### GUIDE TIP

##### 〈예산 문화관광 해설〉

예산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예산의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설을 해 줌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을 해주는데 동절기에는 10시부터 4시까지, 하절기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고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수덕사(338-8930), 총의사(339-8237), 추사고택(339-8247), 한국고건축박물관(337-5877), 대흥슬로시티(331-3727), 예산항새공원(339-8272) 등이 있다. 문화관광 해설은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관람객의 요청에 의해서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 참여하고 느껴보기

## 축제 여행

예산군을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축제를 만나볼 수 있는데 기왕이면 예산여행을 하면서 축제와 함께 해 본다면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되고 기억 속에 오래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봄에는 예당호에서 열리는 전국 낚시대회와 충의사 일원에서 열리는 윤봉길 문화축제를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황새마을에서 열리는 산나물 뜯기 대회 등 다채로운 축제가 열린다. 대흥의 옛이야기축제와 예산읍의 3국(국수, 국밥, 국화)축제 또한 흥을 돋우고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준다.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를 비롯하여 광시에서 열리는 김한중 문화제와 예산황토사과축제 등 이런 저런 축제가 많이 열리니 군청의 홈페이지나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 걸으면서 느껴보기

예산은 내포문화숲길을 중심으로 걷기 길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 예산뿐만 아니라 서산이나 당진까지 이어지니 다양하게 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문학의 향기가 배인 대술의 분례길 등 짧은 코스로부터 수암산, 덕숭산, 가야산, 금오산, 백월산, 봉수산 등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코스까지 많이 있으니 자신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서 걷는 것도 큰 즐거움을 준다. 자세한 것은 지역별 안내에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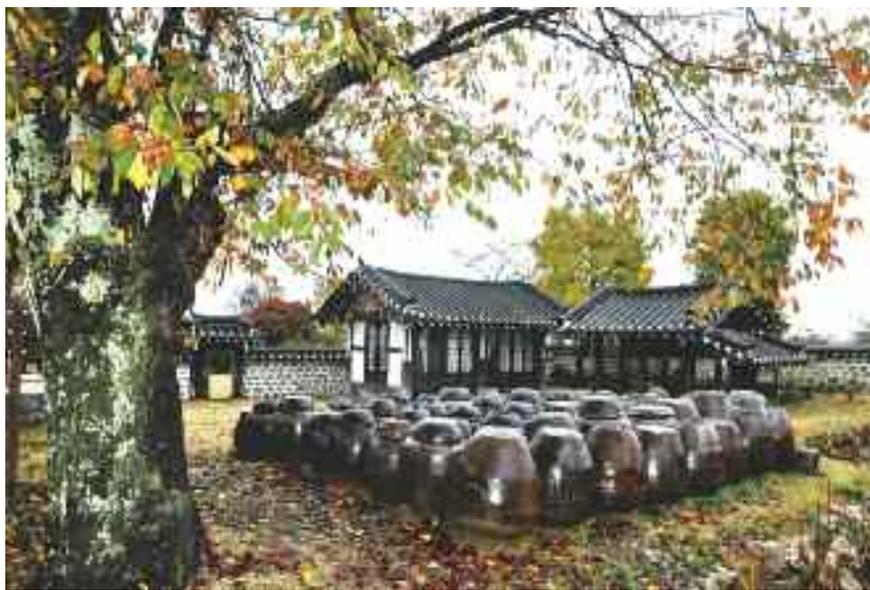
## 예산버스타어

예산의 관광명소를 버스를 타고 하루에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형 관광 상품으로 관광 도우미가 동행하여 해설을 함으로써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운영기간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1회 운영을 하는데 약 8시간 소요된다. 외래 관광객 중 버스타어 사전 예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15명 이상 예약시 운영된다. 출발지는 예산역이고 이용요금은 무료이지만 관람료 및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버스타어의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해야 하는데 매주 수요일 18시까지 마감하고 있다. 인터넷 예약 시 핸드폰 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야 한다. 때에 따라 여행 장소가 바뀔 수 있으니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주로 추사고택, 수덕사 그리고 예당호와 체험 등으로 이뤄지는데 변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예산군청 문화관광과(041-339-7323)로 문의하면 된다. 사전 단체예약은 비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문의를 통해서 협의할 수 있다.

버스타어 예약 : <http://www.yesan.go.kr/prog/bus/list.do>



**GUIDE  
TIP**

**예산 오는 방법**

예산을 돌아보기 위해서 예산에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기차를 이용할 때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05:30부터 20시 45분까지 16회 운영되고 2시간 정도 소요된다. 부산이나 대구에서 출발할 시는 천안아산역에서 아산역으로 이동해서 환승하여 예산역까지 오면 되고, 광주나 목포에서도 천안아산역까지 와서 아산역으로 이동하여 환승하여 예산역에 도착하면 된다. 버스를 타는 방법은 서울은 동서울터미널과 남부터미널 그리고 센트럴시티터미널을 이용하면 되고 시간표는 인터넷을 참조로 하면 된다. 자가용을 이용시는 서울 등 북부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 - 당진영덕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예산수덕사. C나 고덕. C를 이용하면 된다. 대전이나 부산 등 남부지방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당진영덕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예산수덕사. C나 고덕. C를 이용하면된다.

# 예산8味 식도락 여행

예산은 전통적인 지역으로 먹거리가 풍부한 고장이다. 따라서 예산8미를 찾아가는 식도락 여행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예산의 소갈비 등 예산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든 음식을 통해서 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

예산군이 지금까지 예산에서 즐겨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 5가지를 지정해서 관리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예산 8미가 되었다.

1미는 예산 소갈비, 2미는 예당 붕어찜, 3미는 예당 민물어죽, 4미는 삽다리 곱창, 5미는 수덕사 산채정식, 6미는 예산 장터국밥, 7미는 예산 국수 그리고 8미는 광시 한우로 정해졌다. 예산에서 삼국축제를 할 만큼 장터국밥과 예산국수가 널리 알려졌고 최근에 백종원 국밥거리까지 생겨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예산 국수는 외지에서 일부러 택배로 시키거나 일부러 사러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다. 광시한우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먹으러 올 정도로 유명하니 예산까지 와서 안 먹고 가면 섭섭한 일이다.

### 1. 소갈비

자연이 아름다운 청정지역 예산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엄선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요리한 소갈비는 부드럽고 맛이 좋아 예산 사람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한우갈비를 먹기 위해서 예산에 오는데 예산읍의 소복갈비나 삼우갈비 등이 유명하다.



### 2. 예당붕어찜

예당호에서 잡은 붕어를 깨끗하게 손질하여 무청 등을 넣고 갖은 양념을 바닥에 깔고 요리한 자연산 붕어찜은 대흥식당 등 예당호 주변의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는데 커다란 붕어로 요리를 해서 밥 한 그릇 딱딱 해치울 수 있다.



### 3. 예당 민물어죽

예당호에서 잡히는 민물고기를 이용해서 어죽을 만드는데 삶아서 살만 골라내 고추장이나 된장을 풀어 끓여 쌀과 수제비나 국수를 넣으면서 각종 양념을 첨가하여 김치와 함께 먹으면 별미인데 예당호 주변의 음식점에서는 거의 먹을 수 있다.



### 4. 삽다리곱창

언젠가부터 삽다리곱창이라는 단어를 예산뿐만 아니라 외지를 여행할 때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널리 알려졌다는 말이다. 연탄불을 이용하여 구워먹는 맛은 꼬들꼬들, 쫄깃쫄깃한 맛과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삽교와 오가에 있는 곱창 전문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다.



## 5. 수덕사 산채정식

덕숭산에서 채취되는 자연산 산나물을 원료로 하여 산나물이나 더덕의 특유한 맛과 향기로 입맛을 돋우어 주는 건강식인데 수덕사 입구의 상가에 있는 음식점이나 수덕고개에 있는 음식점에서 즐길 수 있다.



## 6. 예산 장터국밥

예전부터 장날 전통시장에 오게 되면 불일을 본 다음에 가까운 국밥집에서 장터국밥을 먹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장날이면 불일이 없어도 삼삼오오 함께 나와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잘 아는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으면 막걸리를 나누었다. 이곳은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되었고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장소이기도 했다.



## 7 예산 국수

50여년의 전통이 있는 예산 국수는 쫄깃하여 식감이 좋아 예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있어 지금은 택배를 통해서 주문을 받고 부쳐주거나 일부러 예산국수를 사러 예산까지 오기도 할 정도다. 예산국수를 말리기 위하여 널어놓은 모습은 보기만 해도 좋다.



## 8 광시 한우

광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한우 타운이 되고 있다. 예산에서 광시로 가다 보면 광시 입구에 한우공원이 있을 정도이다. 광시에 들어서면 정육

점과 음식점이 많이 눈에 들어온다. 질 좋은 한우고기를 이용해서 구이를 하여 먹게 되니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 광시는 예산에서 뿐만 아니라 일부러 외지에서 까지 먹으러 온다. 광시에는 고기를 사가지고 가면 상차림비용을 받고 한우구이를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으니 광시 한우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사실 예산8味에 들어가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다. 예당호 주변에 위치한 응봉이나 대흥에서의 새우매운탕과 메기 매운탕은 입맛을 잡아주는데 오리주물럭 구이 또한 맛있는 음식이다, 광시에서는 소고기 구이와 함께 갈비탕을 먹으면 입안이 즐거워지고, 덕산의 5겹살과 밴댕이찌게 그리고 선지해장국은 서민의 맛을 찾아주고 삼교의 보리밥과 칼국수는 우리 민족의 맛게 해준다. 또한 오가의 진흙오리구이와 장어구이는 구이의 참 맛을 알게 해주고 고덕갈비는 널리 알려져 기다려서 먹어야 한다. 신암의 주꾸미 볶음은 입맛을 찾아주고 예산읍 돈가스 전문집도 문전성시를 이룬다. 물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어디를 가나 맛있는 음식이 많은 예산이니 발품을 팔아서라도 찾아가 볼 일이다.

# 구석구석 돌아보기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을 돌아보자. 인접한 지역을 묶어 서북부 지역(덕산, 봉산, 고덕), 중부 지역(오가, 삼교, 신암), 남부 지역(응봉, 대흥, 광시), 남동부 지역(예산, 신양, 대슬) 이렇게 예산을 네 개의 권역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편의상 구역을 나눠서 안내하지만 사실 예산은 하나로 연결하여 연속성 있게 여행을 할 수 있다. ‘예산여행’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수덕사가 있는 서북부지역이다. 예산 여행의 감초처럼 수덕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고건축박물관, 윤봉길 의사의 생가와 기념관이 널리 알려진 곳이라면 최근에 조성된 메타세콰이어길은 이곳 여행의 별책부록처럼 느껴지는 즐거움이 있다. 현종대왕 태실과 옥병계 남연군묘와 보덕사까지 어디 하나 빼 놓을 수 없다. 덕산면에 많은 문화재가 있다면 봉산면에는 보물로 지정된 화전리석조사면불상을 중심으로 효교리 매향비와 정대영 가옥 등을 돌아보고, 고덕면에는 한내장과 석곡리 석탑과 미륵불 구만포구 기념공원까지 만나보며 최근 예산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의 목가적인 풍경도 빼 놓을 수 없다.

중부지역은 오가면, 삼교면, 신암면인데 오가는 사과와 주산지로 봄에는 과수원의 사과꽃이 볼 만하고 역탑리 오가 우체국 옆 산에서 백로가 장관이다. 또한 황충길 명장이 운영하는 전통예산옹기의 박물관에서 옹기를 체험하고 오가의 아람농장 등 농장에서 사과 관련 체험이 가능하다. 삼교면에는 수암산과 보물로 정해진 예산삼교 석보보살입상과 이색영당이 있다. 신암은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 추사고택과 기념관 그리고 화암사와 백송을 찾아보자. 여사울성지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부지역은 예당호와 만나는 곳이 중심이 된다. 응봉면의 예당호와 조각공원 그리고 국민여가 캠핑장은 예당호를 찾는 사람들은 꼭 방문하게 된다. 슬로시티 대흥은 동헌과 의좋은 형제비, 느린고부랑길, 봉수산 휴양림과 수목원 그리고 임존성 등 어느 한 곳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광시면은 대련사와 광시한우타운, 한국문인인장박물관이 있고, 황새공원에서는 우리나라에 몇 마치 남아 있지 않은 천연기념물 황새를 볼 수 있다. 가까이에 있는 쌍지암은 사철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절집이다.

남동부지역은 예산읍의 향천사와 탈해사, 예산 지명이 탄생한 예산산성과 예산장, 근대문화유산으로 예산성당과 예산호서은행 등이 있고, 대술면에는 분례숲길과 최근 문을 연 한국토종씨앗박물관, 이남규고택과 기념관, 분례숲길 있다. 신양면에는 조익의 묘와 도산서원, 일산이수정과 비림박물관이 있다.

어느 지역을 먼저 볼 것인지는 자신의 취향과 목적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지만 예산 10경과 예산8미를 중심으로 여행한다면 볼거리와 먹거리가 충족되리라 생각된다.

# 예산 여행의 감초 서북부 지역

**덕산면** 수덕사 선미술관/수덕여관/수덕사  
덕송산 오르는 길/한국고건축박물관  
덕산 메타세콰이어길  
윤봉길 의사 생가와 기념관/충의사  
보부상유물관/덕산 광덕사/덕산향교  
현종대왕 태실/옥병계와 옥계저수지  
남연군 묘/상가리 미륵불/보덕사

**봉산면** 화전리석조사면불상/효교리 매항비  
정대영 가옥/이의배 신도비

**고덕면** 한내장/석곡리석탑과 석곡리미륵불  
정동호 가옥/구만포구 기념공원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 예산 여행의 감초 서북부 지역

예산 여행의 중심지에 예산의 서북부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덕산, 봉산, 고덕을 포함하고 있다. 덕산은 수덕사와 충의사, 건축박물관 등 돌아볼 수 있는 여행지가 많이 있고 덕산온천이 있어 힐링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수덕사를 거쳐서 덕숭산이나 가야산 산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산채정식 등 먹거리도 풍부하고 수덕사 대웅전 등 문화재도 많은 지역이니 여행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곳이다. 덕산은 자동차로 고덕I.C에서 5분 거리에 있고 예산수덕사I.C에서 20분 거리에 있으니 접근성도 좋다. 덕산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충절이 숨 쉬는 곳으로 최근 충남도청 등 도 단위 공공기관이 인근 지역에 들어와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여행을 하는 의도에 따라서 여행지가 결정되겠지만 보통 수덕사에서 여행을 시작하면 무리가 없다. 입구의 선미술관과 수덕여관을 돌아본 후에 수덕사를 관람하고, 시간이 있다면 수덕사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덕숭산 트레킹을 해도 좋다. 돌계단이 좀 부담스럽기는 해도 천천히 걸으면서 중간에 있는 관음보살입상과 만공탑을 돌아본 후에 정상에 올라서 심호흡을 하고 내려다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다.

수덕사 입구에는 많은 식당이 있는데 산채정식으로 식사를 하고 이곳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한국 고건축 박물관에서 우리 고건축의 모형을 돌아본 후에 다시 덕산 소재지로 돌아오는 것이 좋다.

덕산에서 가야산 쪽으로 가다가 옥계저수지를 지나다 보면 옥계 저수지 옆의 작은 산에 현종대왕 태실이 있다. 태실비가 반쪽은 발견된 상태인데 이곳을 먼저 가 본 후에 옥계저수지로 향하면 된다. 겨울에는 철새들이 찾아와 장관을 이루니 가야산에 등산을 할 예정이라면 잠시 쉬었다가 가도 좋다. 마을 입구의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시킨 후 마을 쪽으로 가면 된다. 가야산의 옥양봉이나 석문봉 등 등산을 할 예정이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오르막길이면서 돌이

많이 만만한 곳이 아니지만 철쭉이 피어나는 5월에 오르면 아름다운 광경을 만날 수 있다.

가야산 가는 중간에 남연군묘가 있는데 묘에서 풍수지리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바라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된다.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상가리 미륵불이 있는데 서산으로 향하는 내포문화숲길 옆에 있어 찾기도 쉽다.

산행을 했거나 관광지를 돌아본 후에 덕산온천에서 온천욕을 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도 참 좋다. 물론 온천이 있는 호텔이나 다른 숙박업소에 머문다면 금상첨화이다. 덕산에 많은 호텔이나 모텔 등이 있어 숙소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덕산에는 애국지사 윤봉길 사당인 충의사와 그가 태어나서 자란 생가가 있는 도중도가 있고 윤봉길 의사 기념관과 보부상전시관도 있으니 함께 돌아보면서 매헌의 나라사랑 정신과 도중도의 넉넉한 풍경 그리고 보부상의 역사의 활동상을 알아보자. 잠깐 시간이 난다면 덕산온천 옆에 몇 년 전에 조성된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으면서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가지면 더 행복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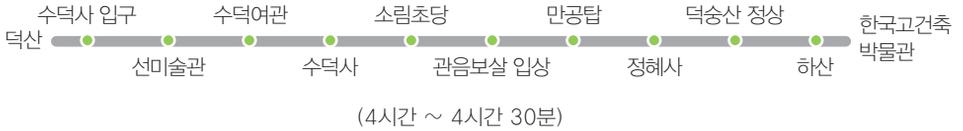
덕산을 돌아본 다음에는 그리 멀지 않은 봉산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덕산에서 자동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보물 제794호로 지정된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 불상을 찾아보면서 잠시 산길을 걸어보고, 정대영 가옥을 찾아 우리의 옛 건축물의 구조를 살펴볼 수도 있다.

고덕은 한내장터를 찾아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석골리 마을 회관 앞에 있는 석곡리 석탑과 미륵불을 찾아보자. 정동호 가옥에서 초가집을 살펴본 후에 구만포구 기념공원에서 옛날 배가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 01 덕산면



## 수덕사 지구



예산여행을 하면서 예산 제일의 관광지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한 마디로 답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예산10경에 포함되어 있는 수덕사라고 답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수덕사 지역에는 수덕사뿐만 아니라 선미술관과 수덕여관까지 함께 돌아보는 것이 좋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선미술관이 있다. 수덕사를 돌아본 후에 수덕사 입구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을 돌아보는 것이 여행 일정에 도움이 된다. 덕산여행은 수덕사 지구, 덕산온천 지구 그리고 가야산 지구로 나뉘서 여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먼저 수덕사 지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 수덕사 선미술관

수덕사 일주문 좌측에는 선미술관이 있다. 선미술관은 불교계 최초의 전문 미술관으로 2010년 7월26일에 개관되었다. 선 미술관은 국보 49호인 수덕사 대웅전을 형상화한 '맛배집' 양식의 지붕으로 지어졌고 이곳에는 고승들의 선묵, 선사화, 고암이응로 화백과 같은 근·현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다수 소장하여 전시하고 있다. 선 미술관의 면적은 410㎡ 규모로 2개의 전시실과 수장고,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는데 가끔 기획전이 열리니 꼭 돌아보는 것이 좋다.



수덕사 선미술관



수덕여관 전경

## 이응노 화백의 혼이 숨 쉬는 수덕여관

수덕사에 오르기 전에 일주문을 지나 잠시 위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수덕여관으로 건너는 작은 다리가 있다. 작은 계곡에 설치된 다리를 건너면 바로 수덕여관이다. 지금은 정비되어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방치되어 흉물과 같았다.

충남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되어 있는 수덕여관에 나혜석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청년화가 이응노는 그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나혜석이 이곳을 떠나자 1944년 여관을 구입하여 그 부인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응노가 이곳에서 머물 때는 이미 이혼하고 재혼하여 프랑스에서 새 삶을 꾸린 뒤였다. 그의 부인인 박귀희는 홀로 수덕여관을 꾸리며 지내다가 남편이 동백림 사건으로 갇히자 옥바라지를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이응노 화백이 이곳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였다. 그는 이곳에 머물면서 넓은 바위 두 개에 문자추상을 남긴 후 파리로 떠나 버렸고 후에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응노 화백이 새긴 문자추상

이응노 화백이 프랑스로 건너 간 뒤에는 부인인 박귀희 여사가 식당과 여관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박 여사가 사망한 후 수 년 간 방치되다 1996년 도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수덕사가 여관을 매입하면서 옛 모습을 되찾게 되어 다행이다.

수덕여관은 1,054㎡ 부지에 건평 182㎡ 크기의 ‘ㄷ’자형 초가로 2007년 10월 부터 군비 등 4억 원을 들여 7개의 방, 장지문, 툇마루, 부엌, 구들을 깔아놓은 온돌 등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해놓았다. 예산군은 당초 초가지붕만 개축하려 했으나 정비과정에서 서까래, 연목 등 건물 대부분의 부재가 썩거나 훼손이 심해 전면 해체 복원했다고 한다. ‘수덕여관’이란 옥호는 고암의 친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과거의 수덕여관은 관광객들이 숙박을 하고 산채정식을 파는 곳이었지만 복원을 통해 객실은 고암의 혼이 살아있는 곳으로 변신하였다.

수덕여관으로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가면 문자추상이 있는 넓은 바위 두 개가 있는데, 이곳을 돌아보지 않고 가면 헛걸음한 것과 같다.

## 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을 품은 수덕사

예산10경에 포함된 수덕사를 가기 위해서 수덕여관에서 나와서 앞쪽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좌측에 환희대로 가는 길이 있다. 환희대는 비구니들이 기거하며 수도하는 암자인데 1926년에 창건되었고 김일엽 스님이 주석하다가 열반한 곳이다. 이곳에는 원통보전과 보광당, 난야 등의 건물이 있다. 사천왕문을 지나 왼쪽에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181호로 지정된 칠층석탑이 있는데 1930년 당시 수덕사 주지이신 만공선사께서 대웅전 앞에 건립한 화강 석재 7층석탑으로 지금은 황하정루 옆으로 옮겨져 관리하고 있다. 황하정루에는 성보박물관인 근역성보관이 있어 수덕사와 머물렀던 스님들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대웅전 쪽으로 올라가면 금강보탑이 있고 다시 계단을 올라가면 수덕사 대웅전의 모습이 보인다. 마당이 넓고 왼쪽에 범종각이 오른쪽에는 범고각이 있고 오른쪽으로 중무소가 있다. 마당의 중앙에서 바라보면 가운데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3호로 지정된 수덕사 삼층석탑이 있다. 이 탑의 형태는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리고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졌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삼층석탑 바로 뒤에 국보 제49호로 지정된 수덕사 대웅전이 있다. 정면 3칸이고 측면 4칸으로 이뤄진 단층 맞배지붕 주심포집이다. 수덕사 대웅전은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물 중 특이하게 백제적 곡선을 보이는 목조건축물로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목조건물 중 최고(最古)의 건물이다. 수덕사 대웅전 건물의 측면을 보면 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둥근 기둥과 각이 진 들보를 노출시키면서 면 분할을 절묘하게 장식하고 있다

대웅전 왼쪽에 관음전이 있고 관음전 아래에는 관음바위가 있다. 이 관음바위는 버선꽃과 관음보살에 관한 전설을 품고 있다.

백제 시대 때 창건된 수덕사는 통일신라시대를 지나며 세월의 무게를 못 견디고 낡게 되었다. 중건이 필요했으나 당시의 스님들에겐 그만한 재력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묘령의 여인이 중건을 위한 공양주를 하겠노라 하며 찾아와 절



수덕사 삼층석탑과 대웅전

에 머무르게 되었다. 불심이 깊고 미모도 빼어난 여인이 수덕각시라는 이름을 얻어 절에 머무니, 그녀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깊은 산중도 마다 앓고 몰려들었다. 급기야 신라의 대부호이자 재상의 아들인 정혜(定慧)는 수덕각시에게 반해 청혼을 하기에 이른다. 수덕각시는 절의 중건이 완성되면 정혜의 청혼을 받아들일겠다고 답한다. 사랑에 빠진 정혜는 가산을 털어 10년 걸릴 불사를 3년 만에 끝낸다. 낙성식을 마치고 정혜가 같이 떠날 것을 독촉하자 수덕각시는 “구정물 묻은 옷을 갈아입을 말미를 주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옆방으로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다. 정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수덕각시는 다른 방으로 몸을 피하려고 했다. 당황한 정혜가 여인을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바위가 갈라지며 여인이 홀연히 사라졌다. 여인과 함께 여인이 기거하던 방도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은버선 한 짝과 크게 틈이 벌어진 바위만 남았는데 그 바위가 바로 지금의 관음바위이다.

수덕각시는 바로 관음보살이었으며 이 때부터 절 이름을 수덕사라고 부르게



수덕사 버선꽃



만공탑

되었다. 바위가 갈라진 사이에서는 봄이면 기이하게 버선 모양의 꽃이 피기 시작했으니 이 꽃이 바로 버선꽃이다. 지금도 봄이면 갈라진 바위틈으로 아름다운 노란 꽃이 한아름 피어난다. 수덕각시를 사랑했던 ‘정혜’는 깨달음을 얻고 수덕사 뒷산으로 올라가 정혜사를 지었다고 한다.

관세음보살이 여인의 몸으로 내려와 절을 크게 중창하고 사라진 전설이 얽혀 있는 관음바위는 민초들의 기도처가 되었다. 이 바위에서 기도를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대웅전 왼쪽으로 선수암과 견성암이 있다.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가 한창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수덕사는 더 유명해진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은 수덕사엔 여승만 기거하는 비구니 절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대부분 비구승이 더 많다. 견성암에는 여승이 거처하는데 한적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절은 보통 목재를 이용해서 많이 짓는데 견성암은 다른 절과 건축양식이 다르게 석조 법당이어서 생소하기도 하면서 신비롭기도 하다. 건물 전체는 2층 구조이고 법당도 2층에 있다.

## 덕숭산 오르는 길

수덕사만 돌아보아도 되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덕숭산을 오르면서 다른 절이나 문화재를 돌아보는 것도 좋다. 수덕사에서 덕숭산 정상에 향해 1,080 돌계단을 오르다 보면 사면석불을 만나고 오른쪽 작은 계곡을 지나 소림초당을 볼

수 있다. 숨을 고르고 오르다 보면 만공스님이 1924년에 조성했다는 거대한 크기의 관음보살입상이 있다. 옆에 샘이 있으니 잠시 쉬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위로 오르면 2011년 8월 24일 등록문화재 제473호로 지정된 만공탑이 있는데 만공스님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1947년에 세운 석탑으로 전통적 승탑 형식을 탈피한 근대적 기념탑으로 구형의 둥근 돌이 올려져 있는 것이 특이하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 석문이 있고 정혜사 출입문이 있다. 하안거나 동안거가 끝난 후에 며칠 문이 열린다고 하니 사실 이곳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정혜사는 지명법사가 창건하였고 많은 고승들이 수도하던 곳으로 만공선사가 중수한 이후에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으며 현존하는 당우로는 능인선원을 비롯하여 관음전, 산신각과 불유각이 있다. 바위 위에 작은 석탑 두 개가 있는데 쌍탑 혹은 남매탑이라고 부른다.

정혜사에서 오른쪽 산길로 십분 넘게 오르면 덕숭산 정상이다. 정혜사를 지나면 정상까지 비교적 평탄한 길로 이어진다. 수덕사에서 40분에서 한 시간이면 오를 수 있다. 오르는 길에 돌계단이 많으니 반드시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다. 수덕사만 돌아보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정상까지 오르고 다시 내려오는 데는 2시간 30분 이상이 걸린다.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전화번호 : 041-330-7700

홈페이지 : <http://www.sudeoksa.com/>

**GUIDE TIP**

수덕사에서는 연중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수덕사에 문의하면 된다. 수덕사에서 정혜사까지 이르는 1,080계단의 돌계단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산화나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정혜사를 방문하고 싶다면 동안거나 하안거 동안에는 관람할 수 없으니 미리 문의하고 오르는 것이 좋다. 덕숭산 오르는 길에 관음보살입상 옆에 샘이 있어 물을 마실 수 있다.

수덕사에 가기 전에 수덕고개 주변부터 수덕사 주차장을 지나 수덕사로 향하는 길목까지 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산채비빔밥이나 더덕정식이 인기이다. 거의 모든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의 형태가 비슷하니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도 된다.

## 한국고건축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건축물을 보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건물을 지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지역이나 기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도 강원도의 너와집이나 충청도의 초가집 등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맞게 반영되어져 왔다. 우리의 건축물은 어디에 내놓아도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고건축물을 작은 크기로 제작하여서 박물관 안에 전시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한국고건축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이곳 한국고건축박물관이다.

사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관광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한국고건축박물관은 1998년 10월 개관하였는데 지금은 우리의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2008년 2월에 송례문이 불에 타서 전소되었을 때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고건축박물관의 미니 송례문이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에서 몇 달 동안 머물면서 복원하는 과정에 일조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고건축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고건축박물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기능보유자 인 전홍수씨가 관장이다. 목수는 궁궐이나 사찰 등 건축물을 짓는 대목장과 가구나 공예품을 만드는 소목장으로 나뉘진다고 한다. 대목장은 건축물의 설계에서 완성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여 짓는 책임자이니만큼 건축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야 장인들을 다스려야 하는 만큼 알아야 할 지식도 많고 솜씨도 좋아야 하니 대목장 한 사람이 배출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이유가 된다.

전홍수 관장은 예산 출신으로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18세 때 목수인 부친 밑에서 심부름을 하였다. 그 후에 수덕사 도편수로 있던 고(故) 김중희 선생 문하에 들어가 체계적으로 일을 배웠고 손재주가 좋고 타고난 성실함으로 30대 젊은 나이에 전국의 주요 문화재와 사찰 공사를 하였고 대목장 기능보유자까지 되었다.



한국고건축박물관



한국고건축박물관의 승례문 모형

그는 우리나라 건축 기능인들의 기능을 높이고 고건축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교육 터전으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건축박물관을 설립하였고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다.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이 목재를 사용하여 소형으로 만들어져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박물관 안에 전시된 전시물로는 강릉객사문, 송광사 국사전, 부석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서울 승례문, 광릉사 약사전, 중화전 등의 축소 모형이 있는데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머릿속으로 실제 건물과 비교해 보면 색다른 재미가 있다.

이곳에는 건축물 외에도 문, 기와 등과 목수 일을 할 때 사용되는 연장들이 전시되어 있어 기와나 각종 연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학예사가 있어 단체로 갈 경우에 해설을 통해서 우리의 고건축과 고건축 박물관을 더 잘 알 수 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흥덕서로 543 한국고건축박물관

전화 : 041-337-5877

홈페이지 : <http://www.ktam.or.kr/>

**GUIDE  
TIP**

한국고건축박물관 근처에는 음식점이 없는데 수덕사를 나와 갈산 쪽으로 가다가 외나사거리가 근처에 음식점이 있으니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 된다.

## 덕산온천 지구



(4시간 ~ 4시간 30분)

요즘 힐링(Healing)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치유’를 뜻하는 영어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신이나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인가 즐겁고 감동적인 일로 인하여 좋은 방향으로 바뀌거나 신선한 자극을 받아 재충전되어 편안함을 느끼게 될 때에 ‘힐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심신이 피곤할 때 지친 몸과 마음을 찾아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온천이고, 온천 하면 예부터 유명한 덕산온천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요즘은 사계절 관계없이 온천을 찾아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쉼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예산은 바로 ‘힐링의 일 번지 덕산’이 있다. 덕산에는 원탕이라고 말하는 덕산온천관광호텔이 있는데 이울곡 선생의 저서 <충보>에 기록된 이곳은 온천의 유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서기 1500년경 덕산의 들판 즉 지금의 덕산온천 관광지구에 아름다운 학 한 마리가 서 있는 모습이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이 학 한 마리는 온종일 그 자리에서 날지 않고 서 있기만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 보니 날개와 다리에 상처를 입고 있었다. 학이 논의 물을 열심히 상처에 바르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학의 몸에 난 상처가 깨끗이 나아서 날아갔다고 한다. 학이 날아간 뒤에 그 곳에 가보니 따뜻하고 미끄러운 물이 솟아나 그 지역 주민들이 신기하게 여겨 상처에 발라보니 상처가 나았다. 이에 사람들이 이곳을 가리켜 온천골이라 하였고 병을 치료해 주는 이 물을 약수라 불렀다고 한다.

그 후 조선 말엽 순조 때부터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피부병 등 난치병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곳에 초막을 짓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목욕을 하면서 몸을 치료하였다고 한다. 그 후에 1918년경 이곳에 목욕탕을 짓고 덕산온천이라 부



덕산온천개척비



덕산온천 족욕체험장

르게 되었다. 온천수의 개발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표석(충남 문화재자료 190호 기념비)은 이한경이 소유 관리하고 있다. 덕산온천수는 섭씨 45도 이상의 천연 중탄산나트륨 온천수로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하여 피로회복과 관절염, 신경통에 효능이 있는 보양 온천수로 알려져 있다. 인체에 유익한 각종 광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알칼리성 온천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질의 온천수로 명성이 높다.

2014년과 2016년에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예산군 덕산면 소재 덕산온천에서 개최되어 그 명성을 더욱 널리 알렸다. 2017년 새로 예산10경에 포함하여 더욱 풍성해졌다.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누워 있기만 해도 몸에 가득하던 긴장이 이완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새로운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만들어 준다. 이곳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워터파크의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연인들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또한 세미나나 워크숍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주변과 연계한 여행지로서도 손색이 없다.

덕산에는 덕산관광호텔, 가야관광호텔, 덕산사이판대온천, 덕산온천관광타운과 인근 삼교의 수암산 자락에 있는 세심천호텔 등 온천 호텔이 있어 숙박도 하고 온천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워터파크인 리스스파케슬이 있어 가족과 즐기기도 부족함이 없고, 일반 숙박업소도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으니 어디서든 온천욕을 하면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예산군 종합관광안내소 앞에는 족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 피로에 지친 발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어 보자.



덕산 메타세콰이어길

## 덕산 메타세콰이어길

담양에 처음 갔을 때 멋진 메타세콰이어길을 만나면서 탄성을 지르고 나주에서 호젓하게 만난 메타세콰이어길에서 아름다움과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예산에도 이런 길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예산의 덕산에 메타세콰이어길이 생겨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최종 승인된 후 그동안 침체에 놓여 있던 온천관광지개발이 기지개를 펴면서 2013년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시도해 온천관광지 안에 명상치유 숲길로 메타세콰이어길 450m, 온천둘레길 1100m, 황토체험숲길 650m를 조성하였다. 메타세콰이어길은 덕산온천관광호텔 정면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조성되었는데 덕산에서 예산으로 가는 길 옆이다.

메타세콰이어길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공간이지만 여행을 온 사람들도 덕산에서 하루 머물면 시간을 내어 걸으면서 힐링의 시간을 경험한다. 한 바퀴 돌아본 후에 온천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고 힐링의 시간이 된다.

## 윤봉길 의사가 태어난 도중도의 생가와 기념관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도로를 건너 담장을 끼고 오 분 정도 지나 도중도교를 지나면 도중도가 있다. 한반도 안에 섬이 있다고 하여 도중도라 이름이 붙여진 이곳에는 윤봉길 의사의 생가가 있다. 생가는 수암산 끝자락이 평지로 내려앉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덕숭산과 용봉산에서 발원한 삼교천의 상류지류인 옥계천이 흘러오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며 작은 섬인 도중도(島中島)를 만들고 물줄기가 합쳐져 삼교천으로 흘러가는 형태인데 풍수가들이 큰 인물이 날 명당이라고 여겼던 곳이다.

윤 의사께서 태어나 저한당으로 옮기기까지 살았던 생가인 ‘빛이 나타나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광현당(光顯堂)은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974년 중수하였다. 성장한 집은 ‘한국을 건진 사람의 집’이란 뜻의 저한당(沮韓堂)인데 윤봉길 의사가 4세부터 1930년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학문을 수양하고 민족운동을 주도하던 독립운동의 산실로 윤 의사의 유족이 1972년까지 머물렀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윤 의사가 태어난 광현당, 윤 의사가 자란 저한당, 윤 의사가 아학을 가르치던 부흥원



충의사



윤봉길 의사 기념관

데 역시 1974년에 중수하였다.

초가지붕으로 조성된 광현당과 저한당은 매년 한 번씩 현 지붕을 털고 새 지붕을 얹는 이영 잇기 작업을 하는데 이 광경도 볼 만하다. 도중도에는 부흥원이 있는데 윤 의사가 이곳에서 야학을 가르쳤다. 묘표사건으로 자극을 받아 문맹 퇴치의 일환으로 협소한 저한당의 사랑방에서 운영해오던 야학당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넓은 공간의 야학당을 건립하여 체계적인 야학과 농촌부흥운동 등 다발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건립하였고 망명과 의거를 결심한 곳도 이곳이었다. 지금 도중도는 공원의 형태로 조성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어 꽃이 피어나면 더 가깝게 다가오고 벚꽃이나 목련꽃 등 각종 꽃들이 피어나는 봄은 더 아름다운 곳으로 아이들의 소풍 장소가 되기도 한다.

충의사 주차장에서 왼쪽으로 가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는데 아담한 단층 건물과 전통의 형식을 빌어서 지었다. 기념관에는 윤봉길 의사의 일생을 연대별로 그래프를 그려 설명하고 있다. 윤봉길 의사의 삶이 짧아서인지 기념관에 전시된 유물과 유품이 많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의 애국심을 엿볼 수 있다.

윤봉길 의사의 정신이 담긴 동영상이 누구나 가까이 가면 재생되어 나온다. 윤봉길 의사의 유서 중 ‘피 끓는 청년 제군에게’란 제목인데, 높은 기상을 느끼게 하니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진취적인 기상을 고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전시된 유품들이 많지 않지만 그중 회중시계를 눈여겨

볼 만하다. 백범일지에 백범 김구 선생이 청년 윤봉길이 사지로 떠날 때 의사가 “선생님 시계를 바꿔 차시죠. 선생님의 시계는 2전짜리 오래 됐으며, 저의 시계는 6전짜리이고 새것입니다. 저는 이제 1시간이면 더 이상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바꿔 찬 것이라고 한다.

##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이 깃든 총의사

매헌 윤봉길 의사는 1908년 6월 21일 덕산면 시랑리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본명은 우의이고 봉길은 별명, 호는 매헌이다. 덕산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 후 3·1독립운동과 함께 학교를 자퇴하였다. 그 후 서당에서 공부하던 중 산책길에 건너편 공동묘지에서 여러 묘표를 뽑아 와서 선친의 무덤을 찾아달라는 한 무지한 청년을 만나 청년의 무식이 나라까지 잃게 한 적(敵)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19세에 농촌계몽운동에 뛰어들었다.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학동들을 가르치다가 야학당을 개설하여 문맹 퇴치와 민족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1928년에는 부흥원을 세워 구체적인 농촌개혁을 실시하였고 이듬해에는 월진회를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윤봉길 의사는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고, 1930년 3월 6일에 ‘장부출가 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라는 글을 남긴 채 정든 가족을 떠나서 중국으로 망명의 길에 올랐다. 그는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 백범 선생이 주도하던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여 ‘조국 독립의 제단에 몸을 던지게 되었다. 백범 선생과 윤 의사는 의열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일왕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 행사를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거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날을 거사일로 잡았다.

1932년 4월 29일 홍구공원에는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고 단상 위에는 시라카와 대장과 해군 총사령관인 노무라 중장 등 침략의 원흉들이 도열해 있었다. 11시 40분경 축하식 중 일본 국가 연주가 거의 끝날 무렵에 윤 의사는 수통형 폭탄의 덮개를 벗겨 안전핀을 빼고 앞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가 단상 위로 폭탄을 던졌다. 폭탄은 그대로 노무라와 시라카와의 면전에서 폭발하였고 시라카와 대장과 카와바다 거류민 단장은 사망하고 노무라 중장은 실명하는 등 많은 사람들

이 부상을 당했다.

윤봉길 의사의 쾌거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중국의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일개 조선 청년이 해냈다.’고 감격하였고 이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성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 의사는 그해 5월 25일 상해 파견 일본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32년 12월 19일 25세의 나이로 가나자와 육군형무소에서 십자가 형틀에 매어 총살당했다.

충의사 주차장에서 오른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예산10경에 포함된 충의사가 있는데 이곳은 매헌 윤봉길의 사당이다. 충의사는 1968년 창건하였고 1972년 사적 제229호로 지정 받았다. 1978년 충의문, 홍문 등을 세우고 충의사 건물을 중건하였다. 1984년에 충의관과 사적비를, 2000년에는 윤봉길 의사 어록탑을, 2001년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년 4월 27~29일에는 윤봉길 의사의 애국심과 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헌문화제를 개최하여 행사를 치루고 있다. 충의사에서 왼쪽으로 가면 작은 연못이 있고 연못 옆 산길을 따라 가면 소나무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는 윤봉길의 부인인 배용순 여사의 소박한 묘가 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

전화번호 : 041-339-8233

## 보부상 유물관에서 만나는 보부상의 애환

충의사 주차장에서 윤봉길 의사 기념관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정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도착하기 바로 전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보부상 유물관이다. 이곳에 들어서서 보부상에 관한 내용도 함께 돌아보면 좋다. 상무사는 보부상들을 관리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이곳은 예덕상무사(商務社)에 속했는데 예산과 덕산을 중심으로 당진과 면천 지역까지 관할하였다. 이곳에서는 이 지역의 보부상의 조직과 기능을 알 수 있는 유품들을 전시하여 보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1976년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30호로 지정되어 상무사와 관



보부상 유품전시관

련된 도장, 인장, 상단 깃발, 행정기관 허가 등에 관한 문서인 완문, 청사초롱, 보부상 조직 규약집인 절목, 공문이 등이 전시되고 있다. 그리고 실내에 조선시대 장터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보파리장수와 짚신장수, 옛

장수, 옹기장수의 모습도 전시되어 있어 정겨움을 느끼게 해 주고 그 당시의 보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덕상무사는 조선시대 주요한 장터이고 보부상들의 활동 무대였던 예산과 덕산 지방을 관할하던 곳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조직되어 조선시대 예산, 덕산 지방의 시장운영에 큰 몫을 담당하였으며, 조선말에는 예산과 덕산 지방 시장에서 상품의 중개와 시장세의 징수 등을 맡고 정치에도 관여하였다. 일제강점기 보부상 말살 정책에 의해 전국의 보부상단이 소멸되었으나, 충청남도의 부여와 한산 중심의 충청우도 저산 팔구 보부상단과 예산과 덕산을 중심으로 하는 예덕상무사는 남아 명맥을 유지하였다. 보부상은 전통 사회에서 농업생산자, 가내수공업자, 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사이의 물물교환을 매개하던 행상으로, 보상(裨商)과 부상(負商)을 함께 부르는 이름이다. 보상은 사치품 등 잡화를, 부상은 일용품 등 가내수공업품을 취급하였는데, 보상은 물건을 보따리에 싸서 들고 다녔으므로 봇짐장수, 부상은 지게에 짊어지고 다녀 등짐장수라고도 하였다.

이곳의 보부상 유품은 조선시대 예산 지방의 시장 운영에 큰 몫을 맡아왔던 예덕상무사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유품 28점이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유품 내용은 도장 6개, 도장궤 1개, 유건 3개, 을람상자 보 1장, 청사초롱 1쌍, 공문 15권이 있다.



덕산 광덕사 대웅전

## 덕산 광덕사

광덕사 하면 흔히 천안 광덕산에 있는 절집을 생각하게 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광덕사가 덕산에 있다. 리솜스파케슬에서 옥계저수지 쪽으로 가다 보면, 건물은 오래되지 않고 고풍스럽지도 않은 현대식으로 지어졌지만 주변을 산책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은 광덕사가 있다. 가을에는 구절초가 아름답게 피어나고 주변에 숲이 있어 더 좋다. 덕산온천에서 잠시 시간이 남을 때 돌아보기에 좋은 곳이다. 절집을 돌아보다 보면 울리는 풍경소리가 마음을 열게 만들어 주고 숲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마음속에 청량함을 더해준다.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로 148

전화 : 041-337-3841

### GUIDE TIP

충의사 근처를 돌아볼 때는 충의사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도중도와 기념관, 충의사, 보부상 전시관까지 함께 돌아보는 것이 좋다. 도중도는 눈이 내린 겨울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충의사 근처에 식당이 많이 있으며, 메뉴 선택의 폭은 넓다. 광덕사는 구절초 피어나는 가을에 가면 더 향기롭다.

## 덕산향교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을 가도 향교가 없는 곳은 없지만 사실 향교를 돌아보는 여행은 일반화되지 않았다. 그래도 전주향교 등 널리 알려진 향교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지만 지역에 위치해 있는 향교를 찾



는 사람들은 드물고 향교를 돌아보려 해도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예산에는 예산읍에 있는 예산향교와 대흥에 있는 대흥향교, 덕산에 있는 덕산향교가 있다.

충청남도기념물 제137호인 덕산향교가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 인조 때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록으로 보면 대성전은 숙종 8년에 수리하였고 1987년에 다시 보수하였다. 건물 배치는 외삼문이 없이 앞쪽에 명륜당이 있으며 뒤쪽에는 대성전이 있어 전학후묘의 형태이다.

대성전은 앞면과 옆면이 3칸 규모이고 지붕은 볼 때 맞배지붕이다. 안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공부하는 강당인 명륜당은 앞면 7칸이고 옆면은 1칸이며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들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교육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 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향교길 88-12

전화번호 : 041-337-3767

## 가야산 지구



### 가야산의 아름다움

예산 10경에 들어 있는 가야산은 예산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등산을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명소이다. 신라 때는 가야산사를 짓고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조선시대까지도 덕산현감이 봄, 가을로 제를 올렸던 곳이다. 능선을 따라 피어있는 진달래와 철쭉과 야생화들이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가을의 억새풀과 오색으로 물드는 단풍은 가야산을 찾는 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준다.

보통 가야산 산행은 마을 입구의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을로 들어가면 남연군묘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 왼쪽 계곡으로 들어가 석문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시작하거나 옥양봉에서 시작해서 석문봉에서 끝나는 코스도 좋다.

이곳은 완만하지 않고 좀 가파르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 옥양봉에서 출발해 석문봉으로 내려오는데 2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안내판과 등산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한 후에 남연군묘 등 주변의 문화유적을 돌아본 후에 덕산온천에서 온천욕을 하면 금상첨화가 된다.

## 헌종대왕 태실

덕산면소재지에서 가야산 쪽으로 자동차로 10분 정도 가다 보면 옥계저수지가 있고 옆 작은 산에 헌종대왕 태실이 있다. ‘태실’이 무엇일까? 왕가에서 자손을 출산하였을 때 그 출생아의 태를 봉안하는 곳이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가의 자손이 태어나면 태를 백자 항아리에 보관하였다가 좋은 날을 택하여 풍수적 의미를 배려한 길지를 찾아 봉안하였다고 한다.

예산군에는 덕산면 옥계저수지의 헌종대왕의 태실, 대술 곶곡리 숙종 왕자 태실, 대흥 동헌 뒤편에 영조 왕녀 태실, 신양 황계리에 현종태실 등 다섯 곳이 있다. 조선 24대 헌종대왕(憲宗大王)의 태실은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의 옥계저수지 부근의 태봉에 자리 잡고 있다. 덕산에서 가야산 쪽으로 가다보면 옥계저수지가 있는데 좌측에 태실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왕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이 왕직(李王職)을 설치하였고 전국에 안치된 조선왕의 태 53기를 파헤쳐 서삼릉으로 옮겼을 때 이곳 태실도 훼손되었다.

사진을 보면 태실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태실비는 1970년대 초에 훼손돼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다가 작년 9월에 가야산 자락 옥계저수지에서 수중 탐사를 통해 발견되어 인양되었다. 비록 반쪽이지만 훼손되어 사라진 지 사십여 년 만에 빛을 보았다. 원래 태실비의 크기는 비신과 상단의 전면과 측면이 용 두 마리가 표현된 상단까지 150cm 정도였는데 상단은 없어진 상태로 인양되었다.



헌종대왕 태실비



헌종대왕 태실

## 옥병계와 옥계저수지

옥계저수지 옆에 덕산천이 있고 덕산천 위의 다리 오른쪽으로 ‘구서방네 가든’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으로 가는 길을 1분만 걸어가면 우측으로 병풍바위가 있다. 옥과 같이 티 없는 맑은 물이 흘렀다고 해서 옥병계라고 불렀다고 하며 옥계저수지를 비롯한 명칭도 바로 이 옥병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때 많은 문인과 관료들이 즐겨 찾았던 덕산의 명소였다.

옥병계에 있는 바위에는 많은 글씨가 쓰여 있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조선시대 18세기 기호학파의 학맥을 이었던 강문팔학사 병계윤봉구 선생이 이곳에서 살며 주자의 무이구곡(無夷九曲)을 본 따서 가야구곡(伽倻九曲)을 설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생각된다. 가야구곡은 가야산에서 흘러온 계곡의 아홉 굽이 경치를 말하는 것으로 옥병계는 ‘관어대’에 이어 제2곡이다. 이 바위는 병풍처럼 수직으로 흘러내려 병풍바위라고 불렀다.

옥병계 일원



이 바위에는 많은 글씨가 있는데 고운 최치원의 글씨로 ‘洗耳岫(세이암)’ 글자가 고운(孤雲)이라는 호와 함께 새겨져 있다. 이 한자의 의미는 귀를 씻으며 속세에 떠도는 나쁜 이야기를 씻어낸다는 뜻이다. 또한 바위에는 죽전 김진규 선생이 새긴 玉屏溪(옥병계), 청송 성수침의 水哉臺(수재대) 등의 많은 암각체가 남아 있다.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옛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위에 새겨진 글씨를 보면서 뜻을 의미해보는 것도 좋다. 옆의 덕산천은 가야산에서 흘러 바로 옥계저수지로 흘러드는데 옥계저수지는 순수한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어 잠시 쉬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이다. 겨울에는 철새들이 모여들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 풍수지리를 담은 남연군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조상의 묘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묘의 위치 하나에 후대에 자손들의 번창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도 부친인 남연군의 묘를 풍수지리에 따라 택지(擇地) 조성하였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한 번쯤은 가야산을 오르는 경험이 있을 텐데 가야산에 가다보면 마을을 지나 언덕을 발견하고 그 언덕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무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부친인 남연군의 묘이다. 그곳에 올라보면 풍수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이곳이 명당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원래 남연군묘가 있는 이곳은 가야산 일대에서 제일 큰 절인 가야사가 있던 곳이다. 가야사는 99개의 암자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절이었는데 가야사를 불사르고 탑을 허물고 이 밋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뒷날의 도굴을 염려하여 철(鐵) 수만 근을 붓고 강회로 비비고 봉분을 하였다. 무덤자리에는 가야사의 탑이 서 있었는데, 풍수지리설을 믿었던 대원군은 좌청룡, 우백호가 웅장하게 뻗어있어 ‘이대 천자지지(二代天子之地)’ 즉 2대에 걸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자신의 부친 남연군 이구의 묘를 경기도 연천의 남송정에서 이곳으로



남연군묘(위)와 남연들상여 복제품(아래)

이장하였다.

덕산에서 해미쪽으로 가다가 왼쪽 홍성으로 가는 길옆에 남은들 상여가 있다. 이 상여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이구(李球)의 시신을 장지까지 운반했던 상여로 지역 이름을 따 ‘남은들 상여’라고 부른다. 상여의 장식품을 2005년 12월 도난당했다가 2006년 3월 되찾아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고 이곳에는 재현된 상여가 있다.

남연군묘는 오페르트에 의해서 도굴될 뻔했던 적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는 서양인의 위신이 크게 떨어졌고 이에 화가 난 대원군은 통상수교거부정책을 강화하고 천주교탄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연군의 묘에 가기 위해 왼쪽 길로 접어들면 앞에 있는 남연군의 비

를 발견할 수 있다. 남연군의 비는 화강암으로 된 두 단의 기단 위 사각형의 높은 대좌 위에 비신이 놓여 있다. 오석으로 된 비의 높이 320cm, 비신의 길이 186cm, 너비 41cm, 대좌의 크기 134×97×74cm이다. 비문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부친 남연군충정(南延君忠正)’이라고 써어 있는데 영의정 조두순이 대원군의 부탁을 받고 쓴 것이다. 남연군 이구(李球)의 비석은 충남문화재자료 제191호로 지정되어 있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산 5-28

전화 : 041-339-8930

## 상가리 미륵불

남연군묘를 돌아본 후에 우측 길로 가면 개심사나 보원사지 쪽으로 가는 내포문화숲길이 나오는데 그 길을 따라 잠시 가면 다리가 있고 산길로 이어진다. 바로 숲길 초입 오른쪽으로 보면 충남문화재자료 제182호로 정해진 상가리 미륵불이 보인다.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에 위치한 이 불상은 거의 일자형으로 돌기둥 형태로서 있다. 보통 미륵불이라 부르지만 관세음보살에 가깝다.

머리에는 풀과 꽃무늬가 장식된 화려한 관을 쓰고 있고 관의 가운데에는 작은 부처가 조각되어 있다. 얼굴은 길쭉하고 볼은 두툼한 살이

올라 있다. 왼손은 배에 붙이고 오른손은 가슴께로 들어 올렸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모습인데 얼굴의 코끝은 없어졌다. 이 불상은 특이하게 북쪽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충청도 지방에 널리 분포했던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불상 양식이다.



상가리 미륵불

## 보덕사

덕산에서 옥계저수지를 지나 남연군 묘 쪽으로 향하다가 가야산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서 오 분 정도 마을길과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보덕사에 도착하게 된다. 보덕사는 수덕사의 말사로 1871년(고종 8년)에 흥선대원군이 창건하였다. 흥선대원군은 당시 풍수지리가인 정만화가 가야사 터가 2대에 걸쳐 황제가 나올 자리라고 말하자 가야사를 부수고 남연군 이구의 묘를 조성하였다. 시간이 흘러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1863년 고종으로 등극하자 묘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벽담을 주지로 하여 절을 지어 보덕사라고 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 불에 탄 절을 1951년 2월에 비구니 수옥이 중창하고, 1962년에 비구니 종현이 증축하여 오늘의 모습을 하고 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극락전과 칠성각과 요사채 그리고 현대식으로 지은 2층짜리 강원이 있다. 보덕

사의 유물로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83호로 지정된 극락전 앞의 석등이 있는데 이 석등은 1950년 가야사 터에서 옮겨온 고려시대 유물이다. 가야산 주차장에서 가야산 쪽으로 오르다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도 10분이면 도착하는데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보덕사 석등



보덕사 극락전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400-74

전화번호 : 041-337-4350

홈페이지 : <http://www.boduksa.cxom/>

**GUIDE  
TIP**

가야산 지구에는 펜션 등 숙박업소가 많은데 미리 예약을 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좋다. 부근에 음식점이 있기는 하지만 많지 않으니 면소재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편하다. 가야산에 등산을 할 때는 공용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이 좋다.

# 02 봉산면

덕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효교리 매항비      이의배신도비      정대영 가옥

(1시간 30분 ~ 2시간)



봉산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문화재로는 보물 794호로 지정된 예산화전리 석조사면 불상과 이의배신도비와 정대영 가옥이 있는데 도심을 벗어나 농촌 지역의 잔잔한 풍경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된다.

##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봉산면은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으로 유명하다. 봉산면 화전리 미륵당이 마을에는 1984년 11월 보물 제794호로 지정된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이 있다. 예산에서 덕산을 지나 봉산에 이른 후 화전2리 마을회관에서 좌측의 마을 쪽으로 200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도로변에 사면불상 이정표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잠시 마을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갖춰진 주차장에 닿게 된다. 주차장에서 산을 향해서 잠시 오르면 다시 이정표가 있고 오솔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소나무 숲이 있고 멀리 보호각이 보인다.

잠시 소나무 숲을 걸으면 보호각 속에 있는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을 만날 수 있다. 이 불상은 미륵당이라고 불리는 야산의 땅 속에 묻혀있던 것을 1983년에 발굴하였고 1984년에는 보호각을 건립하여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을 보호하고 있다. 사면불이란 일명 사방불(四方佛)이라고도 하는데 동·서·남·북의 방위에 따라 약사불, 아미타불, 석가불, 미륵불을 뜻하는 네 분의 부처가 새겨져 있는 불상을 말한다.

보호각 안에 있는 석불의 높이는 310cm, 석불의 너비는 110cm~140cm이며 두께는 80cm이다. 이 석불은 백제시대에 건조된 석불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 마애삼존불보다 더 힘차게 조각되어 있다. 남면은 좌상이고 그 외의 삼면은 입상으로 자연석에 조각된 불상으로 중국 남북조의 양식을 따르면서도 백제 특유의 조각 수법이 나타난 석불로 평가되는데 사면석불이 마모가 심해서 원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지는 않다.

남면에는 본존불로 생각되는 여래좌상이 있고, 나머지 면에는 여래입상이 각각 1구씩 새겨져 있는데 머리 부분은 많이 훼손된 채 서향과 북향만이 남아 있고, 손은 모두 없어졌다.

여래좌상은 양쪽 발을 무릎에 올려놓은 결가부좌(結跏趺坐)한 자세로 가슴부분과 광배가 비교적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4구의 불상은 양 어깨에 옷을 걸치고 있으며 가슴부분에 띠 매듭이 보이는데 옷 주름이 매우 깊고 가슴 아래에서 U자 형으로 겹쳐 있다. 머리광배는 원형으로 불꽃무늬·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백제 특유의 양식이다.

사실 예산 화천리 석조사면불상은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곳 한 곳만을 위해서 방문하고 우리 문화재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수덕사에서 정혜사로 오르는 길에 모형을 만들어 놓았으니 함께 돌아보면서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예산 화천리 석조사면불상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화천길 64-4

**GUIDE TIP**

예산 화천리 석조사면불상은 꼭 돌아보는 것이 좋다. 마모된 부분이 있어도 보물로 지정될 만큼 귀하고 주차장에서 사면불상으로 오르는 소나무 숲길이 참 좋다.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느끼기에도 좋은 곳이다.



예산 화천리 석조사면불상 보호각(좌)와 석불(우)

## 예산 효교리 매향비

충청남도기념물 제155호로 지정된 효교리 매향비는 언덕 위의 작은 밭에 있다. 매향비(埋香碑)는 미륵신앙의 한 형태로 향나무를 땅에 묻고 그 위에 비를 세운 것을 말하는데 이 비는 일명 ‘마되바위’라고 부르는 바위에 새겨져 있다. 조성 시기는 1343~1403년으로 추정되는데 가로 173cm, 세로 185cm, 두께 44cm 규모로 ‘마되바위’라 불리는 것은 바위에 말(斗)과 되(升), 홑 등으로 부르는 3개의 홈이 패여 있어서 예전에 보부상들이 말과 되를 재는 도량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효교리 매향비(일명 마되바위)

## 정대영 가옥

봉산의 봉림저수지 바로 옆에서 마을길로 5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정대영 가옥이 있다. 정대영 가옥은 소유자가 정대영 씨로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85호로 지정된 한식 기와집이다.

정대영 가옥은 일(一)자형 평면을 갖춘 건물로 앞면 7칸 반·옆면 2칸 반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대문에서부터 부엌과 방 두 칸, 마루와 건넌방 순서로 되어 있다. 1890년대에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히 알 수 없다. 가을에 가면 주변의 풍경과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답다.



정대영 가옥

## 이의배 신도비

고덕에서 봉산으로 가다가 고개를 넘다보면 길 바로 옆에 신도비가 눈에 들어온다. ‘신도비가 무엇일까? 신도비는 왕이나 고관 등의 업적을 비석에 기록해 묘 남동쪽에 세워두는 것인데 이 비에는 조선시대 중기 무신이었던 이의배의 공적을 담고 있다.

이의배(1576~1637)는 예산 출신으로 1599년(선조 32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선전관이 된 후 감찰에 임명되었고 인조반정 후 통정으로 승진하여 명천부사가 되었다. 이괄의 난 후 전라좌수사가 되었는데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인조 13년 공청병마절도사로 다시 부임해 병자호란을 맞았다. 병사들을 지휘하며 남한산성으로 가다가 광주 부근 죽산산성에서 적의 습격을 받았는데 싸우다 전사하였다. 나중에 조정에서는 그의 충절을 기리는 의미로 병조판서를 추증하였다가 다시 영의정으로 추증하였고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충남문화재자료 186호로 지정된 이 비(碑)는 화강석재로 만들어졌는데 낮은 사각받침 위로 비몸을 세우고 머릿돌을 올린 모습으로 머릿돌에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여의주를 다투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도로 바로 옆에 있으니 찾기가 쉽다.

이의배 신도비



# 03 고덕면

한내장 — 석곡리석탑과 미륵불      정동호가옥      구만포구기념공원      아크로랜드  
 태신목장

(3시간 ~ 3시간 30분)



고덕은 덕산에 비해 문화재나 관광지가 많지 않지만 예산 석곡리 석탑과 석곡리 미륵불, 한내장, 구만포구 기념공원 등 돌아볼 곳이 있다. 특히 구만포구 기념공원은 옛날 배가 들어오던 구만포구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직은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함께 돌아보면 좋다. 예산군으로 주소지가 바뀐 태신목장은 목가적인 풍경이 아름답고 치즈 만들기 등 체험을 할 수도 있다.

### 한내장-4·3 독립만세운동의 본거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수많은 억압을 받으면서 일본에 저항하고, 민족정신과 나라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예산에서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있었다. 지금의 고덕에 한내장터가 있었는데 이곳은 1919년 즉 기미년 4월 3일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조국 광복을 외치며 독립만세를 부르던 현장이다.

당시에는 이곳이 내포 지역에서 가장 큰 장이었는데 이곳 한내장에서 인근의 봉산과 덕산, 삼교와 면천, 합덕 등의 주민들이 모여들어 한내장 만세 의거를 이



한내장 4·3 독립운동기념탑

루었고 이를 기화로 내포 전지역으로 번지는 예산지역 독립만세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역사적 장소이다.

한내장은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시냇가 양측을 따라 3일과 8일에 5일장이 열렸는데 예덕상무사의 본부가 있었고 장날에는 장꾼이 오천여 명이 왕래하는 내포에서 가장 큰 장터로 내포주민들의 필요한 생활용품이 거래가 되었던 곳이다.

공원에는 한내장 4·3운동 기념탑이 조성되어 있고 옆에는 대의사가 있다. 인한수 의사를 추모하기 위하여 예산군이 대의사를 건립하였는데 그는 1919년 4월 3일 예산군 한내장날에 대천장터에 모인 군중을 이끌고 대천교 옆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시위대열의 선두에서 일본에 맞서면서 수비대장에게 달려들었다가 총검에 찔려 순국하였다.

대의사



## 예산 석곡리 석탑과 미륵불

예산 석곡리 석탑과 석곡리 미륵불은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 1구 마을회관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탑이다.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184호로 지정된 석곡리 석탑은 1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렸는데 탑신부의 3층 몸돌은 없어졌고 기단은 네 장의 판돌을 세워 4면을 이루고 있다. 석탑은 기단이 일부 깨져 있고 비뿔어진 상태이며 지붕돌도 모서리 일부가 떨어져 나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바로 옆에는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185호로 지정된 석곡리미륵불이 있다. 석곡리미륵불은 탑의 맞은편에 세워져 있으며 아랫부분이 땅에 묻혀 있다. 미륵불의 정수리는 평평하고 귀는 긴 편이다. 목에는 3줄로 새겨진 삼도(三道)가 있고 왼손은 가슴 앞까지 들어 손가락을 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양 어깨를 감싼 채 길게 입은 옷은 발까지 내려져 있다.

탑과 미륵불은 마을회관에서 조금 떨어진 석곡리 절터에서 옮겨왔는데 마을회관 앞에 있으니 생똥맞기도 하고, 사실 이곳보다는 절터에 보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내석곡길 40



## 정동호 가옥

예산에는 전통가옥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동호 가옥이다. 예산 군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초가지붕으로 지어진 가옥은 단아한 모습이 아름답다. 찾아가는 길은 그리 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에 공단이 생겨서 네비게이션도 잘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단의 큰 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끝부분에 바로 정동호 가옥으로 가는 마을길을 찾아서 가면 되는데 도로가 좁아서 운전엔 주의를 해야 한다.

중요민속자료 제191호로 지정된 이 가옥은 19세기 초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뒷산이 좌우로 뻗어 나와 풍수지리에서 명당으로 꼽는 좌청룡·우백호를 이루고 있다. 또한 오른쪽으로 비껴서 수구(水口)가 열리면서 너른 들판이 펼쳐져 명형국지(名形局地)에 동남향하고 있는데 그 앞에 들판이 아니라 공단이 들



어서서 아쉽다. 집은 산으로 둘러 싸여 있어 포근함을 더해준다.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광채가 튼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 안채는 대청이 없고 방 세 칸 부엌 두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방과 윗방 그리고 안방의 방 사이에는 네 짝 미서기문을 달고 내통할 수 있게 하였고 세 방의 앞에는 툇마루가 있다. 이 집은 풍수지리적으로도 탁월한데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아담한 공간을 형성한 주위경관이 뛰어나다. 원뿔형으로 나지막하게 돌려 쌓은 토담 위에 속이 빈 통나무를 세우고 이엉을 덮은 굴뚝 모습을 보면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예산지역에 초가집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 이곳을 돌아보면서 초가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교육적인 효과도 높다.

주소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곡오추길 133-62



## 구만포구 기념공원

예산에도 배가 들어오는 포구가 있었는데 바로 구만포구이다. 구만포구는 예전에는 배가 들어왔던 곳으로 오페르트 남연군묘 도굴사건 때도 행담도에 큰 배를 정박하고 작은 배를 타고 바로 구만포에서 내렸다. 오페르트 일당은 남연군묘를 도굴하려 하였으나 묘에 강회를 쏟아 부어 돌처럼 단단하게 봉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물이 빠질 시간이 되자 부랴부랴 돌아가게 되었다. 바로 그 사건이 시작되었던 구만포는 조선시대에는 내포의 교통문화의 중심지였다. 쌀이나 잡곡을 서울로 운송하는 통운의 연결지였고 새우젓이나 소금, 해산물 등을 실은 배가 드나들 정도로 큰 포구였다. 하지만 삼교천 공사 후에 물길이 막히면서 지금은 매립되어 드넓은 농경지가 되었고 공원을 만들어 기억을 되살리게 해 놓았다.



##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이 당진군에서 예산으로 주소지가 되면서 예산은 돌아봐야 할 곳이 한 곳 더 생겼다. 푸른 초원 위에 뛰노는 양이나 소, 말들을 보면서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에 빠져들 수 있는 목장이다.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은 한국 낙농업의 태동기에 설립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해 온 목장이다. 국내 최초로 ‘낙농체험목장’ 인증을 받았고 2004년부터 목장을 개방하여 젖소와 가축 그리고 목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은 체험농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유치원 학생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자유학기 진로 체험 활동을 하는 중학생은 물론 성인들까지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다. ‘체험여행지’에서 자세히 소개했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2길 236

전화 | 041-356-3154

### GUIDE TIP

고덕에는 한우 암소갈비 구이가 유명하다. 양념에 쟀 한우갈비를 초벌구이를 마쳐 손님상에 올리는데, 연탄 위에서 익어가는 갈비의 냄새만으로도 행복해진다. 그리고 국밥집에서 파는 소머리국밥도 한 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맛있는 식탁이 된다.

# 예산의 사과 향기 중부 지역

**삽교읍** 수암산과 예산삽교 석조보살입상  
예산 법륜사/ 목은 이색 영당  
삽교공원/ 삽교평야

**오가면** 오가 삼학사 기념비  
오가 역탑리 백로 서식지  
전통예산옹기/ 사과과수원

**신암면** 추사고택/ 추사기념관  
추사와 증조부·고조부의 묘  
화순옹주 홍문/ 백송공원과 백송  
화암사와 암각문  
자암 김구 신도비와 묘  
여사울 성지와 이존창 생가터





## 예산의 사과 향기 중부 지역

예산 중부지역은 오가와 삽교 신암을 포함한다. 오가는 특별한 문화재를 가지 지고 있지 않지만 봄에 피어나는 사과와 배의 꽃이 참 아름답고 가을에 익은 사과를 보면 마음이 풍성해진다. 오가우체국 뒤편의 야산에 백로 서식지가 있는데 봄에 보면 장관이다.

삽교는 수암산이 있는데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수암산과 용봉산을 함께 등산을 해도 좋다. 시간이 없다면 세심천 온천 뒤에 있는 등산로를 따라 수암산에 오르면서 오른쪽으로 있는 보물 제508호로 지정된 삽교 석조보살입상을 만난 후에 정상으로 향하면 좋은데 이곳에서 정상은 20분이면 가능하다.

수암산에는 5형제 바위 등 아름다운 바위들도 있고 수암산성도 있으니 함께 돌아보자. 그리고 법륜사에 들러 잠시 쉬면서 불교의 향기에 젖어보아도 좋다. 이곳에서 내려다보이는 평야는 풍요로움을 더해준다. 삽교의 살펴봐야 할 또 다른 곳이 바로 목은 이색영당과 삽교읍에 조성된 삽교공원이다. 잠시 공원에서 쉬면서 돌아보는 것도 여유롭다.

신암은 추사고택이 대표한다. 추사고택과 추사묘 그리고 추사기념관이 있고 화순옹주 홍문, 백송공원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송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추사의 집안과 인연이 있는 화암사를 돌아보고 그 뒤에 있는 추사의 필적 암각문을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여사울성지를 돌아보면서 천주교 박해와 천주교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좋다.



# 04 삽교읍

예산삽교보살입상   수암산 정상   풍차전망대   법륜사   이색영당   삽교공원

세심천

(2시간 30분 ~ 3시간)



삼교읍에는 넓은 평야가 있는데 이곳이 예산10경에 포함된다. 봄에 물이 고이고 모내기를 하고 여름에 초록빛 향연을 보면 참 아름답다. 가을이 되어 노랗게 익어가는 들판을 보면 전형적인 농촌의 풍성한 가을을 느낄 수 있다. 물론 겨울에도 텅 빈 들판 같지만 그 안에 봄을 준비하는 풍요로움이 담겨 있다. 삼교읍에서 만나는 수암산은 그리 높지 않지만 아름답다. 수암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은 이곳의 명소가 되어 널리 알려졌고 풍차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은 풍요롭기 짝이 없다. 그리고 이색영당와 삼교공원을 돌아보면서 삼교읍의 진면목을 만나보자.

덕산면의 바로 옆에 있는 삼교읍은 수암산과 세심천 온천 등이 있고 넓은 평야지대로 벼를 많이 생산하는 농업 지역이나 덕산과 마찬가지로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도청 등 기관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건설되어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는 곳이다.

## 수암산과 예산삼교석조보살입상

수암산은 자연 휴양림으로 조성되어 가족과 함께 조용하게 산책하거나 삼림욕을 즐기기에 적당한 곳이다. 이곳은 소나무가 많아 소나무 향기가 특별하다. 수암산 산행길은 소나무 숲에서 시작된다. 사실 산이 높지 않아 등산이라기보다는 산책이라는 표현이 더 나올지 모른다. 세심천 온천에다 자동차를 주차하고 입구를 통해서 오르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등산로가 무난한 수준이고 능선을 타고 바로 홍성의 용봉산 도립공원까지 이어진다.

향긋한 솔향이 산에 오르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준다. 오 분 정도 오르면 ‘예산삼교석조보살입상’이라는 안내판이 서 있다. 방향은 오른편 개울 건너 쪽을 가리키고 있다. 단숨에 뛰어 개울을 건너 백여 개의 계단을 오르면 눈앞에 커다란 석불 하나가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예산삼교석조보살입상은 보물 제508호로 지정되어 있고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머리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네모진 관을 쓰고 있고, 그 위에 6각으로 된 갓이 얹혀 있다. 원래는 보개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두 개의 커다란 돌을 이어 붙여 원기둥 같은 형태로 보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살상을 만들었다. 크지 않은 어깨의 윤곽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넓어지지만 양감이 전혀 없이 밋밋하여 마치 돌기둥 같다. 신체가 석주형(石柱形)의 모습을 보이는 불상은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서 고려 전기에 주로 유행하였다. 왼손은 몸에 붙인 채 아래로 내리고 있고, 오른손은 가슴까지 올려 석장(錫杖)을 잡고 있는데 양 발 사이까지 길게 내려오고 있다.

보살입상을 둘러보고 부지런히 올라가면 완만한 경사에 부드러운 흙길이다. 능선은 높지 않은 곳인데도 시야가 탁 트여 전망이 좋다. 골짜기 좁은 평야를 건너 산골짜기에서부터 바라다 보이는 모습이 평화롭고 다정하게 다가온다.

중간에 수암산성의 흔적이 보이고 그 옆에 수암산성에 대한 설명이 있다. 수암산성은 수암산의 정상부를 포함하여 북쪽과 서북쪽을 감싸면서 만들어졌는데 둘레는 약 540m로 산성은 돌과 흙을 섞어서 쌓았다. 성벽은 약간의 흔적만 남아 있는데 서북쪽에는 막돌을 쌓은 흔적을 통해서 성벽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성의 내부에는 북쪽으로 치우친 곳에 약간의 평지가 있어 이곳이 건물터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기와도 발견되었다. 수암산성은 수암산의 제일 북쪽에 있어 전망이 좋으며 북동쪽의 예



수암산성

당평야를 한눈에 감시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곳은 그리 쉽지 않다. 정상인줄 알고 올라가다가 발견하는 것이 돌탑이다. 누군가 양쪽에 하나씩 돌탑을 쌓아 놓았는데 지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준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앞으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수암산 정상을 알리는 표지석을 만나게 된다. 해발 280미터인 수암산에 오르면 작은 정자가 있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예산군에서 2015년 7월부터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수암산에는 삼교읍 신리와 목리 구간에 수암산을 알리는 장승을 설치하고 등산로 주변 잡관목 제거와 함께 단풍나무와 벚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수암산 정상에는 풍차 모형을 설치하는 등 내포신도시와 덕숭산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도 새로 조성하였고 아름다운 풍차와 바람개비를 보는 재미를 만들어준다.

세심천에서 정상 표지석을 지나 풍차가 있는 곳까지 가는 데는 30분 정도, 왕복 1시간 정도 잡으면 된다. 오르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 보물 508호로 지정된 예산삼교석조보살입상도 만나고 새롭게 조성된 풍차 조형물도 만나고 정상에서 주변을 조망해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또 이곳은 봄과 여름에는 야생화들이 아름다운 솔바람길이 조성되어 있으니 빠트리지 말자.



수암산 풍차전망대



수암산 오형제바위

## 내포영산대재를 품고 있는 예산 법륜사

덕산에서 흥성으로 가다 보면 내포신도시에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법륜사로 가는 이정표가 보인다. 이정표를 따라서 산길을 5분 정도 달리면 법륜사 주차장에 도착한다. 법륜사는 삼교읍의 수암산에 위치한 법륜종의 사찰이다.

법륜사에 도착하면 예사롭지 않은 석문이 방문객을 맞아준다. 그곳을 지나 잠시 절집을 둘러보면 대웅전이나 누각 및 마애불상 등이 곳곳에 알맞게 잘 배치되어 있는 것이 느껴진다.

이 사찰은 1945년 해방되던 해 환산당 법인 큰스님이 사찰명을 통령사라 이름 짓고 자연석굴법당을 창건하고 요사채를 건립한 후 사찰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 후 법륜사로 바꾸고 불사를 통하여 법륜도량의 자리를 다져왔다. 그러나 2007년 1월 뜻하지 않은 화재로 대웅전을 비롯하여 석굴법당 내부, 불상, 탱화 등이 모두 소실되어 다시 증축하였다. 법륜사는 굴 바위절로 더 알려진 사찰인데 이 사찰의 석굴법당 옆에 위치한 마애관음보살의 모습과 두 눈을 부릅뜬 사천왕상



법륜사 석굴법당

은 불교조각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방현(보명)스님이 법륜사에서 출가하여 한국전통불교 의례의식인 영산대재를 오랜 기간 전승 발전시키고 있는데 내포영산대재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스님은 우리나라는 물론 네덜란드나 벨기에, 중국 등 해외 공연을 통하여 충남만이 독특하게 간직한 소리인 범패 및 무용과 불교의식을 널리 전승하고 있다. 예산을 중심으로 지역적인 소리와 무용이 잘 전승되고 있는 것은 방현(보명)스님이 예산의 문화를 이어가는 데 30년 이상 지킴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835-45

전화 : 041-337-6609

## 목은 이색 영당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는 예산과 홍성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보성초등학교에서 보성보건진료소 쪽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보면 목은 이색 영당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목은 이색은 1328년 경북 영덕에서 탄생하였고 14세 때 성균시 십운과(成均試 十韻科)에 등과하여 문하시중을 지냈고 1396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목은 이색은 고려 말의 문신이고 학자로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와 함께 삼은(三隱)의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이색의 영정은 전국에 걸쳐 산재하여 있는데 이색 영정 다섯 점은 모두 이모본(移模本)이기는 해도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제작된 초상화가 많지 않아서 당시 초상화법과 양식을 잘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목은의 영정은 고려시대 조정에서 입는 홍포대병대지상과 집에서 입는 초립지상 2종이 전해오다가 백의야복은 임진왜란 때 실전되고 홍포대병대지상 영정은 보물(1215-3호)로 지정되었다. 1520년에 5대손 좌의정 유철이 화상에게 2본



목은 이색 여당과 목은 초상화

을 모사하도록 하여 하나는 본인이 모시고 현손 한원군 장윤이 봉안하였다. 그 후 1592년 임진병화 때 7대손이며 한원군의 증손인 아주군 식이 이곳으로 옮겨 모시게 되었다.

1600년에 이덕형과 이항복 등 두 사람의 소청에 의하여 선조대왕이 윤허하여 8대손(한양군 흥준)이 이곳에 영당을 건립한 후 영정을 봉안하였다. 1654년에는 2분을 모사하여 구 영정은 서천의 한산 문헌서원에 모셨다. 그리고 모사한 하나는 이곳에 또 다른 하나는 서울 수송영당에 봉안하였다.

이곳의 목은 영당은 수차 중수하였으나 파손이 심하여 1993년 예산군 화수회에서 협찬을 받아 영당 전동을 새로운 기와로 올렸고 2004년에는 봉화공과 중회에서 담장을 개축하고 영당 주변 전체를 새롭게 중수하였다.

예산 영당의 초상은 가로 85.2cm, 세로 143cm 크기로 관리들이 쓰는 사모를 쓰고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모에는 회색 줄을 넣어 입체감을 표현했고 얼굴은 열게 붉은 기운을 넣었다. 예산 영당의 이색의 초상화는 고려 말 관복을 잘 표현하였고 모사하여 그랬지만 회화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주소 : 예산군 삼교읍 다락로 103-10

## 삼교공원에서 삼다리 총각을 만나다

삼교 하면 삼다리를 생각하고 삼다리 총각이 생각난다. 삼교역이 장항선 개선 공사로 이전을 하고 구 삼교역 지역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삼교공원이라 이름이 붙었다. 공터로 방치됐던 부지가 새롭게 탈바꿈해서 주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곳에는 라디오 시대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연속극 '삼다리 총각'에서 주인공의 모습을 형상화 한 삼다리총각상과 삼다리총각 노래비가 입구에서 있다.

삼다리 총각 / 오세자

총각 총각 삼다리 총각  
 꽃산의 진달래 손짓을 하는데  
 장가는 안가고 날인만 할텐가  
 개간이 안나네 개간이 안나  
 주헛돌 손두렁 개간이 안나  
 총각 총각 삼다리 총각

총각 총각 삼다리 총각  
 영문의 승금이 빨갳게 익는데  
 장가는 안가고 들인만 할텐가  
 개간이 안나네 개간이 안나  
 세련만 새악시 개간이 안나  
 총각 총각 삼다리 총각

구 삼교역으로 가는 길 가옥의 담과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 정겨움을 더해주고 밤에 가면 조형물에서 뿜어 나오는 빛이 아름답게 다가온다.



## 삽교평야

예산에서 덕산 쪽으로 가다보면 삽교천을 따라 길게 펼쳐진 평야를 만날 수 있다. 봄에는 연 초록빛으로, 여름에는 녹색으로 변하고 가을이 되면 노란 물결로 변해서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처럼 흔들리는 곳이 있으니 바로 예산10경에 포함된 삽교평야이다. 삽교평야는 삽교읍 용동리, 성리, 고덕면 용리, 구만리, 상장리, 대천리까지 길게 펼쳐져 있어 가을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보면 황금빛 물결을 만날 수 있다.

우리 고장의 예당호에서 공급되는 풍부한 용수로 벼가 잘 자라 기름진 땅에서 생산된 벼를 최신설비가 완비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선별하고 가공하여 선별한 품질이 좋고 청결도 또한 뛰어나며 신선하고 밥맛이 좋은 황금쌀이 생산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GUIDE TIP

시간이 충분하다면 삽교 수암산에서 시작해서 용봉산으로 등산을 하는 것도 좋다. 용봉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코스는 아름다운 기암괴석을 품고 있어 좋다. 수암산에서 오형제바위나 거북바위 등 바위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다. 산행을 하고 바로 산자락에 자리 잡은 온천에서 몸의 피로를 푸는 것도 참 좋다. 삽교에는 삽다리곱창을 비롯해서 칼국수, 국밥 등 먹거리가 풍부하다. 연탄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곱창을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다. 방송을 타서 더 유명한 국밥집은 줄을 서서 식사를 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05 오가면

오가 삼학사 기념비      사과과수원 체험      백로서식지(봄, 여름)      사과잼만들기 체험      전통 예산옹기

(체험을 하지 않을 시 1시간 정도)



삼교읍 바로 옆에 있는 오가면은 사과과수원이 많아서 봄에는 사과꽃이 피어나 장관을 이루고 있고 가을에는 사과가 익어가는 모습이 이채롭다. 오가지역에 있는 과수원에서는 ‘사과 따기’ 등 각종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전통예산옹기에서는 황충길 명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옹기 만들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오가 초등학교 앞에는 삼학사를 추모하기 위한 비가 서 있는데 매년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다. 오가우체국 뒤에 야산이 있는데 봄과 가을에 백로를 만나볼 수 있다.

## 오가 삼학사 기념비

오가초등학교 앞의 작은 공원에는 오가 삼학사 기념비가 서 있다. 6.25 당시 오가면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와 내 고향 내 조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반공투쟁단(DX단)을 조직해 활동하다가 희생된 고 박영규, 한규순, 강기모 삼학사를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로 애국충정의 일념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순국하신 삼학사의 희생을 기리며 숭고한 뜻과 값진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매년 추모제도 열리고 있다.

오가 삼학사 기념비



## 오가 역탑리 백로 서식지

새로운 생태 여행지인 역탑리 백로서식지는 예당호에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지나 예산 방향으로 가다가 오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2~3분 정도 지나면 오가우체국이 나오는데 우체국 가기 전에 우회전해서 2분 정도 가게 되면 자동차 공업사가 있고 그 전 오른쪽으로 야산이 있다. 바로 이곳 오가면 역탑리에 중대 백로와 왜가리의 서식지가 있다.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사진에 담기에 좋은데 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화나 등산화를 신고 모자를 쓴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먹이활동을 하고 돌아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과 하늘을 나는 장면을 보면 자연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 인근 예당호나 개울에서 먹이를 구하기 쉬워서 이곳에 서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예산 생태여행을 하고 나면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고 자연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오가백로



## 전통 예산옹기와 옹기체험

옹기란 무엇일까? ‘옹기(甕器)’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옹기그릇(질그릇과 오지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옹기에 주식과 부식, 물 조미료 등을 저장하는 저장옹기로 사용하였다. 옹기는 삼국시대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한민족만이 가지는 독특한 저장옹기이다. 어렸을 때는 장독대에 옹기가 가득했는데 그 안에는 간장, 고추장, 된장 그리고 씨앗까지 저장하였다. 어머니께서 옹기에 꽃감을 넣어두고 우리들에게 꺼내주곤 하셨다.

지금도 어느 집을 막론하고 옹기그릇이 없는 집은 없을 것이다. 유리그릇이나 플라스틱은 막혀 있어 호흡을 하지 못하지만 옹기그릇은 호흡을 할 수 있어 저장물의 발효를 돕는다 하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알 수 있다. 명장 황충길의 운영하는 전통예산옹기는 대한민국의 최장수 기업이라고 한다. 1850년 조선 철종 원년 황충길의 조부인 황춘백이 옹기를 만든 이래 165년이 되었다. 전통예산옹기는 충남 예산 오가면 오촌중앙길에 위치해 있다.

황춘백은 천주교도였는데 박해를 피해서 옹기장으로 변신했다. 천주교도들은 박해를 피해 전국을 떠돌며 산속에서 몰래 옹기를 굽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가마 속에 숨어서 기도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황충길의 건물에서도 십자가를 볼 수 있는데 대를 이어가면서 천주교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故 김수환 추기경의 아버지도 옹기장이었고 전국에서 옹기회사 사람들은 90%가 천주교도라고 한다.

옹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에 솔가루와 콩깍지 잣물로 만든 유약을 발라 1,300℃ 고온으로 구워서 만든다. 옹기의 미세한 구멍은 공기 분자보다 크고 물 분자보다 작아서 물은 새지 않고 공기는 드나들 수 있어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저장하는 옹기로는 최적의 그릇이다.

1996년 현 황충길 명장이 만든 냉장고용 김치 항아리가 제1회 농민의 날 민속공예 부문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2년 후인 1998년에는 옹기 부문으로는 처음으로 ‘공예 명장’에 선정되었다. 지금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 가업을 이어가는 4대가 되고 있다. 둘째 아들은 도예과를 졸업한 아내와 함께 대



전통 예산옹기박물관(좌)과 황충길 명장(우)

를 이어 종사하고 있는데 명장의 느낌과 손맛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과학화 되고 있다.

이곳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 만든 작품은 마르는 과정을 거쳐 가마에 구워서 배달된다. 자신만의 옹기를 만들고 가질 수 있으니 좋은 추억이 남는다. 이곳에서는 생활 속에 사용하는 옹기를 많이 만드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택배로 안전하게 배송된다고 한다. 가족단위 체험도 가능한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요즘은 자유학기를 맞아 많은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신만의 옹기를 받아보면서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오기면 오촌중앙길 106

전화번호 : 041-332-9888

홈페이지 : [http://www.yesanonggi.co.kr/\\_shop/index.asp](http://www.yesanonggi.co.kr/_shop/index.asp)

## 사과과수원에서의 체험

예산사과는 예산의 10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예산에 사과가 많이 생산되니 사과를 이용한 체험을 하는 곳이 많이 있다. 그중 아람농장의 경우도 사과 따기와 사과잼 만들기, 사과고추장 만들기, 사과쿠키 만들기 등 체험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가을의 과수원에는 붉은 사과의 물결이 가득해 깊어가는 계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아람농장은 예산의 코끼리산 자락에 있으며 주로 사과, 배, 매실을 재배하며 자두, 감도 조금씩 있어 철따라 건강한 과일을 맛보며 자연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는 아담한 쉼터이다. 농사는 과일효소 및 식초, 계란껍질을 이용한 천연칼슘을 만들어 시비함으로써 나무를 건강하게 하고 화학비료는 미량의 토양개량용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 땅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병해충 종합방제체계(IPM)를 지켜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살림으로써 화학농약에의 의존을 최대한 피하고 있다. 사과 과수원에서의 체험은 정말 멋진 추억을 만들어 준다. 이곳도 자유학기제를 맞아 체험학습을 많이 하는 곳으로 자신이 만든 사과잼이나 고추장을 가지고 집에 가서 식구들과 나눠먹으면서 체험의 기쁨을 함께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된다.



예산 사과

### GUIDE TIP

오가는 사과과수원이 많은 곳으로 봄에 피어나는 사과꽃을 보는 것도 좋고 가을에 익어가는 사과를 보면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다. 특히 오가우체국 뒤에 있는 산에서 봄과 여름에 만나는 백로서식지는 예산만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리고 전통예산옹기에서의 옹기 체험은 특별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 준다. 오가지역도 곱창과 기러기 칼국수 등 널리 알려진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특히 곱창은 삽교와 더불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

# 06 신암면



(3시간 ~ 3시간 30분)



예산 여행의 양대 축이 있다면 수덕사와 추사고택이다. 추사고택 지역에도 돌아볼 곳이 많이 있는데 추사의 혼이 살아있는 추사고택, 추사가 잠들어 있는 추사 묘, 화순옹주 홍문, 추사기념관, 많은 추사 관련 조각품이 있는 백송공원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정해진 백송과 추사 집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화암사 등이 있다. 그리고 천주교 성지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이존창의 생가터가 있는 여사울성지도 함께 돌아보는 것도 좋다. 신암지역도 사과과수원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사과따기 체험이 가능하다.

## 고즈넉함이 깃든 추사고택

예산을 여행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유적지를 찾아가서 그의 숨결을 느껴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어 ‘예산’ 하면 ‘추사 김정희’가 떠오르게 된다.

추사 김정희는 경주김씨의 후손으로 권력가에서 태어났다. 병조판서 김노경과 기계유씨(杞溪俞氏)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으나 큰아버지 김노영의 양자가 되어 대를 이었고 그가 문과에 급제하였을 때 조정의 축하를 받을 정도였으니 그만 보아도 세도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희는 순조 1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암행어사, 예조참의, 설서 등 많은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였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듯 권력에는 늘 시기가 있다. 본인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1830년 생부 김노경이 윤상도의 옥사에 배후 조종 혐의로 고금도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순조의 배려로 귀양에서 풀려나 판의금부사로 복직되었고, 김정희 또한 1836년에 병조참판과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헌종이 즉위하고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할 때 그는 윤상도의 옥사에 연루되어 1840년부터 1848년까지 9년간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제주도 대정 추사관과 유배지에서 그의 제주도에서의 유배 생활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유배에서 풀려나 예산 고택에 왔고 예산군 신양면 일산이수정 현판을 써 주기도 하였다.



추사고택

그는 귀양이 풀려 돌아왔으나 영의정 권돈인의 일에 연루되어 또다시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었고 2년 만에 귀양에서 풀려 돌아왔으나 정계에는 복귀하지 못하였다. 그는 말년을 그의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과천에 머물며 학문과 예술에 몰두하였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추사 김정희는 과천에 안장되어 있던 것을 1937년 이곳 예산 추사고택 옆으로 이장하였다.

김정희의 삶이 23세까지가 학문과 인격을 닦은 성장기였다면 24세에서 54세까지는 왕성한 활동을 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24세 때 아버지를 따라서 청나라에 갈 때 함께 가서 연경에 머물면서, 옹방강(翁方綱)과 완원(阮元) 같은 유명한 유학자를 만났는데 그의 학문이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55세 이후는 시련의 시기였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옹방강이나 완원의 영향을 받아 금석학 연구에 몰두하였고 금석 자료를 찾고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의 추사체는 8년 동안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완성한 글씨체인데 유배지의 외로운 유배 생활 중에서도 추사체를 완성하여 조선 서예사의 한 장을 완결하였다. 또한 제주도에서 완성한 「세한도 歲寒圖」는 김정희가 그의 제자 이상적의 의리에 보답하기 위해 그

려 준 그림으로, ‘추운 계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게 남아 있음을 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라는 공자의 명언을 바탕으로 겨울 추위 속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고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화폭에 그려내었다.

추사고택은 예산10경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솟을대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아담한 집을 만나게 된다. 안에는 안채, 사랑채, 문간채, 사당채를 만날 수 있다. 사랑채는 ㄱ자로 되어있고 안채는 여섯 칸 대청과 두 칸의 안방과 건넌방이 있고, 부엌과 안대문, 협문, 광 등을 갖춘 ‘ㄱ’자 형 가옥이다. 안방과 건넌방에는 각각 툇마루가 있고 부엌 천장은 다락으로 되어 있으며,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대청이 있는 그리 흔하지 않은 규모이다. 사랑채 앞뜰의 한 무더기 모란 옆에는 석년(石年)이라 길게 음각된 석주가 서 있는데 추사가 직접 만들었다는 해시계다.

좀 더 집을 살펴보면 남쪽에 사랑채가 한 칸, 동쪽엔 두 칸의 온돌방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청과 마루로 되어 있다. 뒤편에는 사당이 있고 옆에는 오죽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추사고택의 맨 뒷 건물은 영당으로 김정희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 김상무가 세운 영당이다.



위부터 추사고택 안채, 사랑채, 우물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전화 : 041-339-8242

## 추사의 흔적을 찾아보는 추사기념관

예산 쪽에서 추사고택 주차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추사기념관이다. 예산이 낳은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추사기념관이 2008년 문을 열었다. 이곳에는 그의 삶과 문학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실이 있어 그를 이해할 수 있다. 예산군이 40억 원을 들여 추사고택 왼쪽에 세웠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 연 건축면적 1576㎡ 규모로 조성되었다. 기념관은 상설전시실, 영상실, 체험실, 수장고 등을 갖췄고 기획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상설전시실에는 추사의 작품이 연중 전시되고 있다. 사실 이곳은 진품이 그리 많지는 않다. 과천이나 제주에 가면 더 많은 진품을 만나 볼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의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전시실 앞에 추사 동상을 세웠는데 동상 제작은 추사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산군의 후원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문화 예술적 위상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의 표준영정을 기준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세종대왕 동상을 제작한 조각가 김영원 씨(홍익대 명예교수)가 3개월의 작업 기간을 거쳐 제작하였다.

주소 :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49

전화 : 041-339-8248



## 추사 김정희 선생 유적지에 있는 추사와 증조부, 고조부의 묘

추사 김정희 선생 유적지 안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묘와 증조부인 김한신과 화순옹주의 합장묘 그리고 고조부인 김홍경의 묘가 있다.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188호로 지정된 추사 묘는 추사기념관 앞에서 오른쪽으로 잠시 걸으면 닿게 되는데 과천에 안장되어 있던 것을 1937년 이곳에 이장하였다. 첫째 부인 한산 이씨 묘에 추사 묘와 둘째 부인 예안이씨 묘를 이장하여 3위를 합장한 묘인데 추사 묘의 봉분은 생각보다 작고 석물 치장도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다.

추사고택에서 화순옹주 홍문을 지나면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189호로 지정된 추사의 증조부인 김한신과 화순옹주의 합장묘가 있다. 김한신은 영의정 김홍경의 아들로 태어나 13세 때 영조의 딸 화순옹주와 혼인하여 월성위에 봉해졌는데 여러 관직을 지냈고 글씨를 잘 쓰고 시문에 능했다. 하지만 김한신이 38세로 죽고 화순옹주도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다가 곧 세상을 떠났다. 김한신은 화순옹주와 함께 이 묘에 합장되었다.

천연기념물 106호로 지정된 백송 뒤에 김정희의 고조부인 김홍경의 묘가 있다. 김홍경은 신입사화 때 파직된 후 영조 즉위 후 복직하였고 그 뒤에 탕평책에 반대하다 다시 파직되었고 다시 복직된 후에 영의정이 되었다. 김홍경의 묘는 동향으로 조성하였고 앞에 상돌, 돌기둥 2개, 석인상이 있으며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이 있다.

김정희 묘



추사 고조부 김홍경의 묘



## 화순옹주 흥문

추사고택에서 백송이 있는 쪽으로 잠시 걸어가면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된 화순옹주 흥문이 있다. 김정희 선생 유적지 안에 있는 이 열녀문은 정면 8칸, 측면 1칸으로 이뤄져 있다.

영조의 둘째딸인 화순옹주는 영의정 김홍경의 아들인 김한신과 결혼을 하였으나 김한신이 38세의 젊은 나이로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그를 따라 죽었다. 영조는 화순옹주의 정절을 기리기는 했지만 부왕의 뜻을 어겼다고 정려를 내리지 않았으나 나중에 정조가 정려를 내렸다.

화순옹주 흥문은 정면 8칸, 측면 1칸으로 담장을 설치하였고 묘막터는 53칸이었다고 하나 현재는 불타 없어지고 주초(柱礎)만이 남아 있는데 안에는 모과 나무와 고욤나무가 담장 쪽으로 서 있다.

화순옹주 흥문 묘막터 정문 위에 “烈女綏祿大夫月城尉兼五衛都總府都總管 贈諡貞孝公金漢薰配和順翁主之門 上之七年 癸卯一月十二日 特命旌閭(열녀수록 대부월성위겸오위도총부도총관 증시정효공김한신배화순옹주지문 상지7년 계묘 1월12일 특명정려)”라고 판각되어 있다.

화순옹주 흥문



## 백송공원과 백송

화순옹주 홍문 옆에 백송공원이 있다. 추사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다시 만나고 그 수준 높은 추사의 미술사적 가치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을 모아 백송 조각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공원에는 각각의 조형물에 추사의 글이나 관련 내용을 담아 추사의 혼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설치되어 있는 작품마다 작품명과 해설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다.

백송공원에서 다시 자동차로 2분 정도 달리면 왼쪽으로 천연기념물 제106호로 지정된 백송이 눈에 들어온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24세에 그의 부친 김노경을 따라서 중국 청나라 연경에 갔다가 돌아올 때 백송의 종자를 가지고 왔다. 그는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고조할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한 후에 가져온 백송의 씨를 심는다.

백송 씨앗은 그 해에는 발아하지 않았고 그 다음 해에 땅을 비집고 올라왔는데 황토의 메마른 땅이라서 살아남은 것은 몇 그루에 불과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백송이 죽었고 오직 한 그루 살아남았는데 바로 지금 서 있는 백송이다. 원래는 백송이 지표면 부근에서 줄기가 세 갈래로 갈라져 있었으나 두 줄기



백송



백송공원

는 죽어버리고 지금은 줄기가 하나로 되어 형세가 약한 모습이지만 추사의 혼이 담긴 백송인 것만은 틀림없다.

예산 백송의 나이는 200년이 넘는 고목으로 나무의 높이 14.5m, 가슴높이 둘레 4.77m 정도라고 한다. 백송의 껍질은 담회색으로 매끄러우나 20년이 되어야만 껍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40년이 지나야 백색의 흰 껍질조각이 떨어져서 백송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한다.

김정희 선생의 서울 본가에도 영조가 내려 주신 백송이 있는데 백송이 김정희 선생 일가의 상징이 되고 있다. 지금 김정희 선생의 생가 주변에 백송이 몇 그루 있으니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추사가(家)와 인연이 깊은 화암사와 암각문

추사고택에서 다시 예산 쪽으로 향하다가 삼거리가 나와 삼교 쪽으로 잠시 가면 화암사로 가는 이정표가 보이는데 마을길을 따라서 2분 정도만 가면 화암사 주차장이 나온다. 주차장에서 위로 올라가면 화암사가 나오는데 우선 눈에 들어오는 요사체를 보면 절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다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대웅전이 나와 비로소 절집이라는 것이 실감이 난다.

높지 않은 오석산 산자락에 자리 잡은 화암사는 추사나 그의 일가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이 사찰을 중건한 김한신이 김정희의 증조부이다. 또한 김한신은 영조의 부마로서, 영조 임금의 둘째딸이자 사도세자의 누이동생인 화순옹주와 결혼하여 월성위로 봉해졌는데, 이들 부부는 죽은 후에 용산 아래에 위치한 앵무봉에 합장되었다.

요즘은 비구니 스님의 수도도량으로서 시골 사찰이 갖는 고즈넉함과 단정함까지 느낄 수 있다. 추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절집에 자주 찾아간다. 화암사 대웅전 뒤편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친필로 ‘천축고선생택(天竺古先生宅)’이라 새겨진 병풍바위가 있다. 옆에 ‘시경(詩境)’이 새겨진 바위가 있는데 시경(詩境)은 육방옹(육유)이 쓴 글씨로 추사가 청나라 스승 용방강에게서 그 탁본



추사 암각문 - 천축고선생택(좌), 소봉래(우)

을 선물로 받았고 그는 그것을 귀히 여겨 화암사 뒤편 바위에 글씨를 새겨놓았다. 시흥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경지라는 뜻의 '시경(詩境)'과 '부처의 집'이라는 뜻의 '천축고선생택(天竺古先生宅)'이라는 암각문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김정희 선생 필적 암각문은 충청남도 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바로 이곳에서 좌측으로 오솔길을 따라 150m쯤 가게 되면 왼쪽에 있는 바위 한 면에는 '소봉래'(小逢萊)가 새겨져 있다.

화암사 주변에는 봄에는 복수초가 피어나고 여름에는 상사화와 목백일홍 꽃이 아름답게 피어난다. 화암사 뒤에 있는 바위에서 암각문을 만나 본 다음에 좌측으로 150미터쯤에 있는 소봉래를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다.

전화 : 041-332-9250

주소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1길 21-29

## 자암 김구 선생 신도비와 묘

신암면사무소에서 멀지 않은 신암면 종경리에 자암 김구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예산 출신인 자암 김구 선생(1488~1534)은 조선 중종 때 문신이며, 뛰어난 글씨 솜씨를 지닌 서예가로 안평대군, 양사언, 한석봉과 함께 조선의 4대 서예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사실 예산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서예가로 인수체라는 독특한 필체를 남겼고 기묘사화를 당해 개령으로 유배되었다가 죄목이 추가되어 남해에서 15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다. 그가 유배살이를 하는 동안 부모가 모두 죽었고 47세의 나이에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자 조정에서 효행정려비를 내렸는데 묘 아래쪽에 있다.

그는 1513년(중종 8)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 조좌랑을 거쳐 사간원과 성균관에서도 일을 하였다. 성균관에 재임을 하던 중 휴가를 받아 어느 날 밤 옥당에서 촛불을 밝히고 글을 읽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 보니 임금께서 있고 그 옆에 별감이 술병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한다. 그가 깜짝 놀라 엎드리니 중종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달이 밝은데 글 읽는 소리가 들리기에 내 여기에 왔노니 어찌 군신의 예가 필요하리요?”라고 말하며 술을 같이 마셨다고 한다.

이후 그는 승정원 동부승지, 좌승지로 승진되었다가 부제학에 이르렀는데 당



자암 김구 묘



김구 효행정려비

시 중중은 조광조, 김구, 김식, 김정 등 젊은 인재를 등용하여 성리학을 장려하고 문민정치를 구현하여 왕도정치를 실현하고 종전의 제도를 혁신하려 했다.

그의 저서로 <자암집>이 있고 자암 김구 선생의 벼루 1점이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224호로 지정되었다. 예산군에서는 매년 자암 김구 전국 서예대전을 열어 그를 기리고 전시회를 열어 그를 추모하고 있다.

## 여사울 성지와 이존창 생가터

예산읍에서 신례원 외곽도로를 달려가다가 신암 쪽으로 가거나 구 검문소 사거리에서 합덕 쪽으로 달리다보면 도로변에 여사울 성지 이정표를 만날 수 있다. 이존창의 생가터가 있는 여사울 성지로 향하면 된다.

충청도에서 가장 먼저 천주교가 전파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여사울 성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존창 사도의 생가로도 알려져 있는 여사울은 내포 천주교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내포 천주교 순례 길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산과 예산, 당진, 홍성으로 이어지는 순례길로 많은 천주교신자들이 순례를 가는 길이 되고 있다. 내포 천주교 순례 길은 공세리 성당 - 솔미성지 - 합덕성당 - 신리성지 - 삽교성당 - 한티고개 - 해미읍성 - 해미성지로 이어진다.



이존창 생가터



자암 김구 신도비

이존창 루도비코는 예산의 농민 출신으로 권일신으로부터 교리를 배운 후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그는 이승훈 바오로로부터 충청남도에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았고 가성직제도를 채택하여 예산 여사울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이존창 루도비코의 선교활동에 힘입어 내포지역에서 천주교가 빠르게 전파되었고 그는 내포의 사도로 존경받았다. 이존창 루도비코는 신해박해 때 체포되어 배교하였으나 그 후 뉘우치고 선교활동에 노력하였고 을묘박해 때 체포 연금되었다가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였다.

성지에는 크지 않은 아담하고 예쁜 성당이 있는데 성당 안은 소박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지만 성스러움이 넘쳐난다. 성당 앞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바로 이존창의 생가터이다. 예산에 있는 천주교 성지인 이곳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내포방문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많은 신자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주소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증여서울길 61-2

전화번호 : 041-332-7860

홈페이지 : <http://www.yeosaul.or.kr/>

GUIDE  
TIP

추사고택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고택 안에는 추사가 제작한 해시계인 석년(石年)이 있으니 살펴보고 사당 옆에 있는 오죽(烏竹)도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추사 김정희 고택을 방문하면서 눈에 띄는 추사가념관, 추사 묘소와 추사고택은 방문하는데 화순옹주 정려문과 백송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예산의 백송은 오래되었음은 물론이고 희귀해서 보존가치가 커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화암사는 추사 김정희의 향기가 남아있는 절집이다. 화암사를 돌아본 다음에 화암사 뒤에 있는 바위에 새겨진 '천축고선생택(天竺古先生宅)'과 '시경(詩境)'을 돌아 본 후에 그곳에서 좌측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 바위에 새겨진 소봉래(小逢萊)를 찾아봐야 한다.

여사울 성지에는 이존창 생가터가 있고 앞에 작은 성당이 있다. 천주교인은 공세리성당에서 시작되는 내포 천주교 순례 길을 즐겨 걷는데, 순례 길을 걸으면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핍박을 받고 순교한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신암면에는 주꾸미 관련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첼판요리가 맛이 있다.



# 예당호를 품은 남부 지역

**응봉면** 예당호/예당호 조각공원  
예당호 국민여가 캠핑장  
예당국민관광지

**대흥면** 슬로시티 대흥  
의좋은 형제 공원과 대흥장  
대흥동헌과 의좋은 형제비  
대흥향교와 은행나무  
망태할아버지 석상  
이한직 가옥/상중리 느티나무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우리물고기 생태체험관  
느린꼬부랑길  
임존성과 봉수산/봉수산 자연휴양림  
봉수산수목원  
예산 송림사와 송림사 부도  
박기성 가옥

**광시면** 대련사/최익현 선생 묘와 재실  
광시한우 테마공원  
한국문인인장박물관/황새공원  
쌍지암/김한중 의사 생가와 기념관





## 예당호를 품은 남부 지역

예산에는 전국에서 제일 큰 예당호가 있다. 예당호 주변에 위치한 응봉, 대흥, 광시는 저수지와 어우러지는 멋진 풍경과 슬로시티, 예산10경에 새로 포함된 황새공원으로 이어져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응봉은 별다른 문화재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예당호변에 국민야영장과 조각공원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조각공원 아래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시화대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의 문인들이나 출향문인들의 아름다운 시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조각 작품을 돌아보면서 예술 작품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다. 건너편의 야영장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대흥은 새로운 관광지의 강자이다. 슬로시티 대흥은 전국의 슬로시티 중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일 년 내내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고, 체험활동을 통해서 슬로시티 대흥을 더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의좋은 형제 공원에는 의자공원이 따로 있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위로 올라가면 의좋은 형제비와 의좋은 형제 상이 있어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를 실물로 만나는 재미가 있고, 형제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대흥동헌과 세트장이 있는데 봄에 피어나는 고목의 벚꽃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 동헌 뒤뜰에는 흥선 대원군 척화비와 화령옹주 태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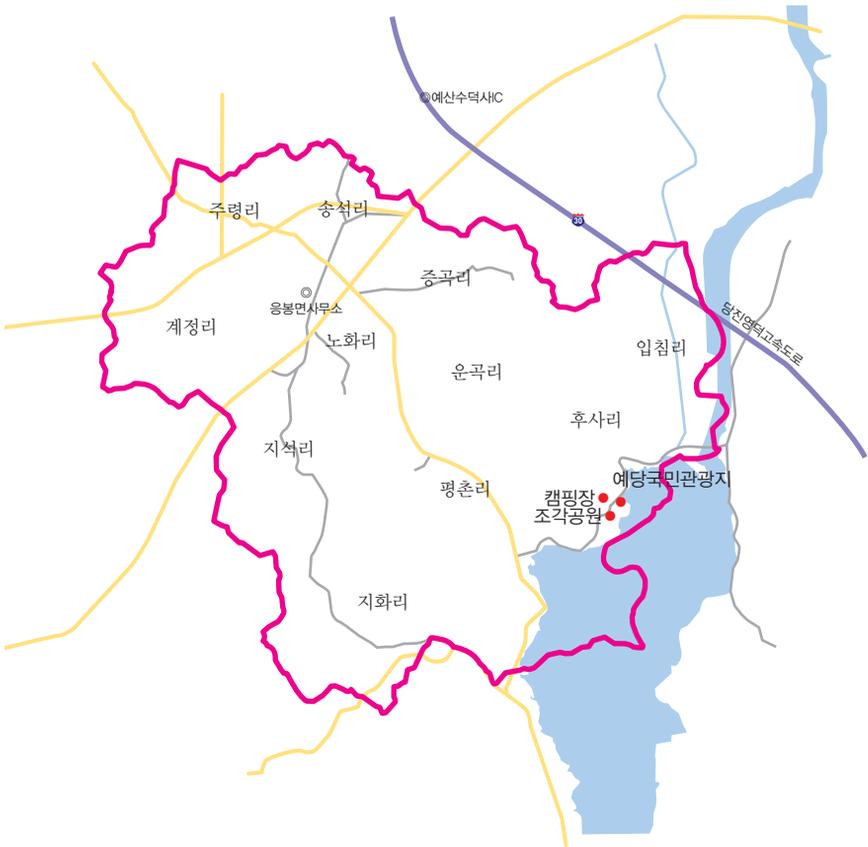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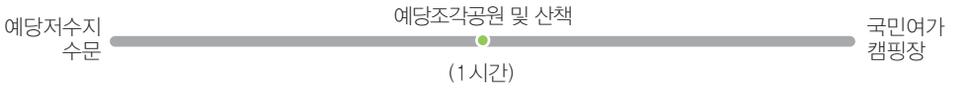
광시는 김한중 의사의 생가와 기념관이 있고 최익현의 묘가 있는 충절의 고향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버스를 타고 소고기를 먹으러 올 정도로 널리 알려진 맛의 고장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황새공원이 조성되어 새로운 생태 여행의 일번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문인들의 인장을 전시하는 인장박물관이 있다. 임존성에 올라 내려다보이는 예당호의 모습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예당호 주변에 위치한 3개면은 예당호와 연관된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임존성 등 역사적인 향기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당호 주변의 관광지를 돌아보

는데도 하루는 죽히 걸리지만 황새공원, 슬로시티 대흥, 예당호 주변 음식점에서의 민물매운탕이나 어죽을 꼭 먹어봐야 예산에 다녀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 봉수산 휴양림이나 펜션에서 하루 머물면서 예당호의 일몰과 일출을 만나는 것도 참 좋다.



# 07 응봉면



응봉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보물급 유물은 없어도 사과와 복숭아 등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시골의 모습을 품고 있다. 예당호와 예당호 조각공원, 예당호 국민여가 캠핑장 등이 있어 휴식의 공간이 되고 있다.

## 예당호

예산읍에서 자동차를 타고 예당호 쪽으로 10분 정도 달리면 예당호 수문이 나오는데 여기가 예당호의 시작이다. 예산10경으로 지정되어 있는 예당호의 면적은 약 10km<sup>2</sup>이고 둘레는 40 km로 1963년에 완공하였다. 무한천이나 신양천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담수어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강태공훈련소’라고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낚시터이다. 봄에는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할 정도로 낚시가 잘 되어서 전국에서 강태공들이 몰려들고 있고 매년 봄에는 전국 낚시 대회도 열리고 있다.

이곳은 봄에 가면 초록빛 행렬이 특히 아름다운데 주산지 못지않게 아름다운

응봉 배괴수원의 배꽃







예당호  
황금나무 입몰



예당호 일출



예당호 철새

풍경이다. 초록빛 세상과 수면에 반영된 또 다른 세상을 만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예당호를 찾은 사람들에게 주는 보너스와 같다.

예당호의 일출과 일몰이 또한 아름답다. 일출은 청양으로 가는 도로 변의 저수지 갯길에서 보면 일품이고 일몰은 황금나무를 배경으로 하거나 화이트 하우스 쪽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황금나무는 요즘 인기 출사지가 되고 있다.

예당호에서 잡히는 물고기로 만든 어죽이나 붕어찜, 민물매운탕이 유명한데 예당호 근처에는 많은 음식점이 있어 민물고기를 이용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예당호 근처에 카페나 펜션이 많이 생겨나 데이트족들이 자주 찾고 있다. 미리 예약을 하고 와서 펜션에 머물면서 예당호의 물안개를 만난다면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물 위에 떠 있는 집 같은 좌대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예당호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 좌대에 따라서는 노를 짓는 보트를 내 주는 곳도 있고 직접 좌대까지 실어다 주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좌대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밤샘낚시를 하기에 불편하지 않다.

겨울이 깊어갈 때 예당호의 물이 얼면 얼음낚시도 즐길 수 있는데 또 다른 즐거움이다. 눈이 내리는 날 얼음을 깨고 낚싯대의 찌를 응시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다른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연초에는 이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예당호는 새로운 생태관광지로 알려지고 있다. 예당호 하류나 상류인 광시 하천에는 노란 어리연이 피어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고, 가을부터 철새들이 찾아와 철새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앙생태공원의 연꽃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 예당호 조각공원

예당호 수문에서 자동차로 1~2분 정도 가면 응봉면 예당 조각공원에 도착한다. 각각의 작품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예당호 주변을 여행하다 잠시 머물면서 쉬어가는 것도 좋다.

조각 작품을 돌아보고 다시 나와 야외 공연장 쪽으로 가다보면 시화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문인협회 예산지부에서 예산의 작고한 시인과 현존하는 시인들의 작품을 시화대에 걸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문학의 향기를 선사하고 있다.

예당호 조각공원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산책로를 따라서 걷는 것도 참 좋다. 매혹적인 소나무 향기와 예당호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나고 각종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에 빨려들게 될 것이다.



조각공원 작품

## 예당호 국민여가 캠핑장

예산에는 전국에서 제일 큰 예당호가 있고 예당호 옆에는 예당호 국민여가 캠핑장이 문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로 옆에 예당호가 있고 조각공원까지 두루 갖추어 가족들과 캠핑하기에 좋다.

이곳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호수와 멀리 보이는 산과 신선한 공기는 특별하다. 아침에는 예당호에서 일출을 만나고 저녁에는 일몰을 마주하면서 대자연의 장관을 경험할 수 있고, 낚시를 좋아한다면 캠핑장이 베이스캠프가 되어 가족단위로 시간을 보내기 좋다. 캠핑장은 관리동을 중심으로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도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캠핑장은 지형상 각 사이트별로 다소 차이는 있는데 약15~17평이 된다.

이곳에서 야영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봐도 좋은데 예약(041-339-8281)은 필수다. 야영을 하면서 이른 아침에 만나는 예당호의 아름다운 모습에 폭 빨려 들어가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사용료를 보면 성수기(7~8월)와 금·토·공휴일 전날은 30,000원이고 주중(일~목)은 20,000원이다.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1시 기준이며 퇴장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전화로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123

전화 : 041-339-8287

홈페이지 : <http://camping.yesan.go.kr/>

### GUIDE TIP

수문을 바라보며 왼쪽으로 200m 정도 가면 예당가든이 있고, 그 앞에 해질 무렵에 황금빛으로 물드는 일명 '황금나무'가 있는데 일몰출사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근처에 어죽집이나 카페가 많이 있어 호숫가에 머물면서 예당호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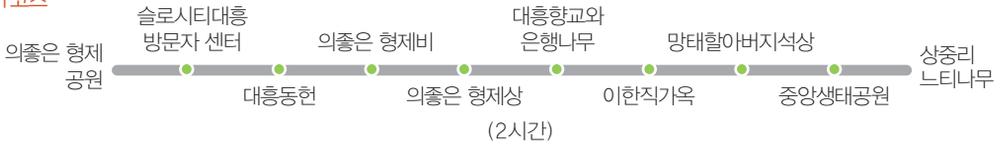
예당호 출렁다리 조감도(2018년 11월 준공 예정)

## 예당국민관광지 산책

예당국민관광지는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들어가는 예당호를 배경으로 1986년 조성된 국민관광지이다. 조각공원과, 산책로, 야외공원장 등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가족 나들이나 가족 캠핑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주차장 시설도 잘 되어있고 예당호를 바라보며 걷기 좋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가족단위로 산책을 하기에 매우 좋다. 팔각정까지 걸으면서 산책을 하고 팔각정에서 예당호를 내려다보는 것도 좋다.

# 08 대흥면

1코스



2코스

봉수산  
휴양림

봉수산수목원  
(2시간)

임존성

3코스

예산

송림사 및 부도  
(1시간)

박기성 가옥

〈대흥면사무소 근처 세부 안내도〉



예당호는 응봉 대흥 광신 신양 등 많은 면에 속해 있는데 대흥슬로시티와 함께 대흥면의 여행지의 중심에 있다. 대흥슬로시티는 전국의 많은 슬로시티 중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다른 슬로시티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곳에는 의좋은 형제공원, 의좋은 형제 비, 의좋은 형제 상, 대흥동헌, 대흥향교와 은행나무, 망태할아버지 석상, 이한직 가옥, 중앙생태공원, 우리 물고기 전시관, 봉수산 휴양림과 수목원, 송림사 부도 등 많은 문화재와 볼 곳이 있다. 이곳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돌아보면 많은 곳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느림의 미학을 담은 슬로시티 대흥

물질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빠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여유로움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먹거리도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는데 이러한 음식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비만을 유발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것에 반대하여 이탈리아의 소도시 그레베 인 키안티(Greve in Chianti)의 시장인 파올로 사투르니니가 창안하면서 1999년 10월에 슬로푸드운동을 펼치던 포시타노를 비롯한 4개의 작은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슬로시티를 선언하면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다. 선언 이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 널리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5월 현재 세계 19개국 125여 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현재 슬로시티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인구 5만 명 이하, 도시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환경정책 실시, 유기농 식품의 생산과 소비, 전통 음식과 문화 보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 사항으로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 차량통행 제한 및 자전거 이용, 나무 심기, 패스트푸드 추방 등의 실천이다.

우리나라의 슬로시티는 2007년 11월 1일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담양군 창평면 삼치천 마을, 장흥군 유치면, 완도군 청산도, 신안군 증도 등 전남 4개 지역을 포함하여 경남 하동군 악양면, 충남 예산군 대흥면, 전주 한옥마을, 남양주시 조안면, 청송군 부동·파천면, 상주시·함창·이안·공검면,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충북 제천시 수산면 등 12곳이 있다.



방문자센터 옆의 단풍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우리나라 중서부에 위치한 충남 예산군의 대흥면이 한국에서 여섯 번째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가입했다. 특히 청정 예당호와 주변에 조성된 생태공원이 자연생태적 매력 포인트이다.

대흥면은 예당호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뉘어져 있다. 이곳에는 38종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 저수지는 전국 낚시꾼들의 애호를 받는 천혜의 낚시터로 가히 슬로명승지 격이다. 예산의 특산물인 예당 붕어찜과 민물어죽(魚粥)은 슬로푸드이며, 껌질째 먹는 황토밭 예산사과도 지역 특산물로 손꼽힌다.

대흥이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육과 헌신을 통한 내실 있는 슬로시티 만들기에 노력하였다. 주민협의체가 앞장서서 슬로시티의 자생력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력자원으로 사용하였고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여 슬로시티의 자존감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 슬로시티 이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나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실적을 거뒀다.

또한 슬로푸드, 짚공예 등 전통문화 교육, 돌담 가꾸기와 꼬부랑길 조성 등을 통하여 슬로시티 이념을 담은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슬로시티를 몸소 체험하는 데 기여했다.

오십여 가구에 조성해 놓은 ‘손바닥 정원’은 지역에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해주었다. 자연발상, 여행 북 만들기, 소원모빌 만들기, 자연미술제, 마당스테이 등을 통하여 마을 주민과 함께 시간을 나눈다.

슬로시티 대흥이 2009년도 9월 4일 중부권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6번째로 세계에서는 121번째로 인증을 받았다. 슬로시티는 5년마다 재 인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5년간의 성과와 실적을 높이 평가받아 국제 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2015년 1월 30일부로 재 인증을 받았다. 지난 5년 동안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모두가 만족하는 슬로시티 운동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재 인증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슬로시티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체험활동을 하면서 즐길 수가 있을까?

우선 슬로시티 대흥 방문자센터에 가서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단체인 경우에는 미리 해설을 부탁하면 이곳의 문화해설가들의 해설을 통해서 슬로시티 대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갔어도 슬로시티 대흥의 안내지도를 받아서 돌아볼 수 있는데 크게 꼬부랑길을 걸으면서 주변의 문화재나 볼거리 등을 살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이나 해설가가 추천하는 코스를 걸으면서 돌아볼 수가 있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중리길 49

전화번호 : 041-331-3727

홈페이지 : <http://www.slowcitydh.com/>

**GUIDE  
TIP**

슬로시티 대흥에서는 귀농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슬로시티 대흥답사(10,000원), 흙 물감 만들기와 그리기(10,000원), 숲체험(10,000원), 자연발상체험(12,000원), 미니 여행북 만들기(10,000원)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방문자센터에서 신청하고 사전에 전화를 한 후 확인하고 가야 한다. 또한 민박을 운영하니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신청하고 머물 수 있다.

## 의좋은 형제 공원과 대흥장

슬로시티 예산 방문자센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만나는 것은 의좋은 형제 공원이다. 공원에 의좋은 형제 이야기에 나오는 형과 아우의 집을 재현해 놓았고 집안에서는 바느질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공원에는 연못이 있어 봄부터 가을까지는 수련이 피어나고 주변에는 철에 맞는 꽃들이 피어나 의좋은 형제 공원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 이곳에는 그네도 있어 한 번 타 볼 수 있고 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 참 좋다.

공원 내에는 의자를 많이 설치해 쉬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 놓아 여행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빌려주기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슬로시티 대흥을 돌아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2011년 여름부터 대흥 슬로시티 의좋은 형제 공원 일원에서 대흥장이 열리고 있다. 오일장 형태는 아니고 봄부터 가을까지 매달 두 번째 토요일에 열리고 있다. 대흥면 17개 마을 주민들이 키우고 수확한 제철 농산물을 선보이고 있는데 철에 따라 나오는 농산물도 다르다. 봄에는 주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나물 종류와 전 해에 생산된 콩이나 팥 등의 농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여름에는 이 지역에서 농사지은 마늘이나 감자 그리고 복숭아와 살구 등의 과일들이 나온다.

의좋은 형제 공원과 축제



가을에는 한 해 동안 농사지은 농산물이 나오는데 이지역의 주 과일인 사과가 나오는데 맛이 좋다. 뿐만 아니라 각종 먹거리도 많이 나온다. 국밥이나 국수 그리고 막걸리와 부침개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향수에 젖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농사지은 원료로 만든 청국장 된장 간장 등이 일 년 내 판매가 된다.

또 각종 공연과 체험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난전놀이나 보부상 놀이, 승무 공연 등 민속놀이 공연이 있고 제기차기, 딱지치기, 물총 쏘기, 교복입고 사진 찍기 등의 각종 체험활동을 할 수도 있다. 가족이 함께 와서 장도 보고 민속놀이도 함께 하면 더욱 의미가 있겠다.

의종은 형제 공원에서 슬로시티 대흥 방문자센터 쪽으로 마을의 건물 담벽에는 우리의 전통을 담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 우리의 미풍양속을 담은 내용이 가득한데 김장을 담그거나 연날리기 등 우리 민속의 문화를 담아낸 것들로 가득하다. 정겨움이 넘쳐흐르는 벽화를 보노라면 빙그레 웃음이 번진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전화번호 : 041-339-8282

## 대흥동헌과 의종은 형제비

슬로시티대흥의 방문자센터에서 안쪽으로 잠시 걸어가면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74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흥동헌 및 아문을 만날 수 있다. 조선 초인 태종 7년(1407)에 대흥동헌이 창건되었는데 1914년에 대흥면사무소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가 1979년 해체복원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흥동헌은 예산에 현존하는 유일한 관아 건물로 건물의 기본 구조가 잘 남아 있어 대흥지역의 역사를 증명하는 건축물로 건축학적 보존가치가 있다. 대흥 동헌 옆에는 KBS드라마 세트장이 있는데 그 옆에 오래된 벚나무가 있어 벚꽃이 피어나는 4월의 모습은 참 아름다워 사진작가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동헌 뒤뜰에는 ‘양이침범 비전칙화 주화매국(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이라고 적혀 있는 척화비가 있다. 척화비는 흥선 대원군이 쇄국정책으로 서양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 전국에 세웠던 비다. 비문에 쓰여 있는 대로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을 하자는 것이요 화친을 하자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동헌 뒤에는 화령옹주 태실과 태실비가 있다. 태실비는 중간에서 비스듬하게 두 동강이 난 것을 시멘트로 이어 놓았다.

대흥동헌 앞에는 의좋은 형제상이 있는데, 옛날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그 앞에는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는데 장년들이 다시 읽으면 감회가 새롭고 청소년들은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애를 느껴볼 수 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 형은 아우의 누리에, 아우는 형의 누리에 밤중에 벼단을 나르다 서로 만난다는 내용으로 의좋은 형제의 모습을 보여줘 교훈적인 내용이다.

그 옆에는 의좋은 형제의 실존인물 이성만, 이순 형제의 효성을 기리는



대흥동헌 장독대의 계절별 모습



의종은 형제상



이성만 이순 형제 효제비

비가 누각 속에 서 있다. 원래 가방교 옆에 있었는데 예당호가 생기며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이성만과 이순 형제가 모두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성만은 어머니의 분묘를 지키고 순 또한 아버지의 분묘를 지켰다고 하니 효의 근본을 다한 그들이 서로 의종계 지냈을 뿐만 아니라 효행에 있어서도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뿐만 아니라 3년의 복제를 마치고 아침에는 형이 아우 집으로 가고 저녁에는 아우가 형의 집을 찾았으며 한 가지 음식이 생겨도 서로 만나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고 하니 형제간의 정과 사랑을 깊게 느낄 수 있었고 이에 조정에서 후세인들의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의종은형제길 37

전화번호 : 041-339-8986(대흥면사무소)

**GUIDE TIP**

이곳은 의종은 형제의 집과 쟁기질 하는 모습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또 작은 연못이 있어 수련 등 수생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 방문자센터에서 자전거를 빌려 마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좋다. 봄부터 가을까지 두 번째 토요일에 열리는 대흥장에서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 함께 참여하면서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자.

## 대흥향교와 은행나무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대흥향교는 조선 태종 5년(1405)에 처음 지었다. 건물 배치는 앞쪽에 교육 공간으로 명륜당이 있고, 뒤쪽에 제사 공간인 대성전이 있어 전학후묘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향교 입구에 수령 600년이 된 은행나무가 있다. 높이 약 40m, 나뭇가지 넓이 약 40m의 고목으로, 은행나무 중앙에 느티나무가 기생하여 자라는 특이한 형태이며 두 종류의 나무가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자라고 있다.

교촌리 주민들은 이 나무를 신성시하고 있으며 매년 정월 초순에는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성황제를 올리고 있다. 늦가을에 만나는 대흥향교와 향교 앞의 은행나무는 아름다운 가을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662

전화번호 : 041-332-0552

대흥향교



## 대흥의 수호신 망태할아버지 석상

대흥면 동서리 입구에는 ‘망태할아버지 석상’이 세워져 있다. 각 마을마다 수호신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는 동서리 망태할아버지 석상이 서 있다. 이 석상은 화강암을 통째로 다듬은 돌부처로 무표정하면서도 인자한 얼굴로 귀가 큰 것이 특징이다. 망태는 ‘대흥고을의 큰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데 전염병과 풍수에 의해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에 망태기를 짊어진 노인이 대흥에 돌부처를 세우라고 알려주면서 이곳은 지형적으로 돌부처를 세워야 좋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 이후 누군가 석상을 흠치려 하거나 석상을 옮기자 마을에 우환이 많이 일어났는데 망태 할아버지를 건드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했고 본래의 위치에 세웠다고 한다.

옛날에는 제사의 대상이 되어 제사를 지내다가 중단되었고 1999년부터 부활되어 매년 동제를 지내고 있다.

망태할아버지 석상



## 이한직 가옥

예산에는 생각보다 많은 고택이 있는데 슬로시티 대흥에도 유서 깊은 고택이 있다. 바로 심암 조두순이 살았다고 전해오는 이한직 가옥이다. 조선 후기 문신인 조두순은 순조 26년(1826)에 장원급제하여 여러 자리를 거쳐 영의정까지 이르렀고 순조부터 고종까지 여러 왕을 섬겼고 특히 흥선 대원군의 명으로 천주교 탄압에 앞장섰다.

1987년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287호로 지정된 이한직 가옥은 슬로시티 대흥의 꼬부랑길을 걸으면서 마을을 살펴보다 보면 2코스 느낌길에서 만날 수 있다. 가옥은 각각 ㄱ자형 안채와 행랑채, 대문이 딸린 다른 건물 1동이 ㄷ자형을 이루고 있고 정면은 행랑채와 대문 건물로 앞면 6칸이고 옆면 한 칸으로 이뤄져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고 건물 중앙에 마루가 있고 소유는 통일교 재단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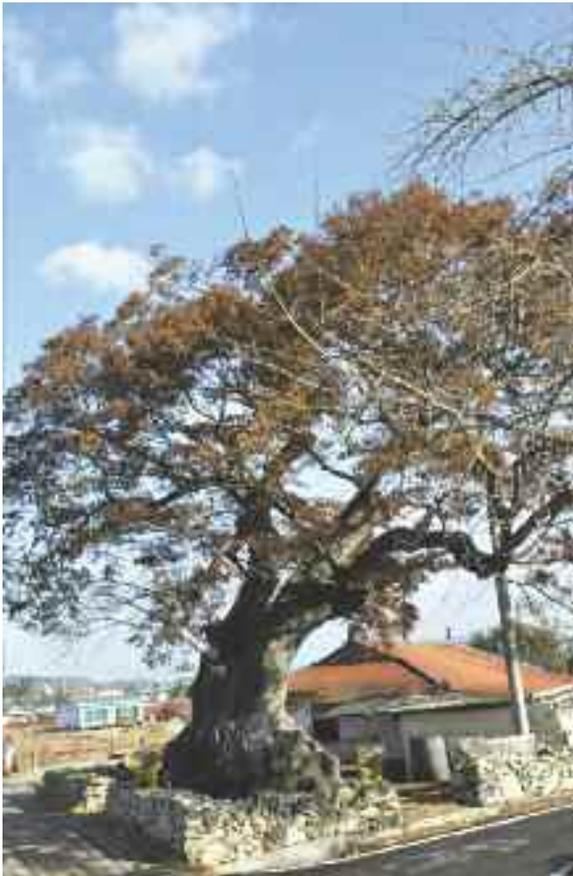
충남 예산군 대흥면 동서길 26-4



## 충남에서 가장 오래된 상중리 느티나무

상중리에는 정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660년에 소정방이 이끄는 나당연합군이 백제 부흥군의 마지막 거점인 임존성을 공격할 때 이 나무에 배를 땄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어 배를 매어 놓았다는 배맨나무도 불리기도 한다. 충청남도 내 가장 오래된 나무로 공인되었는데 천 년이 넘었다고 한다.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된 충청남도 기념물 160호인 이 나무의 높이는 15m이며 둘레는 약 10m로 한눈에 보기에 그 자태가 웅장하다. 마을에서는 이 느티나무를 매

우 신성시해서 2월 초 하룻날 제를 지내고, 칠월칠석날에는 두레 먹이를 하면서 간단하게 잔을 붓고 고사를 지내왔다. 이 마을 사람들은 봄철에 나뭇잎이 피는 것을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고 한다.



주소 : 예산군 대흥면 중리길 35-11

##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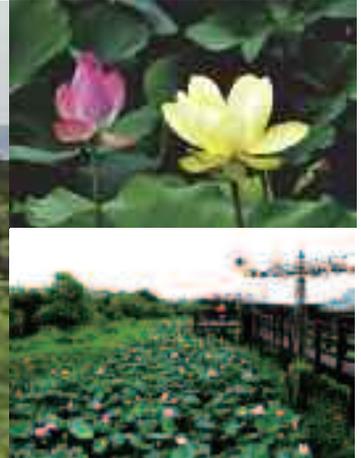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에는 연꽃 등 수생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다. 우리물고기 생태체험관에서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가면 중앙생태공원에 들어가게 된다. 생태공원에는 나무로 된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데크를 따라서 걸어가노라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수련과 연꽃이, 여름에는 배롱나무와 능소화가 아름답다.

2009년 조성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은 21억 원을 투자해 전망대 두 군데와 조망대 세 군데를 설치했고 이곳에는 창포와 연꽃 학습원을 조성하였으며 500m에 이르는 수중산책로까지 설치하였다. 늦은 가을부터 초봄까지 조류관찰대에서는 예당호의 아름다운 풍광과 청둥오리 등 저수지에 있는 텃새와 철새들도 한 눈에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멸종위기 식물인 매화마름이 자생하고 있고 수련이나 연꽃이 피어나 수생식물에 대한 생태교육장으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매년 쇠오리 등 많은 철새가 예당호를 찾아오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생태공원 데크로드 주변에 예산군에서 방류한 참붕어 치어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앙생태공원



중앙생태공원의 연꽃



## 예당 우리물고기 생태체험관

예당호에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생겨났는데 바로 ‘예당 우리물고기 생태체험관’이다. 물고기 체험관은 체험과 우리 물고기 생태 전시관, 우리 물고기 포토갤러리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2층 전시관에는 30여 종의 다양한 민물고기의 모형과 물고기를 수조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이곳에는 그물 등 물고기 잡는 도구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3층 포토갤러리에는 계절별 예당호의 풍경과 각종 동식물 등 생태경관 사진을 관람할 수 있다. 옥상 전망대에서는 예당호를 관망할 수 있고 겨울에는 망원경을 통해 철새를 관찰할 수 있으며, 건너편 의좋은 형제 공원의 모습과 예당호, 생태공원까지 넓게 볼 수 있다.

우리물고기 생태관



## 대흥 슬로시티의 느린 꼬부랑길

전국적으로 많은 걷기 길이 있는데 대흥에도 느린 꼬부랑길이 있다. ‘느린꼬부랑길’은 옛이야기길, 느림길, 사랑길로 이어지고 있다. 이곳 ‘슬로시티 대흥’에 오면 대흥에 내려오는 옛이야기를 생각하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옛이야기길(5.1km·90분)’과 자연의 지혜로움에 귀 기울이며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는 ‘느림길(4.6km·60분)’, 바쁜 일상 속에 잊고 지냈던 사랑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사랑길(3.3km·50분)이 있는데 전 코스를 걷는데 4시간이면 족하다.

1코스는 ‘옛이야기길’로 대흥슬로시티 방문자센터에서 출발하여 관록재들을 지나 봉수산 자연휴양림으로 이어지고 대흥동헌에서 끝난다. 출발해서 배 맨 나무를 지나는 구간을 이성만 형제길이라고 한다. 여기를 출발해서 봉수산 휴양림 구간을 임존성수렛길이라고 하는데 백제부흥군을 위하여 보급품을 수레로 날랐다는 길이다. 봉수산에 오르면서 예당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곳을 백제부흥의 길로 부른다. 이곳에서 마을 아래로 내려오는 길에 벚나무가 있어 벚꽃길로 불리고 마을을 지나고 대흥동헌 앞을 지나 출발지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곳은 다랭이 논과 울창한 숲을 만나볼 수 있다.

1코스 | 옛이야기 길



2코스 '느림길은 방문자센터에서 출발해 대흥동헌을 지나 대흥향교 그리고 이한직 가옥을 지나 다시 방문자센터로 이어진다. 애기폭포까지 물 따라 걷는 길로 이어지고 그 뒤로 이어지는 사색의 길은 펼쳐지는 자연과의 교감을 나누면서 걷고, 보부상길은 예산과 흥성을 오가는 보부상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걸어 보고, 서로살림길은 대흥향교 앞에 있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보며 공존의 미학을 배울 수 있으며, 언덕바지길은 너른 교촌리의 들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농촌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2코스 | 느림길



3코스는 사랑길로 방문자센터에서 출발하여 이한직가옥과 대흥향교, 삼신당터를 지나 망태할아버지 석상까지이다. 이 길은 완만한 길로 이뤄져 있는데 눈두렁길은 교촌리의 들판을 지나면서 자연 속에 빠져들고, 소물길은 소에게 물을 먹이던 샘터를 지나는 길이고, 사랑이 꽃피는 길은 삼신당터를 지나 사랑을 빌어보고 함께한 가족이나 연인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걸어보도록 하자.

3코스 | 사랑길



## 임존성과 봉수산

대흥에서 예당호 반대편을 보면 산이 보이는데 이 산이 바로 봉수산이고 이 산으로 오르는 길에 예산10경으로 지정된 임존성을 만날 수 있다.

임존성에 오르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대흥면사무소에서 오르는 방법, 대련사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오르는 방법, 봉수산 휴양림을 지나 오르는 방법이 있고 대흥에서 광시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마사리 마을을 통해서 오르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은 모두 걸어서 오르는 방법이고 마사리로 오르는 길은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대흥에서 광시 쪽으로 가다가 소 조형물들이 서 있는 곳에서 자동차로 오 분 정도 지나면 마을회관이 나오고 마을회관에서 자동차로 1분쯤 가면 오른쪽으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임존성으로 이어지는 임도와 연결이 된다. 사실 급하지 않으면 등산을 겸해서 오르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면 임도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임존성 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돌아보

임존성



임존성 백제 복국운동 기념비



는 것도 좋다. 남문지에서 걸어서 30분쯤 걸어가면 봉수산 정상에 닿는다. 내려다보이는 예당호의 모습이 아름답다.

임존성은 1963년 사적 제90호로 지정되었는데 둘레는 2,450m로 주변에 봉수산과 주위의 봉우리를 둘러싸고 있어 봉수산성이라고도 한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생화가 많이 피어 오르는 길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이 산성은 주류성로 비정되는 한산면의 건지산성과 함께 백제 부흥군의 거점이었다. 그러나 백제부흥운동은 유인궤 등이 이끄는 나당연합군의 공격과 내부 분열로 이 성을 빼앗김으로써 실패하고 말았으니 아픈 역사를 머금고 있다. 지금은 복원되어 있고 우물터에는 우물이 있다.

우물터에서 성벽으로 가면 성벽과 붙어있는 묘순이 바위가 있다. 임존성 묘순이 바위는 아픈 전설을 품고 있는데 전해오는 이야기라 주인공의 이름이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의 맥으로 전해오는 내용이다.

주소 : 충남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전화 : 041-339-7321

**GUIDE  
TIP**

대련사에서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임존성에 닿을 수 있는데 자동차를 이용하려면 마사리에서 임도를 통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주차장이 넓지 않고 오르내리는 자동차가 비켜가기가 쉽지 않다. 산 불감시초소 근처의 쉼터가 예당호 사진을 담는 포인트이다. 대련사에 들러서 잠시 돌아본 후에 임존성에 오르는 것도 좋고 임존성에서 내려와서 관음리에 있는 최익현 선생 묘소를 돌아본 후에 대흥슬로시티로 향하는 것도 좋다.



## 봉수산 자연휴양림

지금 전국 어디를 여행하여도 자연휴양림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의 숙박이나 휴식은 만족도가 높다. 특히 숲속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주말은 예약이 쉽지 않을 정도이다. 예산의 봉수산에도 자연휴양림이 있어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해발 484m의 봉수산 자락, 아름다운 예당호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백제부흥의 거점인 임존성도 근처에 있어 자연속의 쾌적한 휴양 공간이다. 이곳은 다른 휴양림과 달리 주변에 많은 문화유적지와 슬로시티 대흥이 있어 함께 돌아볼 수 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에서는 5인실, 6인실, 8인실, 16인실의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이 있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각 방에는 TV, 냉장고, 전기렌지, 식기류, 취사도구, 싱크대, 이불장, 침구, 에어컨 등이 구비되어 있어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 2015년에 옆에 봉수산 수목원이 문을 열어 휴양림에 머물면서 수목원을 돌아볼 수 있어 더 좋다.

휴양림의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성수기나 주말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므로 예약개시(전달 1일) 즉시 해야 예약이 가능하다. 휴양림 입실은 당일 오후 2시 이후 가능하고 퇴실은 다음날 열두시까지이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임존성길 153 / 전화 : 041-339-8936 (041) 339-8936~8

홈페이지 : <http://www.bongsoosan.com/>



## 참 아름다운 봉수산 수목원

봉수산 수목원은 봉수산 자연휴양림 바로 옆에 있어 휴양림을 찾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 있다. 11만4651㎡ 부지에 방문자센터 1동(지상2층, 연면적 598㎡), 전시온실을 포함한 온실 3동(연면적 547㎡), 휴식공간인 너와집 2동(연면적 118㎡)과 관찰로 등으로 구성되었다.

소나무와 참나무를 비롯한 온대지방 자생수목 등 교목 151종과 화살나무, 황매화 등 257종의 관목을 포함해 고비, 금낭화, 꽃 도라지를 비롯한 1048종의 초본 등 1456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12개의 테마별 야외식물원이 조성돼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시온실은 테마별로 식물자원을 관람할 수 있으며 온실연못에서는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이곳을 휴식의 공간인 동시에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수목원을 중심으로 숲 해설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의좋은 형제공원, 휴양림 및 황새공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예산군이 충남의 관광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수목원을 한 바퀴 돌아보는 데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주소 : 충남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470-1번지 / 전화 : 041-339-7623

### GUIDE TIP

봉수산수목원은 9시에 문을 열고 하절기(3월~10월)는 오후 6시에 동절기(11월~2월)는 오후 5시에 문을 닫고 입장료는 받지 않는다.

## 예산 송림사와 송림사 부도

예산 송림사는 대한불교법화종에 속해 있는 사찰이다. 예산읍에서 자동차로 대회교차로를 지나 갈신리에 접어들어 다시 2~3분 정도 가면 대물리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이곳에서 우회전하여 5분 정도 지나면 마을길이 나오는데, 마을길에서 우회전하여 2분 정도 더 가면 송림사 주차장에 닿는다.

송림사는 인근에서 발굴된 유물로 보아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보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송림사는 겨우 터만이 전해 오다가 작은 규모로 새로 지어진 사찰이다. 송림사의 건물로는 극락전과 요사채 2동이 있으며 송림사 유물로는 충청남도의 유형문화재 제180호로 지정된 팔각원당형부도가 있다. 송림사 부도는 고려 때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 말의 고승 도선의 부도라고도 하는데 이 부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경찰서장 관저로 옮겨 놓은 것을 다시 찾아온 사연도 지니고 있다. 부도의 규모는 높이 2.4m의 이 팔각원당형으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에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양이 양각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찰은 근래에 다시 지어졌지만 부도는 문화재로 손색이 없다.

주소 : 충남 예산군 대흥면 대물리 45-1

전화 : 041-335-6161



## 박기성 가옥

예산에 생각보다 전통가옥이 많은데 박기성 가옥도 그 중 한 곳이다. 대흥면 하탄방리 도로변에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박기성 가옥은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286호로 지정되었고 박기성이 소유하고 있다. 이 집은 창성부사를 지낸 박범성이 건립한 가옥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어진 연대는 알 수 없다. 가옥은 우진각 지붕에 겹처마로 된 건물인데 후대에 시멘트로 기단을 보강하였으며 자연석 주춧돌 위에 사각기둥을 세웠다.

이집은 정면이 4칸이고 측면은 2칸이다. 전면 1칸에는 툇마루가 놓여 있고 건물 좌측 1칸은 누각으로 한 단 높여서 건조되었다. 건물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 여름에는 이곳에서 연꽃이 피어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다. 송림사를 돌아본 후에 함께 돌아보면 더 좋다.

주소 : 충남 예산군 대흥면 하탄방리 102번지



# 09 광시면

대련사 최익현묘와 재실 광시한우테마공원 한국인장박물관 황새공원 쌍지암

(3시간 30분 ~ 4시간)



청양군과 홍성군에 접해 있는 광시면은 ‘한우고기’로 널리 알려져 있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한우타운이 형성되었고 황새공원이 문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익현 묘와 김한중 의사 생가 등 애국지사들의 흔적이 남아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 향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대련사

예산에서 광시 쪽으로 가다가 동산삼거리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대련사 이정표가 보이는데 이곳에서 마을길을 따라 십 분 정도 올라가면 대련사 주차장에 도착하게 된다. 절 앞에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700년을 훨씬 넘긴 고목이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극락전이 눈에 들어온다. 대련사는 수덕사의 말사인데 서기 656년(의자왕 16년)에 의각과 도침에 의해서 창건하였다고 한다. 대련사의 명칭에 대해서는 절집 위의 임존산성에 연당과 연정이 있어서 절 이름을 대련사(大蓮寺)라고 하였다고 한다.

현재 대련사에는 극락전과 노전, 산신각, 요사채가 있다.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77호로 지정된 극락전은 본래는 원통보전이라고 하였으나 1975년 해체 보수할 때 《대련사법당중수상량문》과 함께 ‘극락보전’이라는 현판이 발견되어 극락전으로 바꾸었다.

대련사 극락전은 정면 두 칸, 측면 두 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로 양옆에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풍판이 달려 있다. 대련사의 유물로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78호로 지정된 삼층석탑이 있는데 높이 2m 60cm이며, 2층 기단에 3층의 탑신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상륜부가 있다.

봉수산에 위치한 대련사는 백제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사찰이다. 백제가 신라에게 최후까지 항전을 했던 임존성 가까이 있는데 이곳은 백제의 유민을 이끌고 백제 부흥군을 결성하고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물리쳤던 곳이다. 이 절을 창건한 도침스님이 백제 부흥군을 이끌고 끝까지 항전을 하도록 하였으니 정말 인연이 깊은 사찰이다.



대련사 극락전

대련사 창건 후에도 통일신라 때인 845년(문성왕 7년)에 무염스님이 중창하였고, 조선 인조 때 중수했다가 숙종 때 불이 나서 당우 전체가 불에 탔다가 영조 때 중수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작은 절집으로 봉수산 정상이나 임존성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이곳을 지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 함께 이곳을 돌아보기도 한다.

주소 : 도로명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동산리 산11  
전화번호 : 041-332-0408



대련사 삼층석탑

## 최익현 선생 묘와 재실

예산에서 청양 쪽으로 가다보면 관음리 도로변에 최익현 선생 묘를 알리는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다. 도로변에 홍살문이 있는데 잠시 안쪽으로 들어가면 최익현 선생의 묘와 재실을 만나게 된다. 최익현 선생의 묘는 1982년 8월 3일 충청남도의 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었다.

최익현 선생은 1833년에 포천에서 출생하였고 이항로 선생으로부터 공부를 하여 정시문과에 올랐다. 1868년 토목공사로 인해 국민의 부담 가중과 당백전의 발행에 따른 재정적 파탄과 1873년 대원군 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 대원군이 물러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선생도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906년 6월 제자 임병찬과 순창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 유배되었다. 일본에서도 일본인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며 단식을 하여 끝내 순국하였다. 그의 묘는 1907년 논산군 노성면의 국도변에 만들었으나 참배객이 많게 되자 일제의 명령으로 1910년 이곳에 이장되었고 무덤 옆에는 이선근이 글을 짓고 김기승이 글씨를 쓴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1962년에는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묘소 앞에는 최익현 선생의 재실이 있는데 논산에 있던 면암 선생의 묘를 이장할 때 민가를 매입하여 재실로 사용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조선시대 전통가옥의 배치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ㄱ’자 형의 안채와 ‘-’자 형의 사랑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ㄷ’자 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최익현 선생 재실은 전통가옥을 재실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흔치 않은 예로서, 건축구조와 양식적인 측면에서 조선후기의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주소 :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산21번지

최익현 선생 재실(왼쪽), 묘(오른쪽)



## 광시 한우 테마공원

예산에는 먹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중 광시의 한우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관광 버스를 타고 한우고기를 먹으러 오기도 한다. 예산에서 광시로 갈 때 광시 면소재지 입구에 광시 한우 테마공원이 문을 열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 되고 있다.

이곳은 글자 그대로 한우 테마 공원인데 이 공원에는 소의 조형물이 많이 있다. 한우테마공원 안내판도 한우의 모양을 하고 있다. 작은 연못도 있고 연못에는 물레방아가 있다. 이곳은 암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한 그림 앞에 송아지의 조형물이 있는데 포토존에서 쟁기를 잡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공원에는 외양간이 있고 그 안에서 소가 여물을 먹는 모습 등 각종 조형물들이 많이 있어 산책하면서 돌아보기에 좋다. 또한 이곳은 작은 공연장도 있어 작은 공연도 할 수 있다. 이곳에는 미끄럼틀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 가족이 함께 와서 잠시 쉬어가기에 좋다.

광시 한우 상차림



## 한국문인인장박물관

한국문인인장박물관은 예로부터 문인들이 책을 발행한 뒤 책 뒤에 낙관처럼 사용하였던 인장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근대와 현대의 대표적인 문인들의 인장이 망라되어 있는데 청록과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의 인장

을 비롯하여 이광수, 염상섭, 김동인, 현진건, 박종화, 이효석, 김유정, 이상, 노천명, 김동리, 서정주, 오영수 등 이미 천여 점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

이재인 박물관 대표는 설립자이자 관장을 맡고 있는데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소년시절에 오영수 소설가의 제자로 선생의 집에서 희귀한 인장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스승에게서 흥선 대원군의 인장을 물려받은 이후로 인장을 수집하고 그 인장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한국문인인장박물관을 지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막도장이라 불리는 나무도장부터 원형 인장, 사각 인장, 초대형 인장 등 다양한 모양의 인장들이 많이 있다. 이곳은 인장을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장 파기 등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서 인장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고 각종 문학 행사도 열어 지역의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박물관 주변에는 문학비 등이 세워져 있어 함께 돌아보면서 문학의 향기에 젖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자유학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인장박물관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운산2길 111-6

전화번호 : 041-332-0592 FAX : 041-332-1588

홈페이지 : <http://한국인장박물관.kr/>

## 천연기념물 황새가 노니는 황새공원

‘예산’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예당호’나 ‘수덕사’였는데 이제 새로운 단어 하나가 추가되었다. 바로 ‘황새’인데 2015년 6월 9일 황새공원이 문을 열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고 이를 통하여 예산은 명실 공히 황새의 고장이 되었다. 그리하여 황새공원은 예산10경에 포함이 되었고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은 예부터 황새와 인연이 많다. 예산군은 과거 황새 번식지로서 역사적, 생태학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대술면 꺾곡리 일대로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설치한 황새 서식지 기념 표지석 한 개와 1963년 정부에서 설치한 황새번식지임을 알리는 표지석 한 개가 존재하여 이 일대가 황새 서식지였음이 증명되고 있다.



황새공원(위), 황새공원 먹이활동(아래), 황새알 부화 체험(오른쪽)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초반에 황새가 멸종되어 자취를 감추었는데 독일과 러시아에서 황새를 들여와 부화에 성공하였고 전국적인 공모에 예산군이 응모하여 예산에 황새가 등지를 틀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한국교원대학에서 부화를 하고 보호하면서 또 기르던 황새 30쌍이 교원대학교에서 2015년 6월 18일 예산군 광시면 황새공원으로 옮겨왔고 환영행사를 하였다.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가 1970년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 지 43년 만에 예산군 광시면 황새공원에 자리를 잡았다. 황새는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텃새였으나, 한국전쟁과 산업화로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1971년 충북 음성에서 마지막 텃새 황새 한 쌍이 발견됐으나, 수컷이 밀렵꾼에 의해서 죽고, 홀로 남은 암컷도 1983년까지 무정란만을 낳다가 1994년에 죽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황새가 존재하지 않다가 1996년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에서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네 마리의 황새를 기탁 받아 인공 및 자연부화에 성공했다. 황새공원으로 이주한 황새 가운데 일부를 야생적응 훈련을 거쳐 어른 황새 6마리와 2015년 태어난 어린 황새 2마리 등 모두 8마리를 자연 속으로 돌려보냈다.

주차장에서 잠시 걸어가면 황새문화관이 있는데 이곳에는 황새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단체인 경우 예약을 하면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서 황새공원과 황새에 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황새문화관 2층에는 황새 오키리나 만들기 등 각종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광시면 시목대리길 62-19

전화 : 041-339-8272 / 홈페이지 : <http://www.yesanstork.net/>

**GUIDE TIP**

황새공원은 9시에 문을 열고 하절기(3월~10월)는 오후 6시에 동절기(11월~2월)는 오후 5시에 문을 닫고 입장료는 받지 않는데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 그리고 추석과 설날은 휴관한다. 이곳은 음식점은 없으나 2층 휴게실에서 간단한 음료를 판매하니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문화관 옆의 훈련장에서 황새에게 먹이를 주는데 이 시간에 가면 황새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단체 해설을 이용할 시는 미리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한 후에 방문하면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서 황새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조류독감이 발생할 시는 문을 닫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알아본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 사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쌍지암

광시면 대리 백월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절 쌍지암. 그리 큰 절집은 아니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찾는 절집이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작은 암자가 사실은 도깨비절로 더 유명하다. 암자에 거주하시던 스님 세 분이 까닭 없이 죽어 나가거나 암자를 떠나는 일이 일어났는데 스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중에서도 도깨비불과 기괴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거주하시던 스님들마저 귀신에 시달리다 쓰러진데서 생겨난 데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지금은 선묘스님이 아름다운 절집으로 만들어 놓았다. 백월산 아름다운 전경과 사찰 주변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쌍지암은 특별한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에 지어진 절집이지만 아담하면서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무량수전과 산신각이 있고 최근에는 향적당을 지었다. 쌍지암 주지인 선묘스님은 누구든지 절을 찾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차 한 잔을 대접하고 밥 때가 되면 공양도 할 수 있게 한다. 운이 좋은 날이면 스님께서 직접 담근 곡차도 마실 수 있다.

쌍지암 연못





쌍지암 무량수전

쌍지암은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다.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는 각종 꽃들이 피어나고 겨울에는 눈꽃이 피어난다. 요즘도 각종 꽃들이 피어나 쌍지암에 들어서면 마음이 환해진다. 선묘스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절 주변을 가꾼다. 잡초를 뽑고 꽃을 가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스님은 사람들을 참 좋아하신다. 누구든지 스님을 만나고 나면 쌍지암을 또 찾게 된다. 그것은 선묘스님이 가지고 있는 온화한 미소와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쌍지암에는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는 수련과 연꽃이 피어나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쌍지암에 새로운 휴식공간이 태어났다. 오랫동안 공사를 했던 건물이 완성되었는데 바로 향적당이다. 이곳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마음과 몸이 피곤할 때 언제든지 찾아와 쉬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전화 : 041-333-9619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대리길 208-52

카페 : <http://cafe.naver.com/ssangjiam>

**GUIDE  
TIP**

쌍지암은 오래된 절집이 아니지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절집이다. 무량수전과 산신각이 지어졌고 지금은 여행자들의 숙소인 향적당이 있어 점차 많은 여행객이 찾고 있다.

## 김한중 의사 생가와 기념관

예로부터 예산은 충절의 고장인데 광시면 신흥리에서 태어난 김한중 의사도 애국지사 중 한 분이다. 김한중 의사는 1883년 1월 광시면 신흥리 70번지에서 김재정 선생과 부인 광주안씨 사이의 외아들로 태어나 1921년 8월 21일 대구 형무소에서 38세의 나이로 순국하셨다. 그는 자라면서 아버지와 숙부 김재풍에게 한문을 배우고 나라사랑의 의지를 길렀다.

김한중 의사는 34세 되던 1916년 조선 총독이 부역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철영 등 동지들과 더불어 조선 총독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사전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그는 대한광복회에 가입하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며 아울러 친일부호를 처단하다가 한 동지 가족의 실수로 왜정에 체포되었다. 대구형무소에서 4년간 옥고를 치르다 38세의 나이로 사형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의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 3월 1일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이곳에는 2000년 7월에 복원한 그의 생가가 있고 2007년 11월에 김한중 의사

김한중 의사 생가



GUIDE  
TIP

이곳에서는 각종 체험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전화로 기념관측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  
매년 김한중 의사를 기리기 위해서 문예대회를 열기도 한다.

의 기념관과 사당인 광복사를 개관하였다. 김한중 의사의 손자인 김경식의 노력으로 이곳에 그의 기념관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정려관, 일우관, 체험관 등이 있어 그의 삶과 애국정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매년 사당인 광복사에서 봉안제향을 하고 있는데 김한중 의사 유적지에는 그의 생가와 기념관, 사당과 효자문 등이 있다. 기념관의 광복관에는 대한광복회의 활동상 및 동지들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고, 정려관에는 김한중 의사의 가문의 독립투사 아홉 분과 효자 두 분의 효행 내용이, 그리고 일우관에는 그의 삶과 독립운동을 담은 유품들과 김한중 의사의 친필서한 및 판결문 등이 전시되어 있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장산신흥길 283-12 / 전화 : 041-333-3072

기념관 홈페이지 : <http://www.ilwoomemory.co.kr/>

김한중 의사 기념관



# 예산문화의 중심 남동부 지역

**예산읍** 향천사 / 탈해사 / 예산향교  
예산산성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신현상의 사당 일연각과 묘  
외곽도로 벚꽃 / 예산성당 / 호서은행  
예산 평화의 소녀상 / 예산장 /  
백종원국밥거리와 예산시네마

**대술면** 분례숲길 / 한국도종씨앗박물관  
이남규 고택과 기념관  
예산 상항리 석불  
이광임 고택 / 강민첨 장군 묘  
이산해 묘

**신양면** 조익의 묘와 도산서원  
일산이수정  
비림박물관





## 예산문화의 중심 남동부 지역

현재 예산 문화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산읍과 고택과 묘 그리고 방산저수지를 품고 있는 대술면 그리고 추사의 채취가 남아있는 일산이수정이 있는 신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보물 이상의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소소한 문화유적이 많이 있고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문화를 담아내고 있는 지역이다.

예산읍은 예산 문화를 선도하는 예산문화원이 있는데 예산군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각종 취미활동을 하거나 강좌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예산문화원에서 예산시네마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예산문예회관에서는 각종 공연과 전시를 통해서 예산군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사단법인 한국예총 예산지부는 각 지부별로 각종 예술 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예술작품의 공연이나 전시를 통해서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예산읍에도 여행을 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많은 곳이 있다. 단풍이 아름다운 향천사와 손가락 바위의 탈해사 등의 사찰과 1,100년 전에 예산지명을 탄생시킨 예산산성, 예산 근대문화유산인 호서은행과 예산성당이 있다. 또한 분수대 앞에 예산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었고 백종원 국밥거리가 조성되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신호탄을 올리고 있다. 예전에는 영화를 보기 위하여 홍성이나 천안까지 가야 했지만 예산시네마가 들어서면서 예산군민들도 예산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예산오일장이나 역전오일장에서 맛보는 정겨움은 전통 오일장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대술면은 야산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소설 「분례기」의 배경이 되었던 곳에 분례숲길 걷기길로 조성되어 문학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숲길이고, 예산에 새롭게 태어난 한국토종씨앗박물관은 우리의 토종씨앗을 연구하고 보존·전시를 통

하여 우리 토종씨앗의 소중함을 지키고 있으며 각종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이남규고택과 기념관에서 이남규 가의 애국심을 배우고 이광임 고택을 돌아본 후에 강민침 장군 묘와 이산해 묘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업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양면은 조식의 묘와 도산서원이 있고 추사의 향기가 남아있는 일산이수정과 숨겨진 여행지 비림박물관이 있다. 비석의 수풀 속에서 만나는 향기로움을 간직하고 돌아보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다. 신양면도 대술과 마찬가지로 야산이 많이 있고 일부는 예당호와 접하고 있어 아름다운 산과 예당호의 멋스러움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



# 10 예산읍



예산의 중심에 있는 예산읍은 예산의 생활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금오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예산읍에는 유명한 향천사와 탈해사가 있다. 최근에 예산시네마가 문을 열어 예산에서도 개봉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예산이 고향인 요리사 백종원의 이름을 따 백종원국밥거리가 조성되어 구도심에 떡거리 메카가 조성되었다

## 가을 단풍이 참 아름다운 향천사

예산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 가야산이나 덕숭산 등의 단풍도 아름답지만 예산읍 금오산자락에 위치한 향천사는 가을 단풍이 참 아름답다. 단풍나무와 은행나무의 단풍은 늦가을에 더 깊은 정취를 자아낸다.

향천사(香泉寺)는 의자왕 16년(656년)에 의각스님이 세웠다고 한다. 의각스님이 중국에서 만든 부처를 돌배에 싣고 그 당시의 오산현 불포해안(신암면 창소리)에 도착한 다음에 절터를 마련하려고 배에서 한 달 동안 정성으로 예불을 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금까마귀 한 쌍이 날아와 배 주변을 돌고 사라졌다. 그 뒤를 밟아보니 현 향천사 자리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기이하게 여겨 주위를 살펴보니 향 내음이 그윽하였다. 이렇게 해서 산 이름이 금오산으로 절은 향천사가 되었다고 전해온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천천히 걸어서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극락전이 있고 극락전 옆에 나한전이 있다. 나한전 앞에는 충남문화재자료 제174호로 지정된 향천사 9층 석탑이 있는데 향천사의 2대 주지인 도장(道藏)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탑은 임진왜란 때 파손되어 탑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정겹게 다가온다. 극락전 안에는 조선시대의 삼존불상이 봉안되어 있고 주불은 아미타여래좌상이며,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협시불이고 극락전 앞에는 당간지주가 있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5분 정도 가면 충남문화재자료 제173호인 천불전에 닿는다. 천불전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 규모의 건물로 의각스님이 옥돌로 조성한

높이 15cm 정도의 각기 다른 모양으로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3053위의 부처님을 모신 곳으로, 임진왜란 등 전란 과정에서 극락전과 천불전이 철거되고 멸운스님에 의해 중건되었으나 현재는 새불전이 들어서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으며 1515불만이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천불전 서쪽에 충남문화재 자료 제179호인 부도가 2기 있는데, 의각대사 부도 1기와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조직해 금산전투에 참가했던 멸운대사의 부도 1기로, 의각 부도는 조각이 정교하며 신라나 고려 때 것과는 전혀 다른 작법을 보여준다고 한다.

보통 부도는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봉안한 묘탑'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흔히 일반인들의 무덤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도를 스님의 사리를 모



신 일종의 무덤으로 생각한다면 향천사 멸운대사의 부도에 새겨진 초상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향천사 부도밭에 있는 멸운대사의 부도의 몸통에는 ‘멸운당대사혜희지탑(滅雲堂大師惠希之塔)’이라고 새겨놓았다. 가까이 다가 가면 팔각 지붕돌의 정면으로 내민 추녀마루 끝에 작은 인물상이 하나 조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곳에서 만나는 고승의 모습은 따뜻한 인상을 가진 아저씨처럼 다가와 인간적인 모습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향천사 경내에 들어서면 처음 갖는 느낌은 경내가 깨끗하다는 것이다. 그 곳을 방문할 때면 두 번에 한 번 꼴은 스님이 절 마당을 비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대웅전 앞뜰은 물론 주차장에서 절까지 이어지는 오솔길 또한 마찬가지이다. 봄에는 백일홍이 붉게 핀 천불전이 아름다우며 가을에는 단풍이 향천사 일대를 붉게 물들인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사로 117-20

전화번호 : 041-335-3556

**GUIDE  
TIP**

향천사는 늦은 가을에 가야 가장 아름답다. 은행나무와 단풍나무의 아름다운 가을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멸운대사의 부도를 꼭 돌아보고 부도에 새겨진 인물상을 꼭 만나보는 것이 좋다.

## 손가락 바위가 유명한 탈해사

예산에서 신례원 쪽으로 가다가 관작전문농공단지를 지나 민속촌가든 쪽으로 우회전해서 마을 길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 탈해사 체육공원을 만나게 된다. 그곳에 주차장이 있지만 자동차를 운전해서 절로 올라갈 수 있는데 가파르고 구불구불 이어져 겨울에는 운전이 조심을 해야 한다. 입구에서 5분 정도 자동차로 오르면 탈해사에 도착한다. 탈해사가 위치한 용굴산의 높이가 440m인데 8부능선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까마득하고 멀리 수철리 저수지가 까마득하게 보인다.

탈해사는 천삼백여 년 전 의자왕 십육 년에 의각선사가 향천사를 창건하고 그 후 법력으로 금오산 명맥인 용비산의 용비봉 아래 머문 것이 출발이었다. 그 후 멸운스님이 법당을 창건하여 탈해사라 이름 짓고 참선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탈해사가 불탔는데 이종학 스님이 1970년대 중반에 현재의 탈해사를 중건하였다.

탈해사(脫解寺)는 그리 큰 절집은 아니다. 하지만 풍광이 좋다. 건축물로는 극락전, 요사채, 산신각, 동굴법당인 명부전 등이 있으나 이들 건물과 극락전에 안



치되어 있는 불상들은 모두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극락전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요사채 중 한 건물은 정면 여섯 칸, 측면 두 칸으로 법당을 겸하고 있으며, 나머지 건물은 정면 네 칸, 측면 두 칸 규모의 건물이다. 산신각에는 목각 산신상이 봉안되어 있다.

탈해사 경내에서 서북쪽으로 약 오십여 미터 가면 가파른 산 경사면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마치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 같아 손가락 바위란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경내에 자리 잡은 손가락 바위는 마치 중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 같은 모습이다. 이 바위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유래가 있다.

옛날 탈해사에 도승이 한 분 계셨다. 자기 딸을 공양주로 보냈는데 산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있던 장수가 그 처녀의 미모를 보고 탐을 냈다. 이를 안 도승이 손가락바위 끝에서 턱걸이 백번하기 내기를 했다. 그런데 장수는 턱걸이를 아흔아홉 번 하고 힘이 없어 신 길 아래 계곡으로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장수 턱걸이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294-117

전화 : 041-334-7798

**GUIDE  
TIP**

탈해사를 가는 방법은 향천사에서 등산을 하면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체력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예산읍에서 신례원 쪽으로 가다가 민속촌 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잠시 수철리저수지 쪽으로 가다보면 주차장이 있다. 주차장에서 꾸불꾸불한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서 5분 정도 오르다보면 탈해사에 도착할 수 있다. 산사를 돌아 본 후 손가락 바위도 꼭 찾아봐야 한다.

## 예산향교

예산읍 쌍송삼거리에서 아리랑로를 따라 가다가 예산초등학교 못 미쳐 애니 카랜드예산점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골목길이 있는데 향교길을 따라서 자동차로 1~2분 정도 가면 향교주차장에 도착한다.

조선시대의 관립 교육기관으로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창건된 예산향교는 1997년 충청남도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되었다. 예산향교는 1413년(태종 13)에 현유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창건하였고 1785년(정조 9)에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예산향교도 다른 향교처럼 대성전과 명륜당, 동재 서재로 이루어져 있다. 대성전 안에는 공자와 중국의 5성(聖) 4현(賢),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조선시대에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 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생을 가르친 향교는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를 실시하여 교육적 기능은 사라졌고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석전을 봉행한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교길 31



## 1,100년 예산 지명의 탄생지 예산산성

예산산성은 예산읍 산성리의 서북쪽에 평야 옆에 솟아 있는 무한산에 흙으로 쌓은 성으로 무한산성, 오산산성 등의 명칭으로 문헌 기록에 나오며 919년 8월에 예산(禮山)이란 지명이 탄생한 곳이다. 예산산성의 둘레는 655m, 성벽의 높이는 약 2.4m인데 옛 기록에는 ‘오산성’이라 하여 둘레가 2002척이라 하였다.

이 성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으나 예산이 백제의 ‘오산’ 혹은 ‘고산’이었던 점으로 보아 백제 때 이 지역의 중심 터였던 듯하다. 더구나 백제 부흥군이 당나라군을 맞이하여 싸웠던 곳이라 전해져 오고 있어, 백제 때 만들어진 성으로 보고 있다.

예산군은 지명탄생 1,100주년을 맞이해 예산산성을 역사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발굴조사를 진행했으며 백제시대의 저장구덩이 3기와 수혈유구 4기, 석렬시설 1기, 백제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저수조 1기 등이 발견되어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한다. 저수조에서 6~7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시대 기와편과 토기가 출토됐다.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예산읍로 관작리 예산관작전문농공단지 건너편 관작리 전적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자리에 동학농민 혁명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관군·일본군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치던 농민군은 갑오년 10월 26일 농민군은 화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토벌군 진영의 아산을 포위하고 육탄전을 벌여 끝내 토벌군을 패퇴시켰다. 관작리 전투는 농민군의 최대승전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기포(起包) 후 한 달간의 짧은 항전 때문에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다가 지역의 한 시민활동가의 노력에 의해 빛을 보게 됐다.

## 애국지사 신현상의 사당 일연각과 묘

예산읍에서 신례원 쪽으로 외곽도로를 따라서 달리다가 탈해사 쪽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5분 정도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오른쪽으로 예산6현 중 한 사람인 신현상의 사당 일연각이 있다.

다리 난간에 새겨진 ‘일연교(一鸞橋)’가 신현상의 사적지임을 말해준다. 작은 다리를 건너면 바로 앞에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조금만 가면 왼쪽에 일연각이 있고 그 옆에 신현상의 묘가 있다.

1905년 2월 신례원 2리에서 태어난 애국지사 신현상의 호는 일연(一鸞)으로



동학혁명전적지

상해노동대학을 수료하였고 1929년 3월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군자금 조달의 지령을 받고 고향인 예산에 잠입하게 되었다. 그는 미곡상을 하는 최석영을 포섭한 뒤에 천안의 호서은행 예산지점에서 위조 환증을 이용하여 5만 8천원을 인출하는 데 성공하고 베이징으로 탈출하였다.

군자금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그 해 5월에 베이징으로 돌아가 상해와 텐진 등 중국내 주요지점을 순회하면서 독립운동가에게 군자금을 나누어주게 되고 이렇게 하여 독립 운동가들의 사기를 북돋워주었다.

그러다가 그는 1930년 3월에 유기석과 함께 천진의 일본영사관을 습격하기 위하여 무기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그를 미행하던 일본 경찰에 잡혀서 예산으로 남은 돈과 함께 압송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에 공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후에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가입하였고 그는 김구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김구를 보필하였다. 그 후에 반민특위의 검찰관으로 활약하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1950년 7월 대전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되었다.

김구 선생 아들인 김신 씨가 앞에 서서 1975년에 그의 고향마을에 추모비를 세우고 사당인 일연각(一鸞閣)을 세워 그의 뜻을 기렸다. 정부는 신현상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과 독립운동 공훈을 인정해 1979년 건국포장과 1992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매년 8월 15일 광복절에 예산군수가 초헌관이 되어서 추모제례를 지낸다.

신현상 추모비(좌)와 신현상 묘(우)





## 예산 외곽도로의 벚꽃

1995년 예산에 외곽도로가 개통되면서 왕복 4차선 도로변에 20년생 벚꽃 2000여 본이 식재되었는데 4월 벚꽃이 만개하면 예산외곽도로 7km는 아름다운 벚꽃길을 자랑한다.

이 벚꽃길에서 매년 예산벚꽃전국마라톤대회와 군민건강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예산의 봄에 만나는 또 다른 명소가 되고 있다.

## 소박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예산성당

예산에는 일제의 잔재가 끼지 않은 근대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충청남도 기념물 제164호로 지정된 예산성당이다. 예산성당은 처마돌림 띠, 창 둘레 아치 장



식 등의 비례가 뛰어난 근대 성당 건축물로서 한국인 신부에 의해 1933년에 착공하여 1934년에 준공하였다.

전형적인 삼랑식(三廊式) 성당 건축이며 외관의 전체 구성은 단순하지만, 일본의 건축문화가 혼재하지 않고 서양의 건축문화를 직접 수용하여 토착화한 건축양식으로서 근대건축사 연구의 중요자료로 일컬어진다. 창 모양도 네모나거나, 둥글거나, 아치를 이고 있으며 스테인드글라스는 유럽의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 못지않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아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예산성당은 1927년 합덕본당(현 구합덕본당)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으며, 초대 신부로 구천우(具天祐) 요셉 신부가 부임하였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61번길 10

전화번호 : 041-332-2564 / 홈페이지 : <http://www.cysd.com,ne.kr/>

## 예산 호서은행

예산경찰서 앞에 전 호서은행의 건물이 있는데 예산의 성낙규, 유진상, 성낙헌 등과 서울의 백완혁, 김진섭, 백인기 등이 지방의 금융 소통과 실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자본금 30만 원과 납입자본금 7만5천원으로 설립하고 발족시켰다. 이 건물은 충청남도기념물 제66호로 지정되어있다. 1913년 7월 설립과 동시에 충청남도 공주·홍천·서산·아산·홍산·온양에 거주하는 5,000명의 거래자를 가지게 되었으며, 1917년 5월에는 광천에, 1918년 10월에는 천안에 지점을 개설하였고 1927년에는 본점을 천안으로 옮길 정도로 성업하였다.

그러나 총독부의 민족계 은행 통합정책으로 1930년 11월에 한일은행과 대등한 조건으로 합병한 뒤에 동일은행을 신설해서 해산되게 되었고 지금은 새마을 금고로 사용되고 있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2

## 예산 평화의 소녀상

예산에서도 예산분수광장에 2017년 4월 13일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었다. 충남에서 일곱 번째이고 국내외적으로는 87번째이다. 일제강점기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픔을 기억하고 군민에게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세웠다. 일본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참회할 줄 모르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예산분수광장 한 쪽에 설치된 예산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만행을 바로 알리고 올바른 우리의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예산 평화의 소녀상

## 인정이 넘치고 포근한 예산장

우리나라에는 어느 지역을 가나 전통시장이 있는데 보통 이를 5일장이라 하는데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예산에도 중소형 마트가 있어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식품을 그곳에서 구입하거나 흥성이나 천안 등지로 가서 구입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주민들의 상업 활동은 5일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농촌에서는 농사지는 농산물을 가지고 장에 나와서 팔고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공산품을 사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장은 이런 상업활동 이외에도 주민들의 만남의 장이 되어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도 교환하고 정을 나누는 곳이었다. 국밥이나 잔치국수,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면서 서로의 정을 나누는 곳이 바로 장이었고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래도 오일장에 가면 아직도 국밥과 막걸리 문화가 남아있다.

예산에는 예산장(5일,10일)과 예산역전장(3일, 8일)이 가장 크고 삼교장(2일,7일)과 고덕장(3일, 8일) 신양장(2일, 7일)이 있고 광시장(3일,8일) 덕산장(4일, 9일) 등이 있다. 덕산장은 내포지역에 도심이 형성되면서 최근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외의 지역은 장이 서도 미미하거나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산의 대표적인 예산장에서는 쌀, 사과, 쪽파, 고추 등 농산물이 많이 거래되



예산역전장

고 있고 수산물이나 공산품 등도 시장이나 시장 근처의 가게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국밥거리가 조성이 되었으니 예산장에 가서 국밥이나 장터국수를 먹고 막걸리 한 잔 곁들이면 완전한 시장분위기에 젖을 수 있다. 예산을 여행하게 되면 바로 오일장에서 맛있는 먹거리로 식사를 하는 것도 좋다. 또한 예산국수는 예산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데, 장날 국수 면발을 뽑은 것을 말리는 장면을 꼭 보라고 권하고 싶다.

### 백종원국밥거리와 예산시네마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국밥을 먹을 수 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먹던 음식이고 그 음식은 지금까지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내가 혼자 여행을 할 때도 제일 만만한 것이 국밥이다. 국밥의 종류도 참 많이 있는데 돼지고기국밥이나 소머리국밥 콩나물국밥 등 다양하다.

예산시장 한 편에 백종원국밥거리가 탄생했다. 예전에는 가건물이나 포장차를 치고 국밥을 팔았는데 이곳에는 예산군에 의해서 다섯 채의 국밥집이 생겨났고 그 집에 입주해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예산이 예산시장



백종원국밥거리



살리기 일원으로 조성된 국밥거리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명물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바로 옆에는 작은 영화관인 예산 시네마가 개관했다. 영화관이 없던 예산에 영화관이 생겨 흥성이나 찬안으로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지 않아도 된다.

영화관이 국밥거리와 연계되니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영화를 보러 왔다가 시간이 남으니 국밥을 먹고 또 영화를 본 후 출출하니 국밥을 찾게 된다. 대형마트에 상권을 빼앗기고 있지만 다시 북적이는 예산시장이 되길 바란다.

장에 와서 물건도 사고 영화도 본 후 국밥으로 배고픔을 해결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160

전화 : 041-335-2331

홈페이지 : <https://yesan.scinema.org/>

**GUIDE  
TIP**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예산장에 가는 방법은 예산역이나 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되니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예산 역전장은 역 바로 옆에서 장이 열리니 기차를 타고 올 경우는 역전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걸어도 10분도 안 걸린다.

# 11 대술면



대술은 방영웅의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분례숲길이 있는데 한두 시간 정도면 돌아볼 수 있으니, 그 길을 걸으면서 그의 문학의 향기를 만나보면 좋다. 최근에 문을 연 한국토종씨앗박물관에서는 우리의 토종씨앗을 만나볼 수 있다. 대술에는 강민침 장군의 묘와 이산해의 묘가 있으니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애국지사 이남규 고택과 기념관, 고택 옆에 있는 예산 상향리석불도 함께 돌아보고 다시 방산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다가 이광임 고택에도 가 보도록 하자.

## 분례숲길

예산의 걷기 길 중 분례숲길이 있다. 이 숲길은 예산 출신 소설가 방영웅이 1960년대 예산지역을 배경으로 쓴 소설 「분례기」의 배경이 되었던 곳인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에 조성되었다. 분례가 나무를 하러 다니던 추억과 삶의 애환이 서린 옛길이 '분례숲길'로 복원되었다.

예산에서 외곽도로를 달려서 대술로 접어들면서 우측 대술면 시산리로 나가면 바로 하나식품이 있고 뒤쪽으로 마을길을 따라서 잠시 걷다보면 등산로 입구를 만날 수 있다.



산에는 소나무와 밤나무 참나무 등이 어우러져 숲을 이루고 있는데 입구에서 출발해서 15분 정도 걸으면 자라봉에 도착하는데 자라목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였다고 한다. 자라봉 정상에 오르면 대솔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중간 중간에 의자와 숲길 안내판, 분례숲길 이야기, 숲길 표식표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읽고 느끼면서 소설 분례기를 만나볼 수 있다. 이곳에서 분례가 용철에게 시집 가서도 늘 용팔이와 나무를 하러 다니던 시간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숲 길을 걷다 보면 분례가 마치 현실의 사람인 것처럼 다가온다.

잠시 올라가면 소나무 사이로 폭넓은 임도 쪽 펼쳐진 곳을 따라서 걷게 되는데 옛날에는 대솔에 사는 주민들이 도보로 예산시장에 다니던 사정이고개를 만날 수 있어 향수를 느낄만한 장소이다.

분례숲길은 총 길이 3.5km로 걸어서 1시간 30분이면 충분히 오를 수 있다.

## 한국토종씨앗 박물관

우리나라에는 많은 박물관이 있다. 일반적인 역사로부터 각종 전문분야의 박물관까지 곳곳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관람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또 그 세상에 눈 뜨게 된다. 흔히 말하는 박물관의 개념은 역사적인 면이 강하지만 요즘은 전문 분야에 있어 작지만 알찬 박물관이 문을 열고 있다.

사전에 의하면 ‘씨앗’은 ‘곡식이나 채소 따위의 씨’를 의미하고 ‘토종’은 ‘본디부터 그곳에서 나는 종자’라고 풀이하고 있다. 글자 그대로 한국토종씨앗 박물관은 사라지는 토종씨앗을 수집 보존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한국토종씨앗박물관은 예산군 대솔면 시산서길 64-9에 위치해 있는데 예산읍에서 공주 쪽으로 가다가 시산교차로 쪽으로 나오다 보면 하나식품이 있고 길을 따라서 앞으로 조



금 더 가면 이정표가 보이고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에는 총 전시 품목이 1,200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사라지는 품종을 전시포를 통한 재배를 통해 개체 보존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토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물 발굴 체험장, 슬로푸드 요리 체험, 일반 농사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자유학기제에 맞게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위해 별도의 진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방문을 원하면 아래의 전화로 문의를 한 다음에 약속을 통해서 견학을 할 수 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대술면 시산서길 64-9

전화 : 010-6744-5613

블로그 : <http://blog.naver.com/fsac>



한국토종씨앗박물관

## 이남규 고택과 기념관

수당 기념관은 일제의 압박이나 회유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이남규 선생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8년에 세워졌다. 1906년 병오의병 때 홍주의병장 민종식(閔宗植)을 숨겨 주어, 1907년에 공주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온양 평촌 냇가에서 피살되었다.

이곳에는 수당 4대(이남규, 이충구, 이승복, 이장원)로 이어진 애국 호국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수당가(修堂家)의 독립·호국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물과 영상물을 통해서 수당가의 애국애족 정신을 알 수 있다.

기념관을 나와서 우측으로 가면 1976년 유형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된 이남규 생가가 있다. 생가는 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334-2에 위치해 있고 건물은 3동으로 조선 후기에 지어진 목조건물이다. 아계 이산해의 손자 이구의 부인이 1637년 이곳에 건립하였고 1846년에 다시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남규 고택



수당기념관

이남규 고택은 남향집으로 일(一)자형의 사랑채와 ‘튼ㄱ’자형의 안채가 있고 모두 5량(梁)의 굴도리집으로 홀처마에 팔작지붕이다. 사랑채는 정면 6칸에 툇마루 등이 있다. 안채의 좌측 끝은 맞배지붕이고, 대청 전면만은 빗물이 들이치지 않도록 겹처마로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대문 입구에는 대한민국 명품주택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데 고택 숙박체험이 가능한 곳이다.

서쪽에는 별당(別堂)인 평원정(平遠亭)이 있고 밖으로 나오면서 고택 입구 왼쪽에 서 있는 효부 신씨지문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효부성균진사이상빈처신씨지문(孝婦成均進士李尙賓妻申氏之門)’이라고 쓰인 현판이 달려 있다. 수당가의 애국심과 효심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

매년 가을에 수당문화 축전이 열리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여 함께 어우러지고 참여하는 즐거운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백일장과 그리기대회 등도 열려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참석하여 수당 이남규의 뜻을 기리고 있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181-7

전화번호 : 041-331-4401 / 홈페이지 : <http://www.sudang.net/>

## 예산 상항리석불

이남규 고택을 돌아본 후에 바로 옆으로 100미터만 가면 석불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예산상항리석불은 주위에 직사각형으로 석축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석불의 높이는 168cm, 어깨폭은 67cm이다. 석불은 계란 모양의 둥그렇고 넓직한 돌에 광배와 불상을 함께 새긴 모습이다.

석불은 눈은 감았고 코는 낮고 입은 다문 상태이다. 목은 삼도(三道) 형식을 취하고 법의는 양어깨에 걸친 통견이며 계단식 옷 주름으로 투박하게 표현하였다. 가슴과 배에는 도식적인 띠 매듭을 나타냈다. 가부좌(結跏趺坐)한 미륵불은 전체적으로 반타원형이다.

원래는 저수지 안쪽에 있었는데 저수지에 물이 잠기기 전에 이남규 고택의 옆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불상의 상체는 양각하고 하체는 음각선으로 처리하였는데 머리는 소발에 육계가 큰 편이며 얼굴은 둥글고 양쪽 귀가 크다.

상항리석불



## 이광임 고택

예산에서 대술 방면으로 가다가 산정리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간 후 꺾곡리 삼거리에서 방산저수지 쪽으로 가다보면 이남규 고택이 있고, 이곳에서 다시 자동차로 5분정도 방산저수지를 비껴 돌아 가다보면 우측에 건물 한 채가 있는데 바로 이광임 고택이다. 이광임 고택은 1978년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되었는데 이 집은 이광임이 820년에 건립하였다. 이광임은 한산이씨로 목은 이색의 16대 손이며 아계 이산해의 9대손이다.

이광임 고택은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행랑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口’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ㄱ’자형이며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사랑채는 ‘一’자형이며 안채와 같은 동향이다. 이집은 당시 중류 양반의 생활 및 건축 양식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데 근처에 이광임의 아들 승유(承瑜)의 효자 정려 현판이 걸려 있어 더욱 유서가 깊은 건물이다.

고택 입구에 이광임의 아들인 이승유의 효자 정려 현판이 보호각 안에 보존되어 있으나, 예전에는 이 집의 대문에 걸려 있었다. 이 정려 현판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집이 효도와 우애로 유서 깊은 명가임을 알 수 있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280 / 전화 : 041-333-6343



## 강민첨 장군 묘

예산에서 공주로 가는 국도를 따라가다 산정리에서 대술면소재지 쪽으로 가다가 산정2교를 지나 우측으로 자동차로 15분 정도 지나면 대술위탁영농농기계창고가 있고 그곳에서 마을길을 따라 5분 정도 가면 강민첨 장군 묘역의 주차장에 닿는다.

강민첨 장군 묘는 1990년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319호로 지정되어 있고 묘역은 반구형의 봉분 주위에 잘 다듬은 돌레돌이 둘러져 있다. 무덤 앞에는 제단과 동자상, 동물상 등 석물이 있고 묘소 하단에 그의 말 무덤이 있다.

강민첨은 고려말 963년(광종 14)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는데 고려 초에 진주 향교에서 유교를 공부하였으며 진주향교에 사교당이란 강당을 세워 글을 가르쳤다. 목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현종 때 안찰사로 고려에 침입한 동여진을 무찔렀으며 그 뒤 강감찬의 부장으로 출전하여 거란족을 흥화진에서 격파하였고 벼슬이 병부상서에 이르렀다.

그가 1021년 59세의 나이로 죽자 왕이 은렬공의 시호를 내리고 국장으로 예산군 감천동 언덕에 매장했다. 고려 문종이 즉위한 뒤 거란군을 크게 섬멸한 그의 전공을 높이 사서 공신각에 형상을 그려 본받게 하였고 묘역 앞에 1957년에 세운 신도비가 있는데 비문은 강민첨 장군의 24대손 태현이 썼고 글씨는 25대손 태석이 새겼다.

주소 : 충남 예산군 대술면 이티길 341



## 이산해 묘

이산해의 묘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184호로 지정된 합장묘이고, 분묘의 수량은 단분이며, 봉분의 외형은 원분, 봉분 둘레 11m, 높이는 1.8m이다. 용미와 사성이 있으며 분묘 앞에는 계체석으로 계절과 배계절을 구분하여 계절의 분묘 좌측에 묘표석이 있다. 배계절에는 문인석 1쌍과 망주석 1쌍이 있으며 문인석과 망주석은 묘를 조성할 시 세운 것이고, 묘표석은 1856년에 중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덤 전면에 연못과 안산이 펼쳐져 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319-60(영당)



# 12 신양면

조약의 묘와 도산서원 일산이수정 한국서예비림박물관  
 (2시간 ~ 2시간 30분)



신양에는 추사의 글씨가 남아있는 일산이수정에 올라 잠시 머물면서 풍류에 젖어보고 조익의 묘와 도산서원에 들러 선인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세워진 한국서예비림박물관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서체와 글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다.

## 조익의 묘와 도산서원

신양에서 예산 쪽으로 가다가 신양 면소재지를 벗어나 잠시 가면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을 지나면 바로 우측으로 마을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예산-공주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가 나오고 그 아래를 가로질러 잠시 마을로 가면 조익의 묘의 주차장에 닿는다.

주차장에서 홍살문을 통해서 앞으로 가면 왼쪽에 건물이 있는데 도산서원이다. 이곳은 포저 조익을 제향하는 곳이다. 잠시 위로 올라가면 좌측으로 전시관이 있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보호각이 있는데 이곳에는 포저선생문집 및 송곡문집판각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 사우가 있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묘소가 있는데 직접 올라가지 말고 우측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 있



다. 조익의 묘는 1987년 12월 30일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284호로 지정되었다. 조익의 묘 근처에 아들 조복양의 묘가 있다.

조익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김육의 대동법 시행을 적극 주장하였고, 성리학의 대가로서 예학에 밝았다. 조익(1579~1655)은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독서당(讀書堂)에 있었는데 광해군 3년 이항 등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반대한 정인홍을 탄핵하다 좌천되었는데 인조반정으로 재기용되어 이조좌랑이 되었다.

효종이 즉위한 후 우의정과 좌의정에 올랐는데, 1613년에 사직하고 신창현 도고산 밑에 초가를 짓고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다. 이렇게 예산과 인연이 있어 이곳에 묘소를 쓴 것이라고 한다. 십여 종의 저서가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묵매화 그림 등 많은 유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조익의 묘와 도산서원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산 33-1

## 추사의 향기 가득한 일산이수정(一山二水亭)

담양에 식영정이 있고 태백에 죽서루가 있다면 예산에는 일산이수정이 있다. 일산이수정은 예산의 대표적인 정자로 2002년 충남문화재자료 제382호로 지정되었는데 조선시대 현종 15년(1849년)에 전주이씨의 서당으로 이철수에 의해 건립하였고 서계양리에 거주하고 있던 전주이씨 집안의 자녀교육 장소였다.

‘일산이수정’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 귀양길에 풀려난 다음 이곳에 초대를 받아 4~5일 머물면서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름 지었다고 한다. 청양군 운곡면에서 흐르고 있는 죽천천과 예산군 대술면에서 흐르는 달천이 만나 예당호로 흘러들어가는 곳의 동산 위에 세워진 정자를 보면서 주변의 지형지세를 보고 ‘일산이수정(一山二水亭)’이라 이름 붙이고 현판의 글씨를 직접 썼다고 한다.

일산이수정은 앞면이 3칸이고 옆면이 2칸인 일자형 목재건물이고, 팔작지붕



추사 글씨 '일산이수정'



에 훌처마 민도리 구조이다. 이곳은 전주이씨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워졌지만 1920년경에는 국문강습소가 개설되었고, 1923년에는 현 신양초등학교의 전신인 신양공립보통학교가 개교를 했을 때 창립 건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예산군 신양면의 근대 초 공교육을 하는 장소로 활용된 것을 통해서 이곳이 예산의 교육사에도 큰 의미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일산이수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추사 김정희가 쓴 '一山二水亭' 현판인데 '一山'은 위아래로 썼고 '二水亭'은 횡으로 썼는데 '一山'을 위 아래로 쓴 것에서 추사의 여유로운 멋을 느낄 수 있고 다른 현판과 비교가 되어 재미가 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 두련길 50-65

관리 : 전주이씨 판서공파종중 / 전화 : 041-333-7735

GUIDE TIP

이곳에 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하천을 건너야 하는데 보의 다리를 건널 때 폭이 좁으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곳은 전주이씨의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문이 잠겨 있으면 전화로 문의를 한 후에 찾아가면 된다.

## 한국서예비림박물관

한국서예비림박물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우리의 서예에 대한 공감과 함께 돌에 새겨져 다시 태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이 박물관은 당진 대전 고속도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신양IC에서 나와서 예산 쪽으로 나오다가 신양면소재지에서 예당호 쪽인 좌측 즉 녹문리로 가 다보면 이정표가 보이고 마을길로 조금만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다. 신양IC에서 자동차로 5분 정도 걸리니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다.

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잠시 안쪽으로 들어가면 비림이 보이기 시작한다. 비림이 무엇일까? 비림(碑林) 즉 '서예의 숲'이란 서예 및 사군자를 돌에 작품 그대로를 다양한 음양각으로 세겨서 한데 모아 놓은 것을 말하며, 서예문화권에 속한 동북아 서예문화의 고향으로 각화(刻畫), 석경(石經), 묘지를 포함하여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한글 등 서예작품을 만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높



비림박물관



이 평가되고 있다.

이곳은 김생, 한석봉, 김정희 등 명필가를 비롯하여 국보급 글씨와 그림을 새긴 비림뿐만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예작품을 비롯하여 조선왕조의 세종대왕, 정조대왕 등 왕이나 흥선대원군 이하응, 안평대군 등 왕족과 김구, 이시영, 윤봉길, 유관순, 손병희 등 독립운동가의 작품도 있고, 국내 중진작가들의 글씨와 외국작가들의 글씨도 새겨 전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송나라 철종 때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하였고 비림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중국의 시안비림이 있다. 예산의 박물관은 2002년 한국서예비림협회가 주관하여 개장하였다.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녹문박살미길 7

전화 : 한국서예비림협회 전화 : 02-747-8610

**GUIDE  
TIP**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정말 '서예의 숲'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천천히 다니면서 감상하는 것이 좋고 해설이나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알아본 후에 돌아보면 더 좋을 것이다. 일산이수정과 함께 돌아보면서 그곳의 추사의 글씨와 이곳의 추사의 글씨를 함께 만나보는 것도 좋다.

# 부록

1. 예산 읍면사무소 주소
2. 관광안내 전화번호
3. 예산군 등산 및 트레킹 코스



1. 예산 읍면사무소 주소(도로명, 지번,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041)

읍면	주소	전화번호
예산군청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읍 예산리 600 <a href="http://www.yesan.go.kr/">http://www.yesan.go.kr/</a>	339-7114 339-7323
예산읍사무소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76번길 15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29-1 <a href="http://www.yesan.yesan.go.kr/">http://www.yesan.yesan.go.kr/</a>	339-8981
삽교읍사무소	예산군 삽교읍 두리3길 33 예산군 삽교읍 두리 571-1 <a href="http://www.sapgyo.yesan.go.kr/">http://www.sapgyo.yesan.go.kr/</a>	339-8982
삽교읍사무소 내포출장소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6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9	339-8505
고덕면사무소	예산군 고덕면 고덕중앙로 45-5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08-1 <a href="http://www.godeok.yesan.go.kr/">http://www.godeok.yesan.go.kr/</a>	339-8990
광시면사무소	광시면 광시소길 16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95 <a href="http://www.gwangsi.yesan.go.kr/">http://www.gwangsi.yesan.go.kr/</a>	339-8985
대흥면사무소	예산군 대흥면 의중은형제길 37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106-1 <a href="http://www.daeheung.yesan.go.kr/">http://www.daeheung.yesan.go.kr/</a>	339-8986
덕산면사무소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91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344-1 <a href="http://www.deoksan.yesan.go.kr/">http://www.deoksan.yesan.go.kr/</a>	339-8988
봉산면사무소	예산군 봉산면 황금들로 3 예산군 봉산면 고도리 55-2 <a href="http://www.bongsan.yesan.go.kr/">http://www.bongsan.yesan.go.kr/</a>	339-8989
신암면사무소	예산군 신암면 종경길 70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245-21 <a href="http://www.sinam.yesan.go.kr/">http://www.sinam.yesan.go.kr/</a>	339-8991
신양면사무소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372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351-1 <a href="http://www.yesan.go.kr/sinyang">http://www.yesan.go.kr/sinyang</a>	339-8562
오가면사무소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86-12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226-7 <a href="http://www.oga.yesan.go.kr/">http://www.oga.yesan.go.kr/</a>	339-8992

## 2. 관광안내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예산군청문화관광과	339-7323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관광종합안내	339-8930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2로 11
덕산도립공원	339-8930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1
예당관광지	339-8282	예산군 응봉면 예산관광로 161
국민여가캠핑장	339-8287	예산군 응봉면 예산관광로 161
총의사	339-8232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
봉수산휴양림	339-8937	예산군 대흥면 임존성길 153
봉수산수목원	339-7604	예산군 대흥면 임존성길 110-16
예산황새공원	339-8271	예산군 광시면 시목대리길 62-19
대흥슬로시티	331-3727	예산군 대흥면 중리길 49
추사고택	339-8242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수덕사	330-7700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향천사	335-3556	예산군 예산읍 향천사로 117-20
탈해사	334-7798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294-117
법륜사	337-6609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835-45
화암사	332-9250	예산군 신암면 용궁1길 21-29
쌍지암	333-9619	예산군 광시면 대리길 208-52
대련사	332-0408	예산군 광시면 동산2길 119
광덕사	337-3841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148
한국고건축박물관	337-5877	예산군 덕산면 흥덕서로 543
한국문인인장박물관	332-0592	예산군 광시면 운산2길 111-6
한국토종씨앗박물관	010-6744-5613	예산군 대술면 시산서길 64-9
윤봉길의사기념관	339-8232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
김한중의사기념관	333-3072	예산군 광시면 장신신흥길 283-12
수당기념관	331-4401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181-8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추사기념관	339-8242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49
황새문화관	339-8271	예산군 광시면 시목대리길 62-19
근역성보박물관	330-7777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수덕사선미술관	330-7766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예산향교	339-8930	예산군 예산읍 향교길 31
대흥향교	332-0552	예산군 대흥면 교촌향교길 88
덕산향교	339-7323	예산군 덕산면 덕산향교길 88-34
삽교역	337-7788	예산군 삽교읍 삽교역로 101-14
예산역	335-7788	예산군 역전로 83
시외버스	333-2922	예산읍 금오대로 35-14
시내버스	332-7494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06
예산개인택시	335-2245	
삽교개인택시	337-3233	
덕산개인택시	337-1818	

### 3. 예산군 등산 및 트레킹 코스

#### 〈덕숭산〉

수덕사 - 등산로 - 정상 - 정혜사 - 견성암 - 수덕사

#### 〈가야산〉

1코스 : 남연군묘 - 관음전 - 옥양봉 - 등산로 - 석문봉 - 상가리저수지 - 남연군묘

2코스 : 남연군묘 - 관음전 - 옥양봉 - 등산로 - 석문봉 - 등산로 - 원효봉 - 상가리저수지  
- 남연군묘

3코스 : 남연군묘 - 옥양폭포 - 등산로 - 석문봉 - 옥양폭포 - 남연군묘

#### 〈봉수산〉

1코스 : 대흥면사무소 - 북문지 - 북쪽등산로 - 정상

2코스 : 광시 동산리 - 대련사 - 남문지 - 성곽로 - 정상

3코스 : 광시 마사리 - 임도(자동차이용) - 주차장 - 우물터 - 성곽로 - 정상

#### 〈대흥슬로시티 느린꼬부랑길〉

1코스 옛 이야기길 : 슬로시티방문자센터-봉수산자연휴양림-대흥동헌-달팽이미술관

2코스 느낌길 : 슬로시티방문자센터-대흥동헌-애기폭포-대흥향교-이한직가옥

3코스 사랑길 : 슬로시티방문자센터-이한직가옥-대흥향교-삼신당터-원두막(반환)

#### 〈내포문화숲길(원효깨달음길)〉

광천저수지-수덕사입구-원효암입구-원효암터-보덕사입구-대문동-서산보원사지

#### 〈가야9곡 녹색길〉

1구간 야생초화농로녹색길 : 예산군관광안내소 - 야행호화단지 - 덕산사이판온천

2구간 옥계저수지수변녹색길 : 옥병계(2곡) - 현종태실 - 관어대(1곡)

3구간 상가리하천제방녹색길 - 옥병계(2곡) - 습운천(3곡) - 석문당(4곡) - 영화담(5곡)

4구간 가야산산림녹색길 : 영화담(5곡) - 상가리미륵불 - 남연군묘 - 탁식천(6곡) - 외룡담(7곡) - 고운벽(8곡) - 옥량포(9곡)

#### 〈솔바람길〉

삼교읍목리 - 가루실고개 - 오형제바위 - 수암산 정상 - 풍차전망대 - 지하통로 - 징검다리 - 관광안내소

#### 〈분례숲길(방영웅 소설 분례기의 무대)〉

대술 하나식품 - 등산로 입구 - 자라봉 - 사정이고개 - 여우재 - 등산로입구 - 하나식품

## 오감만족 예산여행

발 행 2017. 12. 30

저 자 이병헌

발 행 인 김시운

발 행 처 예산문화원

주 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90번길 3(대회리)  
전화 041-335-2441

기 획 박세진

편집위원 한구복 김문희 김도희 김종옥 박복규 신익선  
유원숙 이명선 이송희 정달순 한상복 김용진  
박재호 성백유 신창균 엄용호 오수남 황충길

행정지원 이충환 이수영

제 작 처 도서출판 내포(등록 2016-000002호)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루실길 182 109호  
070-7761-6537

I S B N 979-11-959886-6-2

©이병헌 2017

이 책의 내용이나 사진에 대하여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책은 충청남도과 예산군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비매품]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7032991)

## 예산문화원 발간 도서목록

- 051 추사여, 거례의 혼불이여(上, 中, 下 3권)(한글, 영문)
- 050 2016 제2회 예산군 옛사진 공모전 사진집
- 049 예덕의 예산상인 이야기
- 048 예산의 소리
- 047 충청남도 예산말 사전 3
- 046 충청도말 이야기
- 045 역주 정일현 시집
- 044 일연실기
- 043 목향의 본향에서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를 만나다
- 042 죽당한록
- 041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의 생애와 문학 및 철학적 의의
- 040 예산의 문화산수화 2
- 039 충청남도 예산 방언 사전 2
- 038 우리가 몰랐던 예산문화유산 이야기
- 037 일제하에서 문예광의 표정
- 036 충청남도 예산 방언 사전 1
- 035 예산 임존성
- 034 예산의 문화산수화 1
- 033 예산의 인물
- 032 예산군 강역변천사 연구
- 031 대흥 임존성 연구
- 030 염정문화
- 029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 수상작품 도록
- 028 예산의 인물 증보
- 027 예산의 풍물 증보
- 026 예산의 실학
- 025 회암서원 창건록
- 024 동학원 발원
- 023 일제강점기의 예산지역사
- 022 전통혼례증보
- 021 예산군 선사유적지표조사 보고서
- 020 춘암 박인호 선생
- 019 예산의 문화유적도
- 018 예산의 민요
- 017 추사 김정희 선생 실기
- 016 맥·인지상득
- 015 내포제 시조 정약보
- 014 천방산 아랫마을 이야기
- 013 갈신리 산신제
- 012 예산 백제 사면석불의 고찰
- 011 호서은행의 설립과 그 운영의 의의
- 010 일제시대 각종 신문 예산관련 기사 모음집
- 009 추사 김정희 선생 연구
- 008 자랑스런 예산군 문화유산
- 007 예산지방의 풍물
- 006 예산의 인물
- 005 내고장이 낳은 인물 춘암 박인호 연구
- 004 예산군 향토민속축제 발전방안
- 003 예산의 지명유래
- 002 전통혼례
- 001 갈신리장승제

아름다운 예산 구석구석 돌아보기 품꽂 가이드

노갈만족  
예산여행



ISBN 979-11-959886-6-2  
[비매품]